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1월 29일(음력 10월 9일) 수요일 (주간) 제 605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어려운 단어? 인터넷에 물어봐

조계종 '인터넷불교용어사전' 제작… 2008년 한·중·영 사전 오픈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인터넷 불교용어사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불교용어사전 제작 사업을 시작해 올 12월 초까지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만불광산사 발행 중영사전, 종단영문표기법, 운허 스님 불교사전 등을 참고해 약 5만 단어를 수집한다. 2007년까지 기초 데이터 추가 수집을 비롯해 국내 불교신문 및 학술서를 중심으로 사전화되지 않은 단어를 추출한다. 2008년 상반기에는 중국어가 병기된 한글 및 영문 불교사전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언어별 독자적인 사전이 구축될 뿐 아니라 한글-영어, 한글-스페인어, 영어 스페인어 등 1차 선택 언어와 2차 선택 언어간 비교 참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구글의 위키(wiki) 서비스 연결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정의 외에 백과사전적 정의까지 연결된다.

포교원이 인터넷 불교용어사전을 개발한 이유는 현재 종단 내 합의된 영문 및 다국어 번역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기준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종단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정리되고 검색이 쉬우며 언어별 참조기능이 있는 인터넷 불교사전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됐다. 포교원은 인터넷 불교사전을 무료 개방해 해외포교 활성화와 종단 위상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근 포교원 국제사이트팀장은 "사업 추진 주체 및 예산 확보 등이 확정돼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종단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남동우 기자

"중생을 가족으로 여기며 화합세상을…"

진각종 제10대 도흔 총인 추대법회… '心印진리' 실천 다짐



진각종의 최고 지도자인 제10대 총인에 도흔 정사가 취임했다. 진각종은 11월 23일 서울 총인원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인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총인으로 추대된 도흔 정사(가운데)가 호위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서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종 제 10대 총인 도흔 정사가 공식 취임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1월 23일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제 10대 총인 도흔 정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회정 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추대법회는 진각의 새역사를 앞둔 법연의 줄기로, 한국 밀교의 법맥을 이어가는 장엄한 법통 승수의 자리"라며 "지중한 인연이 갖는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총인 추대 법회를 계기로 진언행자들이 더 큰 서원과 정진으로 진각종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인에 추대된 도흔 정사는 법어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심인진리(心印眞理)의 법통을 승수하고 실천해 이 지상에 밀엄정토(密嚴淨土)를 건설하기 위해 서원하는 불사의 자리"라며 "심인진리는 법신불의 당체법문을 심인으로써 전수상승한 진각성존의 육자진언 묘리에서 우러난 자내증(自內證)의 법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윤원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겸 이타회 회장,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진각종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21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흔 총인은 "먼저 가정이 화순(和順)해야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인류평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흔 총인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전미개오(轉迷開悟·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름)하여 이타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면서 "진각종이 사회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모실 걱정 태산같아요"

호스피스 활동 지현 스님, 高大 안산·안암·구로 병원 법당 3곳 개원 앞두고 '막~막'

삶과 죽음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병원은 그 어느 곳보다도 부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병원은 많지만 정작 병원 내에 법당이 마련된 경우는 흔치 않다.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병원법당을 연달아 3개나 개원하기 위해 바쁜 스님이 있다. 11년째 고대의료원에서 호스피스 활동 중인 지현 스님(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회장·사진).

스님은 12월 4일 고대안산병원 법당개원을 시작으로, 12월 중 고대안암병원, 내년 1월 고대구로병원에 차례로 법당을 개원할 예정이다.

스님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11월 22일 고대안암병원에서 만난 지현 스님은 그처럼 병원불사가 가능했던 이유를 말없이 보여줬다.

"스님, 마음공부가 마음처럼 안돼요. 환자들이 댓거리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요."

스님은 병원 직원의 하소연을 듣는 중이었다. 직원과 상담 나누기를 10분 여. 직원은 연신 등을 다독거려준 스님에게 합장 반배를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스님이 법당 개원 원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병원 내 의료진, 환자, 봉사자들과 마음을 합친 덕택이다.

스님은 11년 전 불자회조차 없는 병원에서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려왔다. 낱낱이 흩어진 불자를 수소문했고, 2005년 불자회 창립을 서원하던 안암병원 신생아실 김명화 수간호사와 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의를 만나 2005년 7월 7일 고대의료원 불자회도 결성했다.

그런데 법당건립을 요구하는 불자회 측에 병원은 건립불가 통보를 내렸다. '활동이 없어 공간을 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스님은 눈앞이 깜깜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대의료원과 중대병원을 뛰어다니며 환자를 돌보고 의료진을 위로하는 지현 스님은 아예 호주머니 안에 병원의료진 근무표를 넣고 다닌다.

그러나 곧바로 성지순례를 비롯해 해외근로자 봉사활동, 몽골의료봉사 등을 전개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운 부분은 지현 스님이 연을 맺고 있던 중대병원 불자회와의 연계활동으로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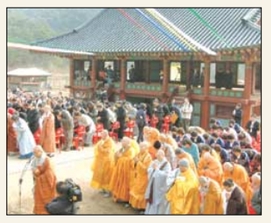
요즘은 월·목요일 중대병원, 수요일 구로병원, 금요일 안암병원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틈틈이 안산병원을 찾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격주로 불자회 교리공부도 진행중이다. 병원봉사 활동에 방해될까봐 따로 몸담은 절도 없다.

그런 스님에게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일시에 법당 3개를 불사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도 큰 것이 문제다. 부처님도 모셔야 하고, 좌대와 탱화, 촛대 등은 물론이고 컴퓨터, 냉장고 등도 각 법당마다 필요하다. 지속적인 후원금도 확보해야 한다는 걱정으로 스님은 잠이 오지 않는다.

"병원 측에서는 6평짜리 시멘트 바닥만 내줬어요. 이곳을 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텐데, 개원을 앞두고 여러가지로 막막하네요."

힘없이 말하던 스님에게 휠체어에 아이를 태우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아이 손을 잡고 쾌유기도를 한 스님에게 아주머니는 "고대병원에 불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불자다"라며 "그동안 불자들이 입원해도 마땅히 의지할 곳 하나 없었는데 어서 병원법당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간 후 스님은 빙그레 웃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법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아셨죠?"011-305-6699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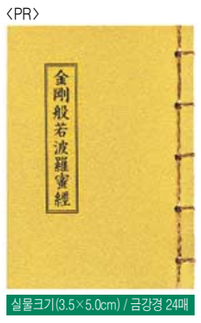
도반의 향기
공문수 3대째 手목탁 제작 17면
조계종 내년 예산 얼마? 2면
현장교사들이 말하는
어린이법회 오늘과 내일 19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통광 스님 '원각경' 24~25면



시방세계 9면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낙성 현장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11월 20일 오후 7시, 원담스님 '쌍림열반상'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주 11월 30일 – 12월 6일 [17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1월30일[목]	우리절	–	경기광주시	18km
12월 1일[금]	광주시	–	조안면	26km
12월 2일[토]	조안면	–	대성리	19km
12월 3일[일]	대성리	–	가 평	23km
12월 4일[월]	가 평	–	의암역	19km
12월 5일[화]	의암역	–	소양호선착장	17km
12월 6일[수]	소양호	–	양구 광치	74km

제 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1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백담사	12km
12월10일[일]	백담사	–	봉정암	12km
12월11일[월]	봉정암	– 백담사 –	용대리	24km
12월12일[화]	용대리	–	소똥령	17km
12월13일[수]	소똥령	–	건봉사	18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어린이 포교 · 간화선 대중화 예산 두 배로

조계종 중앙종회, 내년 예산 172억원 승인 … 중앙승가대 특별회계 21억8천만원 '눈길'

내년도 조계종 예산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한국불교세계화 및 간화선 대중화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이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밝힌 어린이 포교 등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72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해 2007년도 일반 회계 세입과 세출을 171억9천8백51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5억2천1백63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어린이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 형태의 간접 사업만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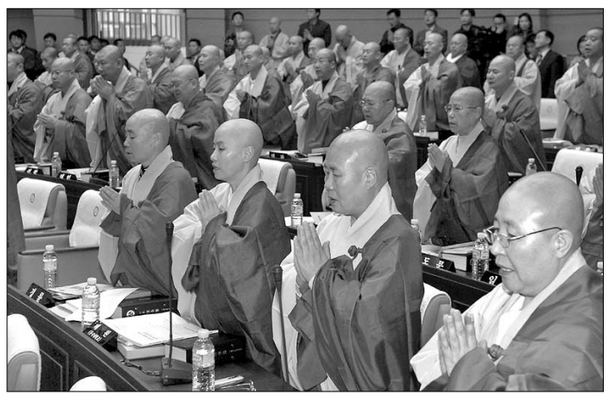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는 간접 사업비 증액은 물론 직접 사업으로 어린이포교 조직 네트워크 형성, 어린이교재시리즈 제작 등에 3억원 가량의 신규 예산을 책정해 어린이포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 세계화 및 간화선 대중화 사업 예산도 대폭 늘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그동안 포교원과 총무원 사회부로 나눠졌던 국제 업무를 사회부로 통합하고 예산도 전년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1백37만2,000원을 결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 남화사 초청 방문 및 종조 도의국사 기념비 제막, 대만 불광산사 대표단 초청, 스리랑카 복지타운 준공, 해외불교 협력 지원 등 다양하다.

포교원의 간화선 대중화 사업과 관련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연구 개발비를 전년대비 108% 증액한 4천4백2만3,000원으로 확정하고 계층별 간화선입문 프로그램 연구 개발비를 신설해 1천2백52만7,000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3일 열린 제17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2007년도 조계종 예산 171억9천8백51만5000원을 확정 통과시켰다. 사진=고영배 기자

또한 교육원에서는 일반 연수교육비 가운데 2천1백2만원을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 과정 운영비로 책정했고 불학 연구비 가운데 <간화선> 보완 및 영역 사업에 2천4백95만원, 간화선 세미나 사업에 1천2백15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스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간화선을 일반 재가 신도들에게까지 보급시켜 대중화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내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박물관 및 공연장, 종합민원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및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8천79만8,000원이, 해외소재 불교문화재 현황조사 및 도난성보 웹서비스 구축 사업에 1천3백9만8,000원, 성보박물관 보존 환경조사에 1천6백34만원, 남북불교문화재 학술대회에 1천8백48만4,000원이 각각 신규 책정됐다.

한편 특수 목적의 특별회계에는 시설특별회계 34억3천1백76만4,000원, 중앙승가대 특별회계 21억8천7백45만4,000원, 신도교무금 특별회계 8억8천5백79만6,000원,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 1억1천1백72만4,000원이 각각 책정돼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

조계종 2007년 주요 사업별 예산

분 야	상세 내용	지원 금액
어린이 포교	어린이청소년포교지원	261,040,000원
	청소년법요집 편찬	11,000,000원
	어린이포교 조직 네트워크	28,588,000원
	어린이교재 시리즈 제작	34,890,000원
	어린이법회 개설 지원	18,000,000원
	어린이포교 콘텐츠 개발	35,300,000원
한국불교 세계화	해외불교 협력 지원	13,000,000원
	중국불교 교류	27,784,000원
	대만 불광산사 대표단 초청	38,600,000원
	스리랑카 복지타운 준공식	34,286,000원
간화선 대중화	간화선 세미나	12,150,000원
	<간화선> 보완 및 영역	24,950,000원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 과정 운영	21,020,000원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연구개발	44,023,000원
	계층별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연구개발	12,527,000원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및 운영	80,798,000원
	불교중앙박물관 캠페인 사업	2,500,000원
공원입장료 폐지 대응	관람료사찰 관리 지원	6,530,000원
	공원입장료 폐지 대응	12,700,000원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기념관 운영	826,997,000원
불교문화개발	사찰음식의 전승보급체계확립	19,428,000원
의제	의제 통일	22,080,000원
종무행정	종무행정 지방이양	9,293,000원

"개원종회 의욕적" 평가

26건 처리하고 23일 폐회, '쟁점 · 대립' 없어

11월 13일 개원한 제172회 정기중앙종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폐회됐다.

이번 종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정도로 의정 활동이 활발해 제14대 중앙종회가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종회에서는 혜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정화 스님 등 스님 등 7명의 비구니스님에 대한 '명사' 품수를 만장일치 동의했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로 상운, 우담, 성원, 성운 스님을 추천했다.

또한 종법 개정을 위해 종헌종법개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장적 스님을 위원장에 선임했으며 대오, 광조, 장주, 덕문, 효림, 성정, 재현, 태현 스님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종헌종법개정안 기초특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중앙종무위원선거법, 종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덕산, 등운, 진오, 승혜 스님이 선출됐다.

그 외에도 용주사 골프연습장 저지 및 토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과 지난 10월 11일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에 대한 공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장적 스님 등이 발의한 '중앙선관위원장 해임결의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김두식 기자

내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공모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내달 20일 마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2007년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공모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기본 요건은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거나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찰로 전통 가람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자 20인 이상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방과 방사(숙소)를 갖추고 사용에 불편이 없는 화장실과 세면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전담 또는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찰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찰은 접수 공문, 신청서, 사찰홍보물 일체, 사찰 조감도 또는 가람 배치도, 전경 및 시설 사진 등을 첨부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1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및 방문, 이메일(ts2002@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02)732-9946

남동우 기자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마감 : 2006년 12월 16일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문의전화 : (02)2004-8241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포교국장 오심, 신도국장에 재안 스님

조계종 포교원 새 포교국장에 오심, 신도국장에 재안 스님이 11월 20일자로 임명됐다.

오심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울산 월봉사 주지를 맡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사회복지학)를 받은 재안 스님은 동국대 석림회장, 서울 봉은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총무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오영교 前 행자부장관 입후보

동국대 총장후보 6명 … 내달 1일 투표로 '추천'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장관이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자에 입후보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지홍, 이하 총추위)는 11월 24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교 前 장관을 비롯해 보광(선학과), 현각(선학과) 스님, 이황우(경찰행정학과), 김보환(경찰행정학과), 한진수(회계학과) 교수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확정했다. 총추위는 12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에서 후보자 소견을 들은 뒤 투표를 실시해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일반 김치보다 항암작용이 탁월한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항암작용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병술년은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으로 김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씁쓸한 맛을 느끼지만, 숙성이 되면 최고의 김치맛이 날 뿐더러
항암작용이(정제염 30%, 죽염 66%) 일반김치보다 매우탁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되었던 황토맹종죽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공장도 가격 그대로를 책정하였습니다.

- 양치, 맛사지 및 김장용 3번구운 황토맹종죽염 380g 1만원
-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체질개선용. 아홉번구운 맹종죽염(380g 10만원) 주문시 올 바른 죽염 사용법 설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 천태산 죽염 : 전화 055)382-5515, 011-870-3951 / 팩스 055)384-1553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의 實相과 理解

황토맹종죽염이란 본래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고열에 구워 만들어내는 민속 향약으로 먼 옛날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인체의 건강 질병예방과 치료에 널리 응용 되어 온 신비로운 건강식품이다. 천태산 진우도인이 제조하는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천일기도중에 천태지자 대사의 수기로 진우도인이 신비의 죽염 제조 공법을 더욱 정밀히 개발 심화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궁합논과 연계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데 정령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죽염을 청죽과 염을 조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나 천태산 황토 맹종 죽염은 황토와 송진 첨가는 물론 대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왕죽과 분죽이 아닌 특수한 맹종죽을 주재료로 하는데 있다. 위 4가지 물질을 배합하여 1300℃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아홉번을 합성 반복 결정체를 만드는 법제 방식으로 탁월한 공능을 갖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천하절경 성지순례 도량 천태산 천태사 성지순례 오세요.



부산대 박건영 교수 죽염김치 암예방 노화억제 연구 논문

「죽염과 구운 소금이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소금을 태우는 과정에서 소금 속에 있는 중금속 등 나쁜 성분이 날아가고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 항암등의 효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죽염 김치의 경우 위암 세포를 66%나 억제한 반면 천일염은 47%, 정제염 김치는 30% 억제하는데 그쳤다.** 또 맛 측정을 위해 김치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맛관능테스트 훈련을 시킨 다음 각각의 소금으로 담근 겉저를 맛본 경과 죽염과 구운 소금이 정제염보다 훨씬 맛갈스럽다는 결론 얻었다고 한다.」

(2006년 9월 13일자 수요일 20면 부산일보 보도)

아홉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세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새싹포교 20년 … 묵묵히 한길로

사단법인 동련 창립 20돌

척박한 현실에서도 어린이포교 외길을 걸어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 · 이하 동련)이 창립 20돌을 맞았다.

동련은 11월 25~26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초발심으로 다시 서는 어린이포교'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포교에 헌신하는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 20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 어린이지도자연수, 제2회 전국불교구연동화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동련의 전신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5개 지역의 어린이법회 지도자 300여명이 모여 지난 1986년 10월 3일 출범했다. 이후 전국에서 열리는 어린이법회를 각 지구별로 지원하고, 교리연구 및 교재발간, 어린이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등의 사업에 주력하며 불교계의 유일무이한 어린이포교 단체로 자리 잡았다.

'동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2005년 11월 사단법인화 하면서다. 동련이 20년동안 매진한 것은 어린이포교를 담당할 인재양성이었다. 지도교사 수급이 어렵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법회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7년 화성 신흥사에서 '제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두 차례씩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마련했다. 20년간 2만 8000여명의 지도자가 정식 등록해 연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1998년 현 대한불교교사대학의 전신인 동련불교교사대학을 설립해 현재까지 약 800여명의 지도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1991년 <월간 유아>, 1992년 <소년 중앙> 등의 불교비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대사회적 활동도 펼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지도자 2000명의 서명을 담은 '어린이법회 활성화 방안'을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앞으로 건의했다. 종단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느낀 지도자들이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시각이 변화하길 간절히 염원하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법회를 여는 사찰이 점점 줄어가던 1996년에는 '전국 사찰에 어린이법회를' 캠페인을 벌이며 전국 사찰에 청원문을 발송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어린이법회의 든든한 외호자로 나섰다.

뿐만 아니라 법회에 필요한 자료와 지침서 발간에도 앞장서 왔다. 1987년부터 어린이포교지 <연꽃>을 자비로 발행, 오늘날까지 전국 600여 군데의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에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1990년부터 <어린이법회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어린이법회를 위한 설법과 교리연구총서> <어린이법요집> <어린이법회 지침서> 등도 발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창립20주년을 기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과 '부처님 일대기' 플래시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 중이며, <어린이법회 지침서>도 수정 보완해 재출간할 예정이다. 2007년에도 <어린이포교 자료집>과 <어린이포교자료집 활용 지침서> 등을 차례차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동련은 한때 종단의 지원이 줄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어린이법회 지도자용 잡지 <동련>을 폐간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연 2차례 열고 있는 연수회 역시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법한 수련시설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연수회 개최경비를 지원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가 누적돼왔지만, 연수생에게도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동련이 매달 발행하는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어린이포교지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자비제작 되고 있어 종단의 적극적인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불자와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인재 양성 · 전국 각 지구별 법회 지원
총 2만 8천여명 지도자 연수 거쳐가
재정난 못이겨 잡지 '동련' 폐간도
종단 적극적 재정지원 · 상설수련관 '과제'



11월 15일 개원한 라오스 청소년 도서관에서 문명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사진=지구촌공생회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에 청소년도서관 개관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소외지역인 싸이싸니구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개관했다.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지부는 11월 15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생청소년 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 도서관은 한국NGO봉사단으로 라오스에 파견된 박미연씨의 제안으로 설치돼 의미를 더한다.

개관식에는 지구촌공생회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생유치원생과 학부모, 싸이싸니구내 학교의 교사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60㎡의 공간에 마련된 공생청소년도서관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서적과 역사, 문학, 과학, 철학, 컴퓨터 관련 서적, 라오스 국정교과서 450권을 소장하고 있다.

앞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지원, 주말 놀이교실 및 독서모임 운영 등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구촌공생회는 "라오스 현지의 후원금과 한국에서 보내온 후원금 덕분에 도서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공생청소년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추가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달라"고 요청했다. (02)455-9596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생협연합회 창립 발기

생산자회 100곳 · 봉은사 등 소비자회 24곳 참가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다 쉽게 연결하려는 불교적 해답 찾기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본격적으로 불교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불교생협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백남석)는 11월 20일 서울 불광사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발기인으로 지리산친환경영농조합, 남원 남농영농조합 등 100곳의 생산자회와, 서울 봉은사, 불광사, 길상사, 수원포교당, 대구 관오사 등 사찰매장과 시흥 연두농장 등 24개 소비자회가 참여했다.

이날 불교생협연합회 창립준비위는 1년 이내에 생산자회와 소비자회 조직을 갖춘 연합회를 발족시키고, 사찰장터 운동과 친환경공양미 운동, 계절별 특판활동 등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北 전염병 성홍열 확산" 좋은 벗들, 정부지원 요청

(사)좋은벗들은 북한에서 전염병 '성홍열'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긴급 대책마련과 의료지원을 요청했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양강도 혜산에서 발병한 성홍열이 평남 문덕, 강원도 문천, 함북 길주, 청진 등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좋은벗들은 "의료상황이 열악한 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봉영 기자

파라미타 10년사 발간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와 사업실적을 정리한 <파라미타 10년사>를 발간했다.

11월 23일 발간된 <파라미타 10년사>는 △10년간의 다양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파라미타 10년 모습 돌아보기' △전국연합캠프,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국제교류활동 등 중앙본부 주요사업 소개 △전국 11개 지부의 차별화된 활동과 지부발족 역사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능인선원 YBA 겨울캠프

능인선원 YBA(Young Buddha Association)는 내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겨울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YBA 겨울캠프는 필리핀 파나이섬 일로일로시티 인근 뉴 루세나에서 뉴 루세나 공업대학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지역 빈곤층 어린이 영양관리, 민간의 학연구소 건축공사 참여, 영어로 진행되는 현지인과의 문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뉴 루세나 공대 학장이 발행하는 봉사활동인증서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12월 4일 마감된다. (02)6414-1034

박봉영 기자

효봉 스님 수행처 공개 금강산 법기암터 내달 순례

통합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효봉 대종사의 수행처이자 오도지(悟道地)인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터가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현대아산 및 북측 관계자와 최근 법기암터 공개에 합의하고 11월 사전 답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근 낙성식을 봉행한 금강산 신계사 및 효봉 스님 오도지 법기암터를 순례하는 시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신청마감은 12월 1일. 동참금 33만원. (02)2011-1859~60

남동우 기자

'올해의 인재상' 후보 추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올해 불교계를 빛낸 재가불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2006 올해의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후보자 추천서와 이력서, 관련 부문 실적 자료 등을 첨부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735-2428

남동우 기자

동국대 산하학교 합동 수계법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는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동국대 체육관에서 산하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1300여명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솜방망이 판결

지난 11월 15일 열린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종정기구의 전횡'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수국사 전통사찰부지 매각으로 고발된 자용 스님에 대한 초심의 제적 결정을 뒤엎고 공권정지 2년을, 공권정지 10년을 받은 현도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1년이 각각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우이동 보광사 폭력 사태로 초심에서 공권정지 7년을 받은 현중 스님에게는 문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삼보재정 유실 방지'와 '폭력 사태 엄중 처벌'이라는 종단의 의지를 무색케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단체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11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계원장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권능을 이용해 원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심판을 내린 것은 호계원의 권위 실추 뿐만 아니라 종지 못한 사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단의 사법기관이 권능을 이용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 가혹한' 세태를 따른다면 종단의 기강과 질서 확립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제14대 개원 종회인 172회 정기중앙종회에서도 호계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위에 올랐다. 11월 23일 호법부 종책질의에서 보인 스님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의 형량이 크게 다른 것을 두고 호법부장 심우 스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예전에 사회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란 말이 떠돌았다. 가진자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돈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다는 이 말속에는 권력 · 재물 때문에 비뚤어진 판결에 대한 자조와 한탄이 섞여 있다.

세속을 떠난 승가에서조차 이같은 법칙(?)이 통용된다면 과연 불자들은 스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두식(취재부 기자)

결 의 문

지난 2006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 대한 공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호국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온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존중하며, 공정한 법집행과 적용만이 국가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첩경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종교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으며, 종교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도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에 기반하여야 하는 바, 사회와 국가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의 정화를 담당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귀의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한 도량을 야간에 강제로 짓밟은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폭거이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본사로 수많은 승려와 신도가 교육받고 수행하고 있는 도량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한 행위는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히 훼손한 법난(法難)이자 종교의 존재와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공주지방검찰청의 마곡사 야간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검찰총장의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 또한, 금번 사건이 종단 내부의 자체적인 정화 절차와 의지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외부기관에 고발하여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일부세력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점을 깊이 개탄하며, 중앙종회의원이 앞장서 화합으로 상생하는 종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50(2006년)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7강 : 녹원전법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성열 스님(서울 강남포교원 원장) / 11월 22일

정법 배워 가까운 사람부터 전법하세요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법(法)을 설하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부처가 되지 않았더라면, 또 그 분이 부처님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법을 설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 우리가 불교를 알고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로 일어나서 법을 전하러 다니신 것은 아닙니다. 율장에 의하면 부처님이 지친 몸도 쉬고, 깨달음의 내용도 점검하며 칠칠일동안 휴식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주에 범천(梵天)이 부처님에게 절을 하면서 설법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깨달은 이 진리를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공연히 비방이나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침묵하고 있을 때 범천이 내려와서 간절히 청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못알아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은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을 살펴보니 이 세상 중생들이 마치 연꽃과 같더라는 겁니다. 연꽃이 물 위의 올라와서 핀 것도 있고, 수면에 겨우 고개를 내민 것도 있고, 물속에 갇힌 것도 있는 거죠. 후에 성문, 연각, 보살이나 상, 중, 하 근기 등의 말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누구에게 설법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적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행할 당시 지도해 주었던 스승을 생각했는데 그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입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300㎞나 떨어진 베나레스로 걸어갑니다.

베나레스에 도착했을 때, 다섯 비구는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걸 보고 약속 합니다. "저기 싯달타가 오는데 그는 타락한 수행자이다. 우리 모르는 척 하자." 하지만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에게 법을 설합니다. 부처님은 첫 가르침은 "고행에 매달리지 말라. 그렇다고 쾌락에도 빠지지 말라. 고행이든 쾌락이든 결국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지치게 할뿐 얻어지는 것은 없다."며 중도를 설하고, 사성제, 팔정도를 설합니다. 이 때 제일 먼저 눈을 뜬 이가 교진여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교진여는 나가서 밥을 빌고 부처님은 네 사람을 향해서 또 설법을 하는 겁니다. 교진여가 밥을 얻어 와서 때가 되면 여섯 사람이 밥을 먹고, 부처님은 다시 네 사람을 향해 설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사람이 눈을 뜹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사람이 다 눈을 떴을 때 부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는 여섯 사람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구나. 한 사람의 스승 아라한과 다섯 사람의 제자 아라한이다."

이제 세상에는 처음으로 삼보가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이 불보며, 부처님 가르침이 법보요, 부처님 제자가 있으니 승보입니다.

▷깨달은 이여, 세상에 나가 법을 전하라

부처님 다섯 제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장자의 아들 야사가 귀의합니다. 야사가 부처님에게 귀의하자 야사를 찾으러 왔던 아버지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최초로 재가신자가 됩니다. 우파사카라는 말인데 보통 우바새라고 합니다. 우파사카는 '가까이에서 후원하는 자'라는 뜻 입니다.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을 집으로 초청, 공양을 올린 뒤 설법을 듣습니다. 그때 야사의 어머니가 또 부처님의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신도, 우바이가 됩니다. 이제 부처님도 계시고 비구, 우바새, 우바이도 있게 됩니다. 비구니는 훗날 형성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야사의 친구 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도 또 출가를 하여 열 명의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야사의 친구 오십 명이 찾아옵니다. 오십 명이 찾아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다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육십 명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육십 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리고 그 육십 명을 향해 부처님이 불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역사적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전도 선언입니다.

전도의 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갈 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설하라. 원만무결하게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질 것이나 법을 들음으로써 성숙해 질 것이다. 비구들아, 나도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에 가서 설법하리라."



11월 22일, '녹원전법상'을 주제로 법문한 성열 스님은 "불자라면 꼭 계를 받고 정통의 불법을 배워 그것을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 함께 절에 나오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부처님까지 육십한 명이 흩어져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육십 명이 다 자기가 인연 있는 지역으로 흩어져 가고 부처님은 또 혼자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각기 인연 있는 곳에서 법을 설할 때 우리에게 귀의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지에서 귀의시켜라. 귀의시킬 때는 가죽신을 신었으면 가죽신을 벗기고 무릎을 꿇리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을 세 번 따라 하게 하고, 다음에 다섯 가지 계를 받도록 하라."

이러한 전법을 통해서 불교는 새로운 인도사회의 사회운동, 정신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80평생 중에서 29살에 출가하고, 6년간 수행해서 35살에 성불하여 부처가 됩니다. 만 8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45년간이 오로지 전법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전법을 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평생 노구를 이끌고 설법의 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교도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사명은 바로 전법입니다. 대승불교에서도 보살의 이상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인데, 하화중생(下化衆生)이 법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전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의 법을 전하는 길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통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어야지, 방편이란 이름으로 비불교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하면 곤란합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깨끗한 천은 물들이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잘못 물들여진 천을 물들이는 것은 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천리길을 가려면 첫 발을 잘 디뎌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천리 뒤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이야기 하더라도 그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의 원 정신이 아니면 그것은 부처님을 빙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법을 하는 사람은 한가지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님을 만나 "저는 이러 이런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이 "그래 그것이 내 말이다" 하시면 설법을 한 것이고, "너는 사람들은 만났지만 내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판 것입니다.

부처님 재세당시 몸이 불편하셔서 사리불이나 다른 제자들이 설법을 대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마지막 확인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다가 사리불이 설한 다음에 부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리불의 설법은 내가 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뭐가 정법이겠습니까. 우리 불교도들이 정법을 위해 꼭 새겨들어야 할 것은 경전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사들은 경(經)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지름길이라는 경자로 해석했어요. 또 경을 거울 경(鏡)자를 써서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경전은 부처님 말씀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지름길이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옷매무새를 바로잡듯이 경전을 봄으로써 자기 마음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통의 불교를 해야 합니다.

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바른 스승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고 하는데 나도 못 건지면서 누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허구적인 이야기 말고 원력을 세우세요. 살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법하려는 원력을 세우세요. 금년에 안되면 내년, 내년 안되면 후년, 후년 안되면 그다음 해라도 하겠다고 마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전법은 불자들의 마지막 사명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삼업을 청정히 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본받아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부처님을 본받아서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 생각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본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보고 '부처의 씨앗이, 예비 부처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노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입으로 막나갈 욕도 부처 씨앗이라는 생각에 참아지고, 말로 막 나가는 것을 삼가하면 구업이 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 단주를 쓱 한번 만지면 한 템포 늦춰집니다. 그게 자기 변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자는 꼭 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계는 안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자라고 해요. 계도 받지 않으면서 절에 가서 참회한다고 합니다. 부처님 앞에 불자로서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살을 태우는 아픔을 통해서 연비하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일생을 보며 불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통의 불법을 배우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이웃과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부처님 도량에 같이 나갈 수 있었을 때 여러분은 원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믿고 따르는 불자로서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경암 스님 송년 법회

송구 영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생의 번뇌를 어떻게 소멸하는가? 란 주제로 미국 워싱톤 보림사 주지 김 경암스님께서 송년 설법이 있사오니,
모두 동참하셔서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나날이 좋은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낮 12시 ~ 3시
◆ 장 소 : 한국일보 송현클럽 12층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미국 워싱톤 보림사 한국 분원, 아란야 국제 불교 총림, 워싱톤 평화 대학 설립 추진 위원회
◆ 연 락 : 02)913-6311, 913-9312, 017-709-5525, 010-2410-7652

漢자 漢자 속에 담긴 뜻 음미

현대불교연구원, 한문 경전 강독 모임 연다

"한글로 풀어놓은 경전도 어려운데 한문 원본 경전을 어떻게 읽어?"

한문 경전에 대한 얘기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며 지레 겁을 먹고 물러앉은 것이 일반적인 불자들의 모습이다. 불경원전에 대한 두려움과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15년 동안 불경을 읽고 번역 연구해온 불교전공자들이 모여 개원한 현대불교연구원(원장 김용환)이 '불교경전 강독 모임'을 개설한 이유도 '한문본 불경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12월 1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독 모임은 그동안 불교 경전에 대한 공부가 유명 법사의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전달돼 왔던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자고 제안한다. 소규모 공부 모임으로 진행될 강독 모임은 스스로 불경 한문본을 읽고 뜻을 새기고 음미함으로써 경전 읽기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개설됐다. 한글로 풀어놓은 경전을 술술 읽어 내려갈 때와는 다르게 한자 한자 속에 담긴 뜻을 새기다보면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1일부터 '유행경' 원전 공부
한역 · 팔리본 비교로 깊이 더해
매주 금요일 주 · 야간 나눠 강의

이번 공부 모임에서 강독할 경전은 한역 <장아함경> 중 '유행경(遊行經)' 상, 하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전 마지막 여행길에 올라 쿠시나가라에서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내용의 경전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하게 교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경전으로 한문의 기초가 없어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에 '유행경'을 택했다.

또한 이 내용과 대응되는 팔리본 남전 대반열반경을 비교, 대조하면서 함께 읽는다. 이는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한역권과 팔리어권에서 달리 표현되고 있음을 살펴 경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이번 강독은 부산대불전강독회에서 오랫동안 불경 강독과 번역에 참여해왔던 김준호 현대불교연구원 상임연구원이 진행 책임을 맡아 불교 한문의 기초를 다지고 원전의 문맥을 따라 가며 불교의 교의, 사상을 스스로 새기며 뜻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강의는 현대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열리며 매주 금요일 낮 2~4시, 밤 7~9시 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준호 상임연구원은 "누군가 풀어놓은 한글 경전을 읽을 때와는 달리, 스스로 뜻을 새기며 불경의 가르침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독 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불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6-9663-297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53선지식 3년간 사자후

부산 여여선원 화엄산림 천일기도 법회 시작

부산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은 11월 23일부터 2009년 6월 25일까지 3년 동안 이어지는 화엄산림 천일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여여선원은 삼랑진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여여정사가 15년간의 불사가 원만회향됨을 기념하는 한편 범종 조성 및 종각 건립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3년간 53선지식을 초청하는 화엄산림 기도 법회를 부산불교회관 8층 법당에서 봉행하게 됐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입재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을 법사로 봉행됐으며 향후 3년 동안 매월 한차례씩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설하는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범어사 율원장 지오스님(12월 22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2007년 1월 20일),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2월 20일),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3월 21일), 불국사 강주 덕민 스님(4월 19일), 동화사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5월 19일), 미륵암 주지 백운 스님(6월 16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7월 16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8월 14일), 부산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9월 13일) 등이 화엄산림 천일기도 기간 중 법문한다. (051)853-5486

천미희 기자

명칭 바꾸고 조직적 대응

'어게인 1907 부산' 대책위 '불교수호위원회'로

내년 1월 구불(求佛)대법회



'어게인 1907 부산'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여)는 11월 19일 여여선원에서 부산 불교계 전체 확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어게인 1907 부산' 불교말살 청년부흥회와 관련해 지난 10월 12일 조직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타종교의 교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명칭을 '불교수호위원회'로 개명하고 조직 재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불교수호위원회는 또 내년 1월 KBS 부산홀에서 부산불교도의 단결력을 하나로 모으는 구불(求佛)대법회 개최를 결의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정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11월 18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전국청년불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전국 청년불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어게인 1907 부산 청년불교대책본부(본부장 손정현)'를 결성했다. 향후 대한불교청년회는 '어게인 1907 부산'에 대한 대응을 전국사업으로 채택,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를 사용한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명박 전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이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참여운동으로 전개해 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은아 기자

감로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1월 21일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기도회관에서 감로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감로사 회주 법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러분은 매일매일 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 가고 있다"며 "보살계를 수하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지은 업을 녹이고 바른 몸가짐을 갖도록 정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보살계를 설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법을 받고 지키는 것은 무한한 공덕을 지니는 것"이라며 "보살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처님의 바른 제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몸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사회복지 포기는 중생구제 포기"

울산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보각 스님 특강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화사(주지 덕륜) 호계불교대학은 11월 22일, 29일 양일간 중앙승가대학 교수 보각 스님을 초청, '불교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사진).

연화사 주지 덕륜 스님의 집전으로 참회와 발원을 '법회 염송'에 이어 진행된 이날 강의는 호계불교대학 수강생을 비롯 불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보각 스님은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살행의 실천이 곧 사회복지이므로 불교계가 사회복지사업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를 외면하면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중생이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 걸맞게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말했다.

보각 스님은 "배가 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보살행의 실천이며 그것이 곧 복지이니 모든 불자들이 내 가까운 이들의 아픔과 고통부터 살피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불국토 상락정' 다도체험 행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락정(원장 정관)은 11월 16일 상락정 생활관에서 부산여대 차문화복지과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다도체험 행사를 가졌다.

다도시연, 전통문화체험, 다도체험 등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부산여대 차문화복지과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차를 매개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사진 가운데)과 직원일동이 부산 진시장에서 탁발순례를 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난치병 없는 부산…' 탁발순례 첫걸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1월 23일 부산역에서 '난치병 없는 부산 만들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 탁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치료비의 부담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며 "생명나눔으로 난치병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향후 난치병 없는 부산 만들기를 위해 '희귀난치병 환우 치료비, 수술비 마련을 위한 탁발대장정' '100원 희망 저금통 나누기'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海印寺 高麗刻板「사간판 인경본」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께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왔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사간판 인경본」10질 한정 보급!!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칠경



대문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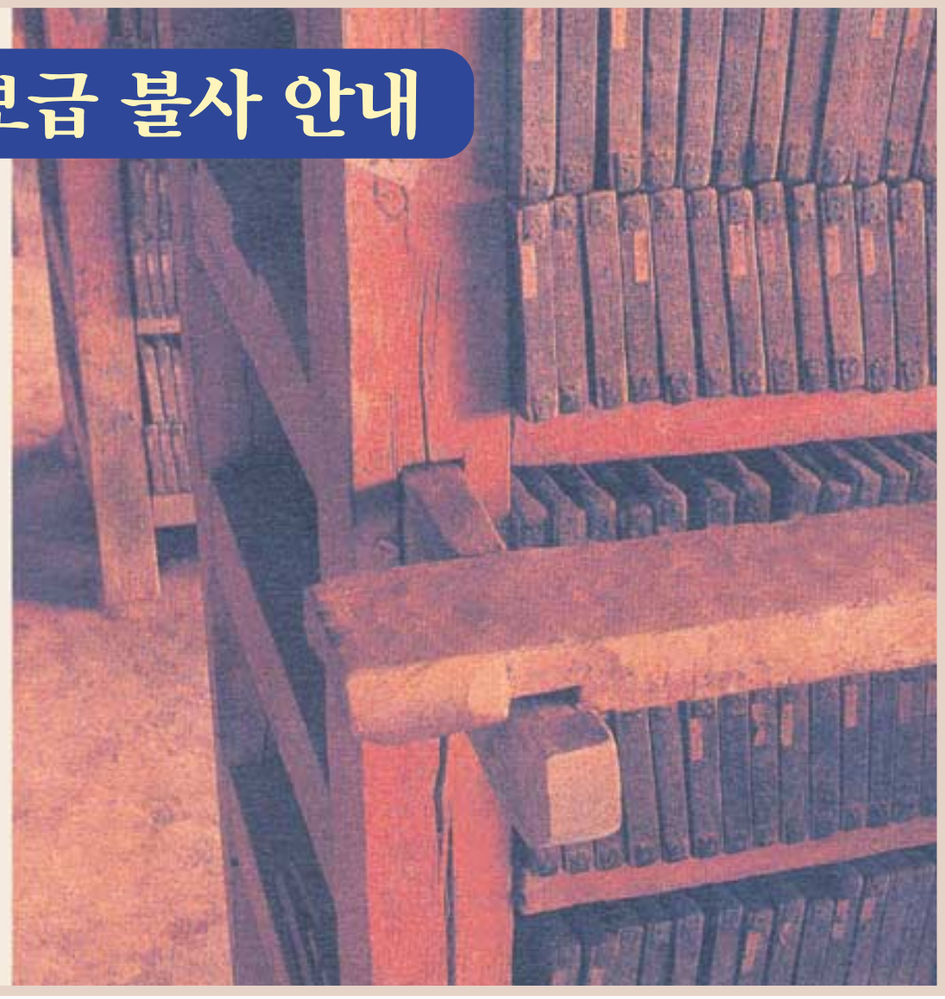


인천보감

경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 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 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고봉화상 선요	1권	50만원		大文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인 천 보 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 왕 생 칠 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100만원	1권 보물 734-3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작은 절 큰 봉사 "감동~"

대구 청룡사 보성 스님과 신도들 매주 무료 급식



대구 청룡사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5년째 매주 토요일 아침 대구역 광장에서 150여명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총 신도 백여명 남짓, 초하루 법회 참석 신도 20~30여명이 고작인 대구의 작은 사찰 청룡사. 그러나 이 절의 자비원력은 무한히 크다. 청룡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 대구역 광장에서 150여명의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웬만한 도심 속 큰사찰도 매주 무료급식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 청룡사 주지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2002년부터 5년째 대구역 무료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11월 18일 새벽에도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해 정확한 시간에 대구역 광장에 나타났다.

메뉴는 배춧국과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와 장아찌 반찬이다. 오전 7시, 배식시간에 맞춰 길게 줄을 선 노숙자들에게 배식하는 불자들의 얼굴엔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하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한마디 인사가 빠지지 않는다.

어려운 사찰재정 불구 5년간 자비의 공양 실천

"사람은 배고파도 죽지만 정에 그리워도 못사는 법, 노숙자들에게 먼저 웃고 인사하라"는 보성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월 37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이웃 어르신들을 지켜보다가 매월 5만원씩의 생활비를 보조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숙자 무료급식을 시작하는 데는 망설임이 많았다. 사찰재정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보성 스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어느 노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됐다. 숟가락이 10개면 10개만 가져가고 한 줌의 쌀밖에 없으면 그만큼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그러나 시작부터 우여곡절은 많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35인분 밥솥 2개를 얻고, 절에 있던 쌀을 털어 100인분의 밥을 지어 무료급식을 나가던 날부터 스님과 신도들은 일주일 내내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또, 가정용 가스 불에 100인용 국솥을 올려놓다 보니 밤새 국이 끓지 않아 새벽에 작은 솥에 나눠 끓이는 소동까지 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쌀이 없어 굶은 적은 없다.

첫 급식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5년의 세월동안 토요무료급식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노숙자는 6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늘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어르신 70여명에게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룡사는 첫 무료급식에 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림을 꾸린다. 예나 지금이나 절에는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 급식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젠 뒷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쌀이 없으면 어떻게든 쌀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원력이라고 믿는 이들의 신심은 그 어느 불자보다 크고 높았다.

보성 스님은 "6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데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못할 때는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053)656-5266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18년만에 씨앗 터졌네

포항교사불자회 문집 '씨앗' 발간

포항교사불자회(회장 김숙자)가 창립 18년 만에 문집 <씨앗>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미래의 비상을 위해 건장한 청년이 된 포항교사불자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발간한 <씨앗>은 총 286페이지 분량으로 모두 500부가 제작되어 전국교사불자회원들과 신행단체 등에 배부됐다. 포항교사불자회원들의 신심과 정진, 신행활동 등 그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조용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숙자(경주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회장은 "초창기 회원들의 소중한 신행활동 이야기들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올려놓았던 회원들의 신행담을 기초로 문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 보광원, 만해 선사 시비 건립



대구 수성구 보광원 조실 화산 스님이 젊은 시절 만해 스님을 모셨던 그리움을 담아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문학 혼을 기리는 시비를 보광원 경내에 건립하고 11월 23일 제막식을 거행했다.

시비에는 만해 스님이 남긴 시집 <님의 침묵> 가운데 '나는 잊고저'의 전문이 서예가 송낙준 선생의 글씨로 새겨졌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김형렬 수성구청장, 광복회대구경북지부 권준호 지부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제막식에서 화산스님은 만해 스님을 추모하며 직접 지은 시 '님의 철학'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권대자

대구경북포교사단 명예단장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던 부부가 있었다. 소박한 삶을 꾸리며 오직 자식을 원했던 아버지(당시 50세)와 어머니(당시 47세) 무남독녀 외딸로 태어난 권대자 대구경북포교사단 명예단장.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 지어져서일까? 어릴 때부터 절이 좋았고, 젊은 시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자지송>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늘 가방에는 250원짜리 <불자지송>과 300원짜리 합장주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를 선물했다. 그저 내가 보고 기뻤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 인연이 대구지역불교계의 큰 어른이며 큰 보살로 통하는 권 단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뭐든 함께 나누려는 천성이 포교사란 이름도 있기 전부터 포교사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평생 포교사로서 군부대와 교도소 포교와 교화에 매진하고,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또, 불교사회복지회 이사, 한몽불교교류협회 이사,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서 소리 없는 발취를 남기며 재가불자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불사 소중함 알기에 대출 받아가며 화주 나서 군부대 · 교도소 포교 매진 … 환경운동도 앞장

어려운 시절 19세에 결혼해 38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일찍이 두 딸의 어머니, 한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짊어지며 살아야 했던 권 단장에겐 아침도 굶고 찾아간 산사의 큰 스님들이 밝혀 준 소중한 말씀들이 큰 양식이었다. 경봉, 탄허 스님께 큰 법을 받았다. 석굴암에서는 월산 스님을 뵙고, 송광사 구산 스님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불법을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부처님 제자가 되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원력을 세웠을 뿐"이라고 권 단장은 회고했다.

1985년 권 단장 봉선사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교육에 참가하면서 정식 포교사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이 때 비로소 포교가 뭔지 알게 됐다는 권 단장은 <불자지송>과 합장주를 나눠 준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한 도량건립에 나섰다. 대구 불로동에 '평화통일 기원정사'를 건립한 것이다. 동화사 신도였던 故최점희 보살의 도움으로 땅을 얻고 10평 남짓한 팔각정 법당을 마련했을 뿐인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후 권 단장은 불사하는 곳이 있으면 선뜻 화주로 나선다. 불사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에 급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동참한다. 그리고 청송교도소 화원교도소, 해군 수계법회, 육군 장교부대 등 교도소와 군부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포교와 교화에 힘썼다.

1993년 권 단장은 생활 속 환경운동을 펼치며 포교의 전환기를 맞았다. 성타 스님을 이사장으로 하는 (사)대자연환경보전협회를 창립한 것. 권 단장은 이사로 활동하면서 '샛강 살리기', '우유팩 수거 및 재생화장지 이용', '무공해비누사용하기' 등의 운동을 펼쳤는데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포교였다.

권 단장의 환경운동은 1996년 환경노래 보급협회 (회장 김양희) 창립회원이며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환경홍보사절단으로 봉사와 음성공양을 하는 비둘기합창단을 창단해 단장으로 활동했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담은 '세상은 자연', '풀꽃사랑' 등의 시집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래가사 374곡을 환경부에 기증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권 단장은 "불교가 더 이상 불교라는 테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北 어린이들에 따뜻한 겨울을

대구 정토회, 내복 보내기 나눔장터 열어



11월 21일, 대구 정토회관에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내복을 보내기 위해 특별바자회 '생명축제 수자타 나눔장터(사진)'가 열렸다.

법륜 스님과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50원이 없어 하루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으로 이어졌고, 12명의 룸비니유치원 어린이들의 색 내복패션쇼가 펼쳐져 웃음꽃을 피웠다.

정토회는 12월 1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열리는 목요시장에서 한 번 더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안마

대광맹인회, 원폭피해노인들에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가 11월 22일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안마봉사활동에 나섰다(사진).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나누며 살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

이날 봉사활동에는 25명의 대광맹인불자회원과 대광맹인불자회 자원봉사단인 연꽃봉사단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고, 맹인불자들의 안마봉사활동 후에는 다과회를 겸한 장기자랑시간이 펼쳐졌다.

전문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 맹인불자들이 능숙한 솜씨로 어르신들의 불편한 곳을 어루만지자 어르신들의 얼굴엔 이내 화색이 돌았다. 이재달 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www.burec.org
『내가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제38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법사님, 스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불기2550(2006)년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0분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교육내용 : 1) 흥겨운 몸풀기 (싱어롱)
2) 어린이 명상
3) 신 찬불가와 율동
4) 내가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풍선으로 법당 장엄하기
●종이로 만드는 놀이감
●신나는 겨울놀이
■ 참 가 비 : 35,000원 (도서벽지 및 군종은 참가비의 50%)
■ 접 수 : 전화접수 및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www.burec.org) 후 온라인 입금
국민 006-01-0801-770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 의 :02-738-7860 / Fax : 02-738-7863(본회 사무국)

◈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법사,교사) 모임 ◈
1)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2)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회비(無), 법회자료집 및 저녁공양 제공
※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지도자 모임 발대식 봉행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함경(장아함 · 중아함 · 증일아함 · 잡아함)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빨리어로 된 5부 니까야 (디카니까야 · 맛지마니까야 · 쌍윳따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쿳다카니까야)가 진정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갖고저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06년 12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 법 사 : 전재성, 이미령 교수
• 교 재 : 5부 니까야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 비 : 동참회비 월 5만원 (교재제공)
• 특 전 : 청년회원은 월 3만원
• 문 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세상 외면하는 불교는 골동품”

원각사, 청정운동법회 … 강건기 교수 강연



청정운동 광주법회가 11월 21일 원각사에서 열렸다. 원각사 산하 신행단체와 광주전남포교사단이 청정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혔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기치로 전국에서 일고 있는 ‘2006 청정운동’이 빛고을 광주에서도 시작됐다.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본부(위원장 송석구)는 11월 21일 광주 원각사 대웅전에서 ‘청정운동 광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초청법사로 나선 前 전북대 강건기 교수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강연을 통해 “죽어가는 세상을 외면하는 불교는 골동품에 불과하다”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인간과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칭찬, 참회하는 청정운동 지침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도 “마음이 청정하면 몸과 이웃이 청정하고 세계가 청정해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제 스님은 “초사흘법회를 청정운동 법회로 전환하고 매달 신행수첩을 점검하자”고 제안하고 “6개월마다 실천행이 모범인 불자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원각사 초사흘 법회 상락행 회장은 청정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청정운동에 각 신행단체가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청정운동에는 원각사 산하 신행단체와 광주전남 포교사단 등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준엽 기자

“불교의식 대중 곁에 더 가까이”

전통불교영산회, 법인 설립



예향 광주를 중심으로 불교의식 맥을 잇고 있는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 이하 영산회)가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대중에게 불교의식을 선보인다.

지난 9월 사단법인을 설립한 영산회는 12월 11일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전통불교영산회 창립 13주년 기념공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에는 영산회원 40여명이 복청계, 천수바라, 다계작법 등 영산작법을 시연한다.

또한 이날 공연에는 영산회 법인설립을 축하해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영산회장 혜령 스님은 “불교의식으로 불법을 구현하고 널리 전하고자 출가 수행자들이 모여 정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불자뿐 아니라 시민이 쉽게 전통불교의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정기공연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회는 1993년 창립이후 불교의식 정기교육과 각종 행사에서 범패 및 작법을 시연하고 있다.

특히 매년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추모법회 위령재 및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사진). 전통불교영산회:(062)263-0580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제주 법화사, 자비도량참법 정진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동안거를 맞아 12월 5일부터 90일간 ‘자비도량참법 참회정진’을 봉행한다.

법화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이법 정진법회는 새벽, 사시, 저녁예불과 함께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진행된다.

주지 시몽 스님은 “자비도량참법은 천불천탑을 조성한 양무제가 구렁이몸을 받은 부인 치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한 참회기도이다”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참회정진에 많은 동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진은 지난 하안거부터 법화사에서 자비도량참법 정진을 하고 있는 원진 스님이 지도한다. (064)738-5225

이준엽 기자

화엄사 스님-구례 농민 축구대회



11월 11일 지역농민과 노동자, 스님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구례 농민회, 기아자동차 노조, 국립공원 관리공단 임직원과 함께 구례읍 문척 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갖고 친선을 도모했다.

이날 축구시합에서 강한 체력을 자랑한 구례 농민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엽 기자

충북불교대 현각 스님 초청특강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은 11월 29일 오후 7시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을 초청, ‘참나를 찾는 공부’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현각 스님은 1991년 숭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래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힘쓰는 푸른 눈의 납자이다. 이 특강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개방된다. (043)263-2329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백양사 신임주지 성오 스님 진산식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주지 성오 스님 취임법회가 11월 20일 대웅전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유나 지선 스님과 전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 등 본말사 스님과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성오 스님은 “포교에 역점을 두어 다시 찾는 백양사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며 “방장스님을 중심으로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산중화합으로 공개살림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증심사, 신도오계 수계법회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는 11월 23일 신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증심사가 진행하는 신도기본교육 5기, 6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수계식에는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수계에 앞서 계사 지현 스님(송광사 율원장)은 법어에서 “새로받는 불명이 빛날 때까지 열심히 수행, 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 본부장 취임



제4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으로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이 취임했다(사진). 11월 17일 광주 신양파크 연회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광주불교 사암연 회장 지각 스님과 사회단체 관계자, 이사,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본부장 현지 스님은 “나눔과 실천을 함께하는 단체로 향후 1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함평- 고막대사와 떡다리

서산대사가 포교를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대가사 <회심곡>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깊은 물에 다리놓아 월천공덕(越川功德) 하였는가 / 목마른 이 물을 주어 급수공덕(汲水功德) 하였는가 /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공덕(活人功德) 하였는가~”

이렇듯 산길을 가다 만나는 우물이나, 냇가를 가로질러 놓여진 돌다리의 대부분은 더불어 살고자했던 불자들의 원력이 담겨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조연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다리인 고막석교(보물 1372호 · 사진)도 그러하다.



730년 이어온 장수다리
고막대사 신통력으로 ‘뚝딱’
지었다해서 ‘떡다리’로 불려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천에 놓여진 이 다리는 고려 원종 14년(1273) 무안 법천사에 주석하던 고막대사(古幕大師)가 세웠다고 한다. 총길이 20m, 너비 3.5m, 높이 2.5m로 5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우물마루형식으로 덩벙덤벙 투박하게 놓았지만 무려 730여년을 이어온 장수다리이다.

세찬 물살 속에서도 오늘까지 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데는 고막석교만의 특별함이 있다.

2001년 보수공사 당시 국내에서 기초가 가장 실팍한 다리로 밝혀졌다. 지반보강을 위해 나무말뚝을 촘촘히 박고, 그 위에 돌을 일정한 두께로 절묘하게 깔아 급류에 쓸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기둥과 상판축조를 목조가구의 결구법을 응용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 지도록 했다.

이러한 기법은 현대과학이 밝힌 고막석교 축조법이지만, 지역민이 전하는 숨겨진 비법은 ‘고막대사의 도술’이다. 고막대사가 신통력으로 ‘뚝딱’ 지었다고 하여 ‘똑다리’ 혹은 ‘떡다리’로 불리고 있다.

물론 현대과학이나 지역민이 전하는 이야기도 틀린 바는 아니겠지만 ‘중생들을 피안의 세계로 건네고자 하는 고막대사의 원력’을 느껴야 고막석교의 진실은 풀린다.

고막대사가 어느 겨울 냇가를 건너게 되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랫도리를 걷거나 벗어들고 물 속을 건너는 것을 보고 원을 세웠다. 저 언덕으로 하루빨리 건너가기를 기원하며 하룻만에 다리를 세웠던 것이다. 바로 고막석교이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쌀 100섬을 실은 배가 영상강을 따라 고막석교까지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 때에도 상판에서 쌀이 한 톨도 빠지지 않는 정교한 다리였다. 아쉽게도 일제 때 보수공사를 한 후 다리가 삐걱거리고 툭하면 보수한다며 사람들의 손을 타야했다.

고막석교에 큰 배가 들어오면 장이 서곤 했다. 함평천지 넓은 들에서 나온 곡물로 떡을 해 나주와 영산포로 팔러가기도 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점심 후에는 뜨뜻하게 달궈진 돌다리 위에 누워 낮잠을 청하곤 했다. 저녁이면 물살이 세어 모기가 없는 다리가 사랑방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막석교의 여유와 운치는 사라지고 아래에 있는 나주-목포간 국도 1호선이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고막석교 옆 언덕에 세워진 고막석교 유적비만이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사)대한불교 해동종 임원공고

원로원 원장 석봉 대종사(평택 청용사)
원로원 부원장 백담(사천 백용사)
원 로 위 원 법준(광명 월성사) 정화(밀양 용광사)
법성(화성 화엄사) 승전(안성 상원사) 원심(안성 통일사)

종 정 혜봉 대종사(밀양 용정사) 사서실장 도 은(밀양 연령사)
총무원장 송산(용인 대원사) 부 원 장 도현(부산 관음사)
총 무 부 장 덕광(양주 봉덕사) 교 무 부 장 무연(창녕 법령사)
재 무 부 장 도은(밀양 연령사) 사 회 부 장 수월(용인 대원사)

중앙종회의장 보장(화성 장안사) 부 의 장 수운(창원 소원사)
중앙종회위원 지선(밀양 천수정사) 연각(양평 수도암) 백파(용인 동서양사)
이타(포항 학산사) 수진(대구 지장암) 법운(칠곡 도솔원) 송연(진해 보원사)

중앙사정원원장 대원(고성 극락사) 중앙포교원원장 정화(밀양 용광사)
부 원 장 옥용(화순 벽송사) 부 원 장 보단(상주 상주사)
사 정 부 장 혜암(남해 송림사) 포 교 원 장 진아(수원 광명사)

중앙교육원원장 공덕(대구 국제교화 해동대학원장)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서울 각원사)
부 원 장 현법(하동 청학사) 부 원 장 무봉(용인 무법정사)
교 육 부 장 성암(마산 무우정사) 복지봉사부장 지연(창원 법화사)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부산 삼자선원)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용인 화엄정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봉(군위 지장선원)
대구교구종무원장 대원(대구 약불사)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밀양 약왕사)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청림(영광 삼각사)
울산교구종무원장 송암(울산 보현사)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진해 승원사)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무기(부여 봉선사)

●주소 : 경기 용인시 성복동 상구 2-5호 대원사 ●전화 : 031)262-1577, 263-1353

한 국 보 리 법 문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며, 수행자는 법열(法悅)을 먹고 삽니다. 실제 수행 중에 법열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실증실수(實證實修)’ 수련법과의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수행을 통해 불법을 체득하고,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께 티베트 불교 최신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처음 열린 수행반에 참가하신 분들은 커다란 감동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을 직접 뵙는 듯한 체험을 하거나, 그동안의 모든 방황을 쉬게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불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들의 필요에 따라 생긴 것입니다. 이미 이런저런 수행을 해봐도 소식이 없는 분들이나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분들은 실제 효과가 있는 바른 수행법과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실증실수(實證實修)’ 티베트 밀교 최신 수행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열렸습니다. 보리법문의 수행법은 현대인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활불(活佛)의 가피력 있는 이끄는 말씀(加被, Voice)과 현대인의 특성인 이미지 능력(禪觀, Visualization) 그리고 다이나믹한 손동작(手印, Mudra)을 통해 선정(禪定)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효과도 매우 빠릅니다.

보리법문의 다이나믹 명상은 우리의 몸이 빠른 속도로 광명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광명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병이 치료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수행법입니다.

한국에 오신 티베트 불교 법사님들께서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하여 ‘수행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불법의 요체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 번 발심으로 억겁의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설 명 회 : 2006년 12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장 소 : 서울 방배동 한국보리법문 법당 (지하철 7호선 내방역 1번 출구, 브라운스톤 상가 2층)
◆문의전화 : 02)3471-9183 / 02)586-6176

태고종 선암사 정상화 '눈앞'

중립적 입장 재적승들 수습대책위 구성

'새주지 선출 방법' 등 합의 … 총무원 환영

주지 선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선암사 문제에 중립적 입장의 재적승들이 주도적으로 수습에 나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암사 재적승들은 11월 18일 광주 학림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선암사 사태의 원만 해결을 위해 '태고총림 선암사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습대책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 현직 주지 및 그 측근 등 이번 사태의 적극 가담자는 일체 배제하고, 승납 15년 이상의 중진급 재적승으로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재적승들은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법천 스님을, 부위원장에 남파 · 현호 스님 등 총 15명의 수습대책위원을 선임했다.

수습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결과 △전 현직 주지 및 이들이 임명한 소임자 등 양측의 선암사 사태 적극 가담자를 선암사에서 퇴출시킨다 △임시관리위원장 설봉 스님을 주축으로 선암사를 한시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전산대회(재적승 총회)를 개최해 후임 주지를 선출한다 △태고총림 선암사법 개정 방향 및 선암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연구해 총무원에 건의한다 등을 골자로한 정상화 대책 마련에 진력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습대책위원회는 특히 12월 중으로 열릴 전산대회는 전통 산중법에 의거, 선암사 재적기간이 만 5년 이상된 승려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이번 사태에 관련돼거나 정적 이상의 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되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선암사 주지 선출과 관련, 종정스님을 잘 받들고 대중의 화합을 도모하며, 선암사를 총림으로서 손색없이 운영해 갈 수 있는 스님을 선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부장 월해 스님은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했듯이 선암사 재적승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할 뜻은 추호도 없다"며 "선암사 문제를 재적승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사태 수습에 앞장 서는 데 대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선암사법 개정과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되는 재적승들의 건의사항은 정기 중앙종회에서 총림법을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무원측은 사태 책임자의 징계문제, 민형사간 소송 문제, 정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전산대회에서 사면을 결의하는 문제 등은 수습대책위가 결의하거나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완전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선암사는 전현직 주지들이 대화를 통해 선암사 정상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0월 23일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이런와중에 11월 3일, 前주지(금용)측 스님과 신도들은 10월 8일 이후 25일간 종무소를 차지하고 있던 현 주지(승조) 측 스님들을 몰아내고 종무소를 차지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총지종 부산 덕화사 헌공불사

경남지역 진언밀법홍포 거점역할 담당



총지종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는 11월 23일 덕화사 서원당에서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했다(사진).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해 우승 통리원장 등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헌공불사는 본존제막, 육법공양, 대비로자나불전 호념, 헌화 및 훈향정공, 경과보고, 헌공사, 종령법어, 감사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원정 종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종단은 제2 중흥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은 이곳 덕화사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 대비원을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헌공불사를 가진 덕화사는 대지 296평, 연건평 343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불교전통건축양식에 총지종 고유의 아자관과 만다라, 외부단청 등으로 장엄돼 사원 건축의 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초에 공사를 시작해, 이날 헌공불사를 가진 덕화사는 부산은 물론 경남지역까지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남지역 진언밀법홍포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김장보시 · 바자회로 이웃 도와요"

천태종 천화사 삼운사 명장사 정광사

천태종 사찰들이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부천 천화사(주지 월산),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는 어려운 형편으로 김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또 울산 정광사(주지 문덕)는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천화사는 11월 18일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천화사는 2,500여 포기로 김치 800여 상자를 담아 부천시 관내 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삼운사도 11월 22일 배추 1,200포기로 저소득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자비의 이웃돕기 김장' 행사를 가졌다. 또 명장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3,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3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가족 등에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정광사는 11월 3일 경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고, 재활용 의류, 농수산품, 공산품, 각종 먹거리 등을 전시 판매했다. 이날 수익금 전부는 울산시내 3개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불우이웃 100여 가구에 생필품으로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총금강회 회장 이상귀씨 연임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제 8대 회장에 현 회장인 이상귀씨(사진)가 재선출됐으며, 감사에는 배정남씨와 이정길씨가 각각 선임됐다.

11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밀각심인당과 탑주심인당에서 열린 총금강회 대의원 총회 및 워크숍에서 총금강회는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교도 배가운동'과 '밀교교리법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군법당 세우고 법회지원까지

불광사 송파 6구 법회, '호국 우리절' 지원



불광사 송파 6구 법회 회원들은 11월 19일 호국 우리절에서 부대 안녕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군법당 창건은 물론 지속적인 법회 후원을 하는 단체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불광사 송파 6구 법회(팀장 묘원 보살) 회원들.

1999년 보병 제1사단 15연대 1대대 불자들이 비가 새는 막사를 개조해 법회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중과 협의해 법당건립 모연을 시작했다. 이 불사는 정묘심 보살의 남편인 육군 학사장교 1기 출신의 박해욱 거사가 맡아 원만히 회향하게 됐고 절 이름은 광덕 스님이 직접 '호국 우리절'이라고 지었다.

법당 건립 이후에도 불광사 송파 6구 법회 회원들은 매월 1~2회 정도 법회지원을 했고 지금도 이종하 포교사를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법회날에는 떡볶이, 칼국수 등의 지원과 L.M.B 싱어즈가 직접 찬불가를 지도하고 있어 장병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그동안 법당에 난방시설이 없어 추운 겨울에 법회 보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시로 난방 공사를 끝내 장병들이 추운 겨울에도 편안히 법회를 볼수 있도록 했다.

11월 19일에는 병사 생활관 준공에 맞춰 부대 안녕을 기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비룡사 주지 무안 스님, 법기 1사단 호국 전진사 주지법사를 비롯해 김성진 부대장 등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위령제에서는 서울 대성사 도문스님이 보시한 찬불가 노래방 기기와 송파 6구 법회 회원들이 준비한 불광출판사 불서 다수, 피아노, 공양 그릇 등 식기가 위문품으로 전달됐다.

매월 마지막주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종하 포교사는 "군법당은 건립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후원과 법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식 기자**

김태영 국군불교총신도회장 1군 사령관 취임



국군불교총신도회 김태영 회장(사진)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해 11월 17일 1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육사 29기로 101 학군단장, 2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5월부터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맡으며 군불교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불자 대상을 수상한 2군 사령관 권영기 장군은 11월 17일 명예 전역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임제록 강좌 안내



강주 無比 큰스님

삼보에 귀의 하옵고
덕망 높은 선지식을 모시고 경전 강좌를 통하여 서로를 탁마하고 경책해가는 불교 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2차 선요, 3차 유식 삼십송에 이어 4차 임제록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 **강 주** : 無比 큰스님 (전교육원장)
- **과 정** : 6개월
- **장 소** : 서울 미타사 內 대승암
- **일 시** : 2007년 1월 26일(매월 4째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수 강 료** : 30만원(교재 제공)
- **수강신청** : 12월30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입금후 전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58701-04-155072 (예금주 : 김영희)
-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 (지장스님) 재무 010-4500-3142 (승지스님)
- **자 격** : - 조계종 비구, 비구니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
  - 사진 1매(반명함)를 꼭 제출바랍니다.

※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알림

▶ 특 강 : 12월15일 부처님 점안 복장의식에 대한 특강이 있음
▶ 불교 경전연구회 주관 함께 공부해온 도반스님들이 고우 큰스님을 모시고 인도 8대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기 간 : 양력 2007년 3월23일~4월2일 (10박11일) - 동참희망자 약간
문 의 : TEL 011-420-7838 (지장)

불 교 경 전 연 구 회 일 동

무비스님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카페 염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신심명, 증도가, 대승찬, 임제록 등의 불교의 중요한 경전과 어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비스님의 명쾌한 강의로 동시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방편을 멀리 벗어나서 불교 최상승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 화 실 대중 합장

※ 다음카페 <염화실>에는 불교공부에 필요한 수많은 강의녹음과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염화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봉금바우 오후 4:10 ~ 4:45



6년여의 복원불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은 금강산 신계사 전경.

통일불국토, 금강산에 열렸네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현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유영선 위원장이 헌향하고 있다.

#극락전 · 나한전 등 전각 11동 낙성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금강산 신계사에 나투신 통일부처님. 한민족, 한핏줄이지만 떨어져 살아 온 지 60여 년, 분열과 갈등의 힘에 의해 소실되었던 신계사를 복원하면서 남과 북 2천만 불자들의 불심 모아 화합과 조국의 평화 통일의 등을 밝히게 하소서."

2006년 11월 19일, 불교의 성지이자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에서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이 열렸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 이번 낙성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유영선 위원장,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을 비롯 남북한 불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됐다.

이번 법회는 극락전, 나한전, 종각 등 11동의 전각을 무사히 낙성한 것을 기념하고 신계사 복원 원력을 통해 남북한 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정토가 하루 속히 오기를 일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아미타불."

경과보고, 나한전 편액 제막 등 본 행사에 앞서 봉행된 '극락전 부처님 이운 봉안식'에서 남북한 불자 500여명은 신계사 극락전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봉안식에 참가했다. 이날 모인 남북한 불자들의 '불심(佛心)'과 '통일염원' 기도 앞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사상과 체제는 다만 '색(色)만 다른 옷을 입은 하나 된 민족'임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다.

고사리 손을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소리내어 외우고 있는 북한 어린이 손민영(9)군. 염주를 목에 걸고 사뭇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김가영(종로구 가회동 · 8)양의 모습. 백발이 성성한 김외분 할머니가 극락전 법당에서 쉴 새 없이 절을 하는 모습. 김일성의 초상과 인민기가 새겨진 배지를 단 복장을 한 조불련 관계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는 모습은 불심으로 하나 된 '통일불국토' 그 자체였다.

지관 스님과 유영선 위원장의 공동 헌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낙성법회 행사가 진행됐다. 지관 스님과 유영선 위원장의 뒤를 이어 월탄, 정무 스님,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북한 문화보존지도국 리의하 부국장 등 남북한 관계자 20여명이 헌화 · 헌향의식에 참가했다.

#2007년 완전 복원 기원하며 회향

봉행사를 통해 지관 스님은 "2004년 대웅보전 낙성에 이어 오늘 이렇게 극락전과 나한전 등을 비롯해 11동의 전각을 복원하고 낙성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남북한 2천만 불자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신계사 복원 불사를 통해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선 위원장도 축사에서 "신계사 복원불사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적 동질성을 여실히 보여 준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날 신계사 복원 남북 공동 낙성식은 나한전 편액 제막 행사를 끝으로 '2007 신계사 완전 복원 남북 공동 낙성식'을 기원하며 회향됐다.

글 · 사진/금강산 신계사=노병철 기자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11월 19일 남북한 불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극락전, 나한전 등 총 11동의 전각이 복원된 신계사는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의 초석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금강산의 일부가 됐다.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일지

▲2000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복원 기원 법회 개최 ▲2002년 4월 신계사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2003년 7월 조계종과 현대아산(주) 간 신계사 복원불사 합의서 체결 ▲2003년 11월 남북 공동 신계사 시 · 발굴 조사 실시 및 대웅전 및 삼층석탑 설계 작업 ▲2004년 4월 신계사 복원 착공식 ▲2004년 8월 삼층석탑 및 만세루 발굴조사 및 대웅전 기초공사 실시 ▲2004년 11월 대웅전 낙성식 개최 ▲2005년 7월 만세루, 산신각, 삼층석탑 복원 ▲2006년 4월 대웅전, 산신각, 만세루 등 단청불사 실시 ▲2006년 11월 극락전, 나한전, 종각, 어실각 등 낙성법회 개최 ▲2007년 삼존불 봉안, 요사채, 일주문 등 복원불사 완료 예정



나한전



축성전



산신각



종각



칠성각

interview

"단청 색감·건축양식 등 남북 공통 매뉴얼 만들어"

신계사 지킴이 **제정** 스님



"2007년 신계사 복원불사가 완료되면 북측과 협의 후 신계사를 '남북 공동 기도 · 수행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사진)은 신계사 복원불사는 물론 금강산의 명찰이었던 장안사, 법기암 등을 포함해 개성에 있는 사찰들까지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내비쳤다.

제정 스님은 200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신계사 도감 소임을 맡으며 목수들과 단청장, 와공들과 함께 하루 10시간씩 불사를 하면서 복원 공정 앞당기기에 매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신계사 복원불사는 대웅전과 극락전, 만세루 등 총 12개동 전각 중 11동을 복원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85%의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중순 마무리될 삼존불 봉안, 요사채 수리, 일주문 건립을 끝으로 신계사 복원불사는 원만히 회향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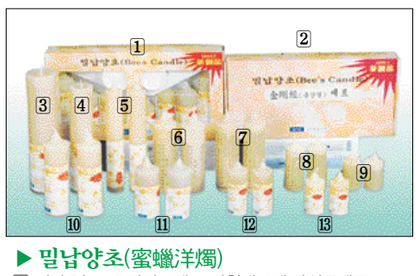
"단청의 색감과 사찰 양식에 대한 남북한의 해석 차이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이 같은 토론과 논쟁은 종교 이전에 남북한의 문화 · 학술적 교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사찰의 건축 양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특색이 다양한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공통의 단청 색감과 건축양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내년 말 '신계사 남북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HC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식물성양초, 약쑥향양초,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5 밀납초돈타레 4.2ϕ × 28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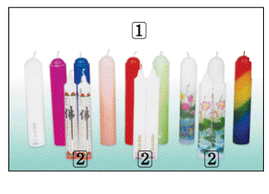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3 돈타레 4.2ϕ × 28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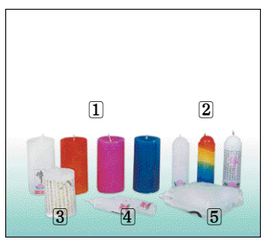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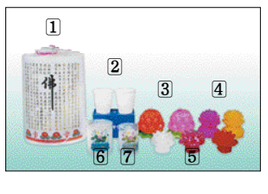
1 7.5ϕ×45Cm 전사지 (호랑이, 용, 반야심경)
2 8.3ϕ×30Cm 쌍용(용이 마주 보고 있음)
3 9.2ϕ×31Cm (전사지)용
4 9.2ϕ×31Cm (전사지)반야심경



1 밀大 4.6ϕ×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적색, 연두,전사지, 연화, 반야심경, 무지개
2 글大3.4ϕ×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연화



1 7.4ϕ×14.5Cm 백색, 적색, 청색, 노랑, 핑크, 연두
2 4.6ϕ×15Cm 백색,무지개, 반야심경
3 7.4ϕ×10Cm 반야심경
4 등초 大 3.1ϕ×12.5Cm
5 등초 大 1.8ϕ×12.5Cm (봉지20개入)



1 심지7개 반야심경, 연화,호랑이, 용
2 종이컵초 2개入
3 연화(大) 적,노,핑,주황
4 연화(中) 적,노,핑,주황
5 연화(小) 적,노,핑,주황
6 바람막이(中)
7 바람막이(小)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희망 심어주는 감로수 되길"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보현회, 낙산사에 지하수 보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총동창회내 봉사모임인 보현회(회장 정인악)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인악 회장(남양사 대표이사)을 비롯해 구자선 (주)태우주택 회장 등 보현회 회원 40여명은 11월 18일, 지난해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각 대부분을 잃은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보현회가 낙산사 대중과 불자, 참배객을 위해 개발한 지하암반수 관정을 기증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낙산사에는 아직도 화마피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법당인 원통보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이 있던 자리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파헤쳐져 있었고 울창했던 숲은 황량한 야산으로 변했다. 옛 명성은 간데없고 화재진압용 소방차량만이 1년7개월 전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형화재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낙산사로서는 보현회의 지하수 기증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크고 작은 도움이 절실한 탓이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보현회가 기증한 지하수 관정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감로수"라고 극찬했다.

낙산사의 지하수 관정 개발은 국내 유명 생수회사인 (주)산수음료 김태룡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보현회 재정담당 부회장인 김대표는 성지순례차 낙산사에 들렀다가 물이 귀하다는 사정을 듣고 지하수를 개발해주자고 보현회에 발의했고, 보현회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김태룡 대표는 산수음료 지하수개발팀을 낙산사로 파견했고, (주)제일지하수개발, (주)미래생활환경연구원, 관동판넬, 양양군상수도사업소가 동참했다.



구자선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장(맨 왼쪽)과 김태룡 산수음료 대표이사(오른쪽)가 낙산사 총무국장 무문 스님에게 관정 기증서를 전달했다.

보타전 앞 설치…수질검사 거쳐 '맛있는 물' 판정
식수 사용시 하루 2만5천명 마실 물 확보
매년 5~6곳 사찰에 무료 개발 계획도

그러나 바다와 인접한 낙산사의 지리적 여건상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하수 개발은 당초 취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높았다.

바다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보타전 앞을 자리로 정하고 3개월여에 걸친 공사 끝에 하루 227명이 사용할 수 있는 318.5드럼의 지하수를 얻는데 성공했다. 생활용수가 아닌 식수로 사용한다면 2만55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수질검사기관인 미래생활환경연구원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류 등의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본 후생성 물연구회에서 설정한 맛있는 물의 각종 요건을 두루 갖췄다고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보현회가 기증한 천연암반수 관정은 시공에서도 생수업체에서 운영하는 생수공장의 지하수 관정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그라우팅처리는 물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자재를 스테인리스로 사용했다.

기증식에서 보현회 회원들은 지하수 관정이 낙산사 대중과 낙산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감로수가 되기를 발원했다. 정인악 회장은 "지식으로 불교를 많이 아는 불자가 되기보다는 대행으로써 세상을 보살피는 보현보살이 되어 중생을 위한 회향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보현회가 사찰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준 사례는 남양주 불암사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전까지 불암사는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수를 모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암사는 보현회의 지하수 개발로 사찰 대중과 신도, 참배객은 물론 등산객에까지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불암사와 낙산사의 지하수 개발을 통해 오래된 사찰일수록 우물이 말라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보현회는 2007년부터 매년 수돗물이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5~6곳의 사찰에 무료로 지하수를 개발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현회는 관정이 필요한 사찰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찰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차례의 관정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김태룡 산수음료 대표는 "탐방객이 많아지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사찰의 수질이 많이 나빠졌는데도 비용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현회는 전 공정을 책임지고 일체의 사찰부담 없이 관정을 개발해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02)2254-1477

글 · 사진/양양=박봉영 기자



낙산사 관정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김태룡 대표가 지하수를 시음하고 있다.

붇다의 경제학 (21)

같을 수 없음의 진리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와중에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정권이 바로 그 대다수 국민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정권이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정책적 실험을 했다는 고백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민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이제 보통의 한국인이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 넣는 부동산 정책
연기법칙과 현실 직시 못한 정책의 결과
정부는 노력하는 사람 위한 경제 구축해야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도 아니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 때문도 아니고 명백한 정책적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현 정권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는 연기의 진리, 인과의 진리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다.

수많은 세월의 업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선천적 능력, 현생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중생들과의 그 끝없이 얽힌 인연들, 그리고 본인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생에서 비록 똑 같은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태어난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현 정권은 그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억지로 같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기의 진리를 깨치고 실행하기는커녕 부정하고 다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혹시 현 정권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평등한 경제적 삶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연기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연기의 법칙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명백한 이 '같을 수 없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데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서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물론 다 같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칭송받아야할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말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인플레이션도 잡으라는 말처럼 공허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음을 20세기의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현 정부가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노력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사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전해 주었다. 정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국민을 과소평가하는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황차



가격: 4만원

녹차 잎을 50% 발효한 황차는 황금색을 띠며, 발효차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납니다.
녹차와 달리 황차는 많이 마시거나 빈속에 마셔도 속쓰림이 없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속이 냉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황차는 몸에서 중단전 부위의 막힘을 열어 하단전과 상단전의 교통이 수월하도록 돕는 상하불교(上下不交)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찰재정 위기 해법은?
실천승가회 30일 세미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성관 · 효림)가 주최하는 사찰경영에 관한 두번째 세미나가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찰 운영 진단과 대안 제시를 위주로 했던 1차 세미나와 달리 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사찰 재정 운영 및 확충방안과 선진사례 제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실천승가회는 "종단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종단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 만큼이나 개별 사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사찰의 수입구조와 특성화된 사찰의 수입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등 사찰의 재정구조를 다원화하는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원 재정의 위기!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의 기조발제와 법안 스님(금선사 주지), 정만 스님(조계종 재무부장), 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실천승가회는 '종단 내외 제도적 개선 방향' '신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대안' 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02)725-4277 박봉영 기자



세로 88 cm ×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 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묘통하게 만사가 형통 된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숫한 화제를 낳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장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진보라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뮤즈대장경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넌)

사찰행사문의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학인모집 . 실전위주교육
범음 · 범패
017-556-5691부산 장전동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천명리강의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12월 6일 (수)낮2-5시첫강의
사맹재법주	12월 7일 (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1기 불교 마음 수련생 모집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마음을 찾으면 육신 또한 평안하리라....
일시 : 2550년 양 12월 5일
1. 일주일반 : 10명
2. 일박이일반: 10명
선착순 접수 후 2기 편성
접수 및 문의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불교 마음 수련원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법화경 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교해동대학원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상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상담을 통해 중생의 실제 고통을 원력으로 꽃피울 한국-스리랑카 불교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도량을 제공해 주실 거룩한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경기)
스님1 : 심리치료사, 상담심리박사과정
스님2 : 스리랑카, 산스크리트석사과정
011-436-7529

운전기사
신심이 돈독한 불자입니다. 필요하신 사찰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형면허소지
▷나이 53세, 지역 관계없음
010-6476-6026

처사님 구합니다
신심으로 도량청소 차량운전하실분
041)836-5066

남해바다 근접 개척 산사
무보시로 함께 하실
비구니 스님 30~40대
(출가의 뜻을 둔 불자님)
010-2511-1188

30년간 역학 공부한 스님입니다. 보살님이 운영하는 어려운 사찰이나 시내 포교당에서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불사 이루어 드립니다
010-5574-5662

인연을 찾습니다
36년의 수행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구스님입니다
포교원과 한의원을 개원하여 함께 하실 재력이 있으신 인연을 찾습니다
010-8505-0301

경리보살 구함
(신심있는 PC가능자)
45세 이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02)387-3216

공양주 보살, 화주 보살, 스님이 되실 행자스님 구함
설악산 불탑사
033)671-7751~3
주지직통010-4373-8316

부전스님(비구) 모십니다
▷광주
016-273-5527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구함
▷부산
019-487-111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40세 이하)
▷전북 군산
011-9404-8820

참신한 불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1-622-0108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 모심
▷서울 정릉 보덕선원
50세 전후
02)914-4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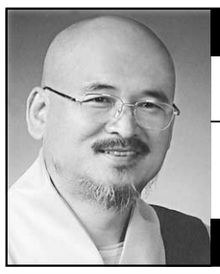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운전자 우대)
모십니다
▷경기 남양주
011-746-86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
010-4813-9707

부전자리 원합니다
▷비구스님
010-9474-0800

부전스님 모십니다
토굴처럼 계실 분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720-5682 핸드폰:010-8392-255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보는 방법을 1:1로 쉽게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기도 발원 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복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42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시주문

11면	한분	200만원
42수	1손	200만원
천수	1손	20만원
본불	1분	3,000만원
남순동자, 해상용왕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 협 729-02-117074(예금주:유재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 체 국 700435-02-005878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원 ● 사정원장 : 지원
● 총무원장 : 능인 ● 총무부원장 : 허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불교의식 범음 수련생 범패 모 집
수림사에서는 불교 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5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 법당: 20평
- 요사: 35평
- 부지: 760평
- 가액: 21억

- 위치: 경남
- 법당: 30평
- 요사: 120평
- 지장전: 200평
- 부지: 2700평
- 가액: 25억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상담 후 결정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3호선 홍제역 1분내 위치함 3층건물에3층, 대로변 인접
- 법당 20평, 옥탑방 숙식가능 삼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850만원(집기 일체 포함)

02)720-2230
011-252-61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장호원
- 부지: 500평
- 법당: 27평
- 요사: 2동 45평
- 가액: 3억 6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개인등기필)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스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5천8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054)331-5519

사찰(급)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사찰역사 320년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산세수려, 전망최고
- 평수 : 700평
- 대웅전,요사채,산신각(목조), 나한전,용왕당,미륵당 스님진견실등 집기일체 완비
- 즉시법회 가능, 주차장완비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55)973-5054
011-863-06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경기부근사찰과 교환원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파사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물건을 적당한 경기인근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 평수: 2층 34평, 3층 20평
- 2층: 법당, 종무소, 접견실
- 3층: 방 3
- 가액: 보증금 1천 1백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888-01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연산동 연산 로터리 부근, 전철역 1분, 최요지
- 3층건물 3층, 35평
- 법당: 30평, 방1개, 부엌1개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700만원

051)852-9707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강릉쪽대지교환

가액: 약 6억원 가량

전통 사찰과

교환 원합니다

018-260-7895

사 찰 안 내

〈 토 굴 〉
- 위치:부산시내바닷가
- 20평,30평,40평
- 1500만원~1억까지
- 아주다양함
- 바다전망 특별 빼어남

〈 사 찰 〉
- 부지: 3만3천평
- 위치: 삼랑진 정남향(양명) 산세 계곡물 철철 주변경관 특별 빼어남
- 가액: 4억

〈 포 교 선 원 〉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에서 30분거리
- 대지 402평, 임야 40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사용평수 : 600평 경내 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1-9411-530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2동 진시장 자성대 파출소 중간
- 3층건물 3층
- 평수: 20평
- 기름보일러 임법당, 상담실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000만원 월 27만원

010-9720-9901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웅촌 별장 360평-2억 3천
- 경남 울주 별장 170평-1억
- 경남 김해 주촌 사찰 203평-2억5천
- 부산시내 황령산밑 사찰 350평-5억2천
- 부산 사하 사찰 250평- 7억 5천
- 부산 시내 사찰 400평-12억

011-855-6699(남문)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밑 마을
- 대지: 500여평, 주택 30평 밭 1,500여평
- 가액: 2억 8000만원 (조절가능)

043)832-6144
010-3356-614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77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2채, 창고
- 가액: 2억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서동 각산역
- 평수: 약 70평
- 건물: 4층에 4층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3)961-337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 건물: 삼존불, 요사채, 산신당 종무실, 공양실 엠프 최고시설
- 가액: 8억 5천만원 (융자 3억 5천 포함)

010-3012-4404

암 자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하동
- 대지 전 합해 480평
- 법당 11평, 방 5, 수세식화장실 2
- 가액: 9500만원
- 조용하고 마을과 인접한 곳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대나무숲 포교와 참선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지

011-526-1824

사 찰 안 내

- 위치: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가창골
- 대지: 339평, 전 425평
- 2층건 60평 단층건 45평, 각 1동
- 가액: 3억(융자 8500 포함)

018-514-6009

도심사찰안내

- 위치: 일산
- 7층에 5층. 114평
- 시설완벽, 위치 A급
- 가액: 4억 3천 은행융자 2억 포함 (임대가능)

011-749-4553

임법당안내

- 위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입구)
- 4층건물의 3,4층 (전체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즉시 법회 가능, 시설일체 양도

02)400-3833
016-9220-503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소재
- 상가건물 2층, 50평규모
- 도시가스
- 가액: 8000만원 (임대보증금 포함)

02)514-4272
011-395-1434
011-9654-7676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광역시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탱화, 산신불
- 법당 비품일체, 공양간 비품
- 법당 5~6평, 부엌1, 화장실1
- 가액: 600만원 (절충가능) 전세 400만원, 월 15만원

010-2309-910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부지: 240평, 법당: 20평
- 언제든지 법회가능
- 요사채: 20평 가전제품일절구비
- 양도도 가능 사찰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해 주실 분

011-879-755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 180만원
- 시설비: 약간 절충

010-6374-00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포교당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내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주차시설완비

010-7207-3323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낙동강 변 숲속
- 대지 사용 실평수 500여평 정도
- 법당, 요사채
- 가액 : 2600만원, 월 50만원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1-568-0108
010-7135-935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이산
- 대지: 90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 가액: 2억원

산세수려하고 청정계곡 있음

011-9318-8459

토굴안내

- 위치: 충남 부여
- 대지: 320평
- 건물: 3동
- 가액: 1년 선불제 150만원

산세기도도량

010-7763-35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5분거리
- 부지: 1천평 산을 등지고 편안한 절터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6평
- 요사채 75평, 심야보일러 50평
- 가액: 집기포함 2억 8천5백

016-536-877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서울 30분)
- 대지: 175평(주차장 30대)
- 법당 1채, 요사채 2채, 삼성각 1채
- 특징: 기도와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 중심가 산의 위치)
- 가액: 3 억

016-510-3455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 1, 주방,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건물포함
- 가액: 63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같이 수행하며 공부하실분 , 행자구함

010-8828-3002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총 110평
- 시설: 주지실, 종무실,요사채 1, 2층 공양간(법당과 분리)
- 법당: 40평(천불전 모셔져 있음)
- 주불: 관세음보살 일불,신중, 삼성각,석불전
- 가액: 3억 7천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녕
- 부지: 550평
- 법당: 20평(단청필)
- 요사채: 30평
-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 가액:1억 8천 5백만원

010-6727-8890

사찰안내

- 위치 : 김천시
- 대지: 176평, 건평: 120평
- 법당: 25평, 강당: 25평
- 방 6개, 주방, 거실, 욕실, 창고
- 가액 : 1억 1천만원

017-503-3362

토굴안내

- 위치: 경상북도 고령 가야산 자락
- 평수: 대지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 5000만원

018-541-189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유어면
- 목조기와 한옥촌집 (기둥은 둥글고 법당은 아직 꾸미지 않았음)
- 대지: 198평
- 본집 · 마당 · 부속건물
- 가액: 3천 5백만원

011-9517-4130

사찰안내

- 경기 서부 대도심 산사
- 부지: 약 800평
- 법당: 목조건물
- 가액: 23억

※주변 재개발지 인접 포교 및 투자 최적 중개인은 사양함

010-3013-4664

멋진밀양사찰안내

- 위치: 부산 대구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언양 울산 30분
- 대지: 514평, 건평 약 100평
- 산신각, 일천관음등 및 연등법당, 잘 꾸며져 있음
- 황토집 2채 20평, 주차 15대
- 법당 뒤 대밭 조성되어 있음
- 대지 전체 돌담되어 있음
- 가액: 2억 6천만원, (3억 8천이나 사정으로 급안내)
- 사천땅 계곡있고 9천만원. 평당 2만원(분할가능)

010-5572-1501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료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 건물: 삼존불, 산신각 별도 요사채 방 4칸
- 법당: 65평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사정상 급 안내함

053)783-0106
016-528-3736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슬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및교육센터
-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624-0919

암자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 평수: 총 9800평 중
- 대지 130평, 30평 양옥건물 전 250평, 그 외 산 (관리지역) 산지 전용 허가 108평 별장 암자, 전용주택 연수원 팬션으로 사용가능 , 최고의 장소
- 가액: 3억 7천 7백만원

010-6471-7710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 건물: 2층 건물 중 2층
- 법당 10평, 큰방1, 작은방1
- 주방 및 화장실,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관으로 최고 위치

017-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사 찰 안 내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평수 200평 정도
- 법당, 요사채 별도
- 가액 : 2억 5천만원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1-9411-5302

‘간화선’ 현대화 위한 과제 많다

보조사상연구원 ‘한국 간화선의 현대적 조명’ 학술대회

한국의 간화선은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18일 ‘한국 간화선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선원의 간화선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간화선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제1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간화선의 정체성, 간화선의 수용 과정 등 그동안 보조사상연구원의 간화선에 대한 학술대회를 총결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대회에서는 덕숭총림 수좌 설정 스님의 ‘간화선의 현대적 조명’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의 ‘한국선원 및 수좌의 현황과 과제’ 벽송선원 선주 월암 스님의 ‘한국 간화선과 화두 참구의 계승’ 서울대 윤원철 교수의 ‘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 현황’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간화선의 개선 과제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 법산 스님의 논문과 간화선의 역사적 계통과 사상적 연원을 추적한 월암 스님의 논문이 주목받았다. 이들 논문을 요약했다.

‘점검제도’ 도입 … 선원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법산 스님 ‘한국선원 및 수좌의 현황과 과제’



최근 선원과 수좌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와 맞물려 간화선 중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과제로는 △수행자들의 간화선 점검 과정 제도화 △선원의 특성화 △산철 기간 봉사제도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간화선 점검 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각 선원의 조실들은 수좌들의 공부를 점검해 주어 정진의 효율성과 발심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한 철에 두세 번은 조실이나 선원장에게 수행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

선원마다의 특화된 수행 프로그램 마련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현재의 선원들은 어느 곳을 가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자 수행자들의 근기에 맞고 성향에 맞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면 정진에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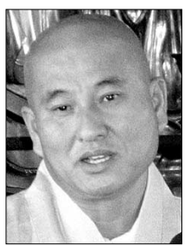
선원은 또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처음으로 선원에 입방한 수좌에게는 반드시 좌선의, 화두간택, 간화의 방법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요즘 선원에 3급 고시 책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스님들이 선원의 환경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참 수좌들에 대한 기본교육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선원은 또 본철에는 실참 위주로, 산철에는 조사어록이나 선(禪)관계 경전을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어 수좌들에게 자기 점검의 기회를 주고 선학을 통해 남에게 선을 가르치고 설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선원은 선학과 선수행을 교육할 수 있는 선지도사 양성기관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가칭 ‘선학대학원’을 설립해 입학자격과 졸업자격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선지도사를 배출해 출가와 재가에 간화선 지도를 담당케 해야 한다.

“자신의 간절한 현실문제를 ‘화두’로”

월암 스님 ‘한국 간화선과 화두 참구의 계승’



간화선에 있어서 화두의 연원과 전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옛 조사의 깨달음의 기연이 모두 화두의 참구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화두는 간택도 중요하지만 이를 참구함에 있어 현상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구도의 과제로 대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종문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본참공안(本參公案:자신의 본래 모습을 참구하는 공안)으로서의 가치보다 그 공안이 실참자 자신의 간절한 현실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두에 자신의 의심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이 화두는 죽은 화두(死句)가 되고 만다.

참선은 언어와 문자, 알음알이로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

또 간화행자는 실참을 통해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지향하고 나아가 일체 유정(有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선원에서 용맹정진하는 신심납자는 자비심의 발현으로 좌복 밑에 중생의 고통과 회한과 은혜를 깔고, 역사와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활발한 선풍을 진작시키고자 향상일로(向上一路:간화선의 최종 경지) 매진해야 한다. 오직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無住生死),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無住涅槃)’ 무주행(無住行)의 대승정신을 토대로 삼아 실참실오(實參實悟)하는 것이 간화행자의 본분이다.

‘무자’ ‘이 뭣고?’ ‘본래면목’ 화두가 되었든, 그 외에 어떤 화두를 참구하든 간에 화두에 의심을 돈발해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이 사무쳐 불같은 의단(疑團)을 이루어 화두일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화두가 일념만년(一念萬年)이 되어 어느 때 시절인연이 꽃피는 날을 당하여 일념(一念), 무념(無念)마저 뛰어 넘어 생사 고를 끊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간화행자의 본분일 것이다. 이것이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눈이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길이다. **정리=노병철 기자**

미군기지에서 박물관으로…

부산 하얄리아 캠프내 불상 · 비석 4점 시립박물관에 보관

주한미군 기지 내 보관돼 있던 불상 3구와 비석 1점이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 · 보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8월 폐쇄된 부산 미군기지 하얄리아 캠프 내에 보관돼 있던 불상 3점과 비석 1점 등 총 4점의 불교문화재를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인계받아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 연대와 제작의도, 원래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 ·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향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기지 내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명 ‘하얄리아 캠프 불상’이라 불렸던



이 유물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 1월 주한미군의 한 소식지에 게재되면서부터다.

이번에 인계받는 화강암 불상(사진) 3점은 제작기법과 형태 등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동일인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작 연대는 통일신라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까지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인수 후 정밀 학술조사를 통해 그 제작 연대 등이 밝혀질 전망이다.

또 다른 유물인 ‘마두관세음보살(馬頭觀世音菩薩)’의 7자가 새겨진 비석 1점은 3점의 불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존재했던 마두관세음보살의 표시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료조사 등 문헌검증을 거쳐 최초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유물들은 하얄리아 캠프의 공식폐쇄 전까지는 기지 내 사무실에 보관되었고 폐쇄 후에는 도난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구캠프 미군부대 사무실로 옮겨져 보관되어 왔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0>

죽음

파스칼은 지구상의 생물 중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또 ‘비록 물 한 방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안다는 것만으로 인간은 위대하다’고 했다.

죽음만큼 인간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 또 있을까. 역사와 철학, 종교가 인간이 죽음을 인식한다는 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물관의 초기 인류의 발자취가 주로 제사와 무덤에서 발견되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세기 과학은 인간이 죽음의 이유를 이해하고 정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은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다. 아이를 출산할 때 여성은 신발을 거꾸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또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인가. 나이가 들어 심장 등 장기가 쇠하면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전자의 일들을 죽음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다. 출산은 삶을 위한 축복이고, 전염병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됐다.

또 심장의 동맥에 관을 넣어서 피가 잘 돌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MRI와 같은 방식으로 뇌를 포함하는 몸의 곳곳을 마이크론 수준까지 관찰함으로써 조기에 사망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방법과 심지어 늙고 죽음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분자구조와 생화학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늙고 죽음을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모해 보이는 이 시도의 성공 확률은 높다. 분자수준의 분석 그리고 생명신호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이 만들어준 법칙을 단시간에 깰 수 있을 것이다.

UN은 2030년이 되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명 변화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측되는 삶의 방식 변화뿐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20세기 과학, 죽음 이해와 정복 위해 노력
고령화로 삶 방식 · 생사에 대한 인식 바뀌어

인간의 역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고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유학자 공자만큼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히랍인들과 같이 논리적으로 존재와 진리에 대해서 파헤친 사람들도 없다. 절대자의 의미에 대해 유대인과 같이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의미와 이것이 주는 우주와의 관계를 부처님처럼 과학적으로 파헤친 분은 없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불자들은 다시 한번 죽음의 의미와 이것이 주는 삶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매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주문



태원 스님 초청 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2월 4일 오전 9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중앙승가대학 교수 태원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55)934-3000



민추본 사무처장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묵 스님은 11월 24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성묵 스님은 1991년 구족계를 수지했고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자비의 향기…' 출판기념회

소설가 남지심씨는 12월 5일 오후 5시 서울 하림각 다이아몬드홀에서 <자비의 향기 육영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음악회 수익금 '생명나눔'에 전달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11월 21일 제4회 소아암 환아돕기 음악회 수익금 1700만원을 한국혈액암협회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제12회 불교인권상 수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보라 회장은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7주년 법회에서 제12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김영섭씨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선정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선정하는 '2006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김영섭(37 · 향우 · 사진)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광주대 불교학생회장, 대불련 광주지부장을 거쳐 광주불교교육원 사무국장,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을 맡아 불교세가 열악한 광주지역에서 새로운 불교활동을 개척해왔고, 지난해와 올해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광주지역 불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봉영 기자**

BBS 강현정 PD,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불교방송 강현정 PD(사진)가 지난해 개국 15주년을 맞아 제작 · 방송한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장애여성의 성(性), 문을 열자!' 2부작으로 11월 22일 제8회 남녀평등 방송상 방송프로그램 분야 여성가족부장관상(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장애여성의 성(性), 문을 열자!'는 소외계층인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2005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이달의 PD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강지연 기자**

인사 서울 봉은사 △총무국장=진화 △교무국장=재현 △포교국장=장현 △사회국장=승산 스님

"도량 넓혀 봉사 더 많이할 터"

구찌 평화상 수상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법관 스님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불교 전체가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사진)은 한국인으로 최초로 구찌 평화상을 수상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스님은 11월 23일 필리핀 메랄코 시어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도주의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해 이 상의 권위를 입증했다.

"처음 필리핀에 포교원을 냈을 때는 가톨릭 국가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그러나 절에서 가깝게는 5시간, 멀게는 이틀이나 걸리는 오지까지 찾아가 의료봉사를 펼쳐온 불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법관 스님은 매달 1회, 피나투보 지역의 고산지대 소수민족을 찾아 양한방 의료봉사를 펼치고 쌀과 생필품을 전달해왔다. 또한 매주 1회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하는 마닐라 엘시가체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빈민가에서 가까운 포교원에서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백중, 크리스마스에 인근 이웃 1000여 명을 초청, 의료봉사와 잔치를 열어오기도 했다.

법관 스님은 "정부에서 땅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량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봉사활동의 폭도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역조직 늘리며 사회운동 전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세상 속으로 더 넓게, 생활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기 위해 사회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모범을 창출해 나가는 혁신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제4기 상임대표에 오른 김동건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 • 사진)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NGO로 거듭나는 한편, 교단자정센터, (사)불교아카데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밝은세상 등 재가연대 부설기관의 독립경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재산 10% 기증운동과 재가운동 확산을 위한 1만 가족공동체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지역조직을 단계별로 창립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 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소외계층의 스님들과 결합하는 방안과 교단과 거리를 둔 독자적인 불교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원로서예가 김충현 옹 타계

일중(一中) 김충현 선생(사진)이 11월 19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독실한 불자인 김충현 선생은 한문은 물론 한글서예에도 뛰어났으며 한글서체개발에 매진, 훈민정음의 고판본체에 한문서예의 전법과 예법을 도입한 '고체'를 구사해 한글서예의 새로운 표현영역을 제시했다.

은정학술상에 김천학 교수

심주완 · 박보람씨는 연구비



제 1회 은정학술상에 일본 히메지 도쿄대학 김천학(사진) 조교수가 선정됐다. 김천학 교수는 '균여 화엄사상 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당선됐으며, 상금 700만원을 받게 된다. 김 교수의 논문은 <은정학술총서> 제1권으로 발간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또 '불교계 신진학자 육성 장학금'에 심주완씨(고려대 문화재학과 박사과정)와 박보람씨(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은정학술상은 불교학 발전과 신진불교학자 양성을 위해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02)515-9351 **노병철 기자**

새 회장 김기태씨 취임

부산개인택시불자회



"기분 좋은 일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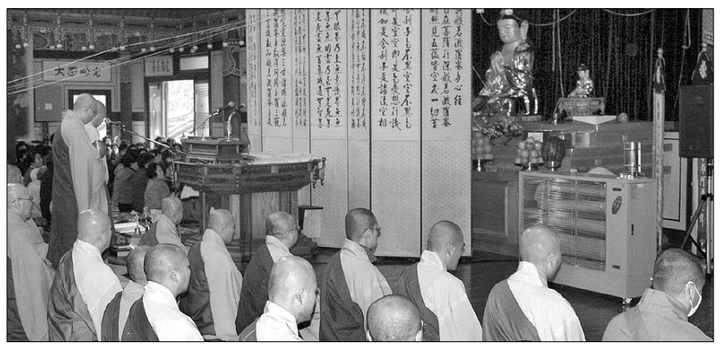
부산개인택시 불자회 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기태씨(사진)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11월 23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기태 회장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좋은 일이 있냐고 자주 묻는다"며 "내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회원 모두가 웃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임을 이끌고 싶다"고 취임사를 말했다.

환경보호, 교통정리, 불교계 행사 도우미 등 교계 안팎의 잔심부름을 마다 않고 18년 째 해 오고 있는 부산개인택시 불자회는 회원의 차량에서 판매한 자비의 껌 수익금으로 매년 소년소녀 가장에게 학자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김기태 회장은 "회원 모두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부산=이은아 기자**

"광명의 눈으로 화합 · 포용의 날을…"



봉선사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는 11월 21일 청풍루에서 10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의 점안 의식에 이어 조실 월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점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며 오늘은 비로자나와 석가모니, 아미타 부처님이 금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광명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통해 가정은 물론이 사회에도 모든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포용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철안 스님도 "설법전인 청풍루에는 상주 설법을 하시는 비로자나불을, 운허 스님의 기념관이 들어설 서암에는 아미타불을, 그동안 어린이 법회 등 각종 법회가 열렸는데도 불단만 있었던 방적당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교구본사중 봉선사만이 유일하게 암자가 없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서암을 새로 짓고 그곳에 운허 스님의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도 세우게 돼 봉선사의 위상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봉선사는 이번 점안 법회에 앞서 11월 5일 개금법회를, 19일에는 복장의식 법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대상-이성수 기자 특별상-박봉영 기자

불교기자협회 '불교기자상' 선정…12월 4일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가 주최하는 2006 불기협 기자 대상에 불교신문 이성수(사진 위) · 박인탁 기자의 '어린이가 불교의 미래다'가 선정됐다. 특별상 기획보도 부문에는 본지 박봉영 기자(사진 아래)의 '경제 · 경영'을 비롯해 법보신문 정하중 기자의 '한국사용 불기 2550년 틀렸다', 만불신문 서현욱 기자 외 8명의 'Happy/ Ending'이, 특별상 시사보도 부문에는 불교신문 어현경 기자의 '백양사 도난 후불탱 미술관서 전시'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 13층에서 열린다. 이날 불기협은 20년 이상 불교계 언론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월간 <불광> 남동화 편집국장과 불기협 발전에 공로가 큰 본지 김원우 취재차장에게 공로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02)733-1604 **남동우 기자**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사랑의 김장나누기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11월 25일 동국대 상록원 식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동국대 학생 및 교직원들은 서울 중구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가정 및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 경기도 광주 향림원 등에 직접 전달할 65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개인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 세상보기

김 연 옥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울한 사람 우울한 사회

18세기 실학의 거두 박지원, 영화배우 이은주와 장국영, 쇼팽, 고갱, 링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이다. 몇몇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국가중 4위였는데, 2006년에는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였다. 자살자의 70~80%는 우울증 증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생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다. 최근에는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보도가 연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흔히들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곤 한다. 이 말이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면 적절할 수 있지만,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감기로는 생을 마감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우울증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자기 혐오와 무가치함, 절망감,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자살충동 등이다. 모든 생명체의 본질인 생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상한 병이 우울증만큼 위험하고 파괴적인 질병이 또 있을까.

우울증은 흔히 신체적 질환이므로 약물치료를 하면 완쾌된다고들 한다. 신경전달물질부족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병이며 사회적 질병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기에, 실직, 이혼, 입시낙방 등 갖가지 스트레스가 신체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우울증과 자살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취업난, 입시지옥, 부의 양극화, 고용불안정 등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아마 우리 사회만큼 스트레스와 긴장이 높은 사회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울증이 있었던 노인이 '아파트 가격은 뛰어라,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은 우울증과 자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6조원이 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더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개입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일천하다. 선진 국가들이 이미 60, 70년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제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5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고, 이 또한 1997년의 IMF위기로 인해 그 실천이 지연되었으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조차 2001년에 와서야 처음 실시되었을 정도이다. 가장 일선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타가 2006년 현재 전국에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는 이 센타를 2008년까지 246개소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대로 시설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울증과 관련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주로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등 타인공격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질환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상 자체가 '조용'하고 자기공격적인 우울증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울증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지역사회 깊숙이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약물치료, 심리상담 등 치료개입의 다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어린이 포교 단체인 (사)동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1986년 어린이 법회 지도자를 교육하는 불교교사대학을 설립하고, 1990년부터는 어린이 불교 잡지인 월간 <동련> 10만 권을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동련의 '눈부신' 성취가 사실은 '눈물겨운' 결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20년 간 한국 불교는 적어도 어린이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침체일로였다. 어린이 법회의 감소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한 각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일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아이들도 경쟁의 장에 흡수되어 버렸다. 아이들은 뿔뿔이 '학원'으로 달려가고 '컴퓨터'에 매달렸다. 사찰은 이런 아이들을 흡수할 동력을 잃어 버렸다.

어린이포교 '골목 넓히기' 20년

입버릇처럼 '위기'와 '침체'를 말할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 포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한다.

첫째, 앞으로 어린이 법회는 '골목' 문화의 현대판이어야 한다. 1학년과 6학년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봄 · 가을에는 '야외활동'이나 '생태체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들의 빈 곳을 채워줘야 한다. 대학생 · 청년회 · 신도 조직과 연계하여 '특기 · 적성' 계발이나 '글쓰기 · 논술' 지도를 통해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 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 도시 사찰이나 지역의 중심 사찰은 사회봉사의 차원에서도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 찾아가는 어린이 포교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포교의 침체는 원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이 시대의 가장 고통 받는 중생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종단 차원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윤제학(아동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효도

마땅히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여 존중해 섬겨서 신(神)인 듯 받드는 생각을 지녀야 하며, 부모의 생각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면서도 아첨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보리자량론〉

'효도 계약서' '효테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장남에게 50평대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 간에 재산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를 무효화하며, 증여기간 이자까지 덧붙여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 아버지. 강남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결혼 5년만에 아이 낳을 마음을 품은 30대 며느리.

이런 사회에 발맞춰 일부 금융권에서는 효도 계약서와 관련한 고액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가족 간의 정이 메말라서라기보다 재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효테크'라는 설명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재산 관리법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서'를 써야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효도는 조건이 되어 버린 듯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부처님은 "부모가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이 모두가 부모의 은혜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성으로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가를 잘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한다"고 <삼세인과경>을 통해 말씀했다.

돈에 눈이 어두운 이 시대 부모 자식 사이의 자화상은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일까. 조건부 효도 후 챙긴 재산이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하자. ■강지연(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수목장,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나?

장단점 충분히 검토해 우리문화에 맞춰야



수목장, 말도 참 많다. 실상 말이 많다는 게, 유행처럼 이야기된다는 게 문제이다. 한 문화권이나 사회에서, 돌아가신 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장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도입되어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수목장에 대한 담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장법인 양 회자되기도 한다. 물론 여러 면에서 이상적이다. 문제는 이상적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검증, 즉 많은 국민들이 수목장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며 행여나 또 다른 폐단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는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것도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처음엔 이상적이었지만 나중엔 여러 폐단을 양산해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것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화장 후 납골방식의 하나로 제도화해 시행한 납골묘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이다. 최근의 수목장에 관한 성급함도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거듭, 장법 즉 죽은 자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는 그 사회 전체 구조와 문화적 맥락에 맞게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웃 어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아니면 환경이나 비용, 편리성, 위생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 문화체계나 사회구조에도 잘 맞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수목장은 좋은 장법임에는 틀림없다. 자연회귀라는 본래의 우리 전통장법과도 부합하며 비교적 깔끔하게 무(無)로 환원한다는 데서 불교 교리와도 여러 면에서 합치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목장에 대한 논의나 개정 추진 중인 장사법이 지나치게 친환경성과 경제성, 편리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경제적인 요소만 고려한다면 굳이 수목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돌아가시면 화장이나 빙장(氷藏)해서 곧바로 적절한 시설에 뿌려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묘지는 묘지이어야 한다. 고인은 고인으로서 일정기간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후손은 고인을 기억하고 추도할 장소와 대상을 가져야 한다. 후손을 통해 영생과 불멸성을 추구하는 게 우리 전통 장례문화의 본질이며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고 있는 기층문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수목장도 무엇보다 첫째로 묘지라는 문화적 제도로 다루어지고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폐단을 최소화해야 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본래의 묘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묘지는 고인의 표식 기능과 고인의 불멸성에 대한 담보를 통해 살아생전 죽음이란 종국성이 주는 두려움과 무의미성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주기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묘지로서의 표식기능과 후손들의 참배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폐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되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이 정교하고 세세할수록 오히려 탈법 등의 폐단은 늘어나게 된다. 법은 큰 틀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정 추진 중인 장사법이 통상 최적의 수목장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과 관리의 주체로 잘 기능할 수 있는 사찰 등도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설치해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수목장 활성화를 가로막거나 관리주체가 모호한 수목장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재고돼야 한다.

강동구(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겸임교수)

'현대'만평 심 민 섭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강 좌 일
- 2006년 11월 30일 ~ 12월 2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인도 나란다 대학 복원 준비 '순항'

싱가포르 · 日 지원 구체화… 亞 학술연구 중심지로 부활 기대

서양사 중심으로 서술된 교과서나 상식백과 서적에서는,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대학을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이것을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비(非)상식', 아니 '몰(沒)상식'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도의 나란다(Nalanda) 대학교는 서기 전 5세기 굽타 왕조 시대에 설립되어 1,199년 이슬람군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될 때까지 1,600여 년 동안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 · 중국 · 일본과 태국 ·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이 몰려들어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최고의 교수진과 10,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넘쳐나던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였다.

이에 반해 법학 중심의 단과대학에서 출발한 볼로냐대학은 서기 1,088년에 개교하였으니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몰상식'이라고 하는 내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나란다 대학이 폐허가 된 것도, 세속의 대중을 떠나 사변적(思辨的)으로만 흐르고 말았던 인도 불교가 감수해야 했던 업보(業報)일지 모른다.

폐허가 되어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나란다대학 터에 서서, 당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학승들이 불교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던 장면을 떠올리면 '제행무상'의 가르침이 절실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제 아무리 '제행무상'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심 깊은 불자라면 폐허를 바라보는 마음이 쓰리고 저려오는 것이 당연하다. 부처님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무능력에 실망하고 말 것이다. 국적을 떠나, 나란다대학을 복원하여 '세계 최고(最古)의 대학'을 '세계 최고(最高)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싶다는 원(願)도 가져볼 것이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나란다대학이 위치한 "인도의 비하르 주 정부가 싱가포르 ·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나란다대학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반가운 외신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11월 20일 인도의 IPS(Inter Press Service) 통신사의 카링가 세네비라트네(Kalinga Seneviratne) 기자가 뉴델리 발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싱가포르 · 일본 및 불교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나란다대학을 복원하여 아시아 학문 연구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인도 나란다 대학 복원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학 부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나란다 대학 유적지.
사진제공=한북 스님

세계 최초대학 사실상 '볼로냐' 아닌 '나란다'
중국, 인도와의 관계 개선 기회로 여겨
"관광객 유치用 · 세속화 우려" 비판에도 불구
지역 불자들 자긍심 높이는 '반가운 불사'

미화 1억5천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야심 찬 프로젝트는 이번 주 뉴델리에서 <불교적 문화 고리의 복원(Reviving Buddhist Cultural Links)>를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비하르 주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합작사업(Joint Venture)에는 스리랑카 · 태국과 중국 등 불교도의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의 참여도 예상된다.

11월 13일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싱가포르 외무장관 져지 여오(George Yeo)는 "이 프로젝트는 '종교'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정수(精髓)였던 불교적 가치와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세계무대에서 아시아가 재부상하고 있으므로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해 과거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나란다대학이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들이 나란다대학을 아시아 문예부흥의 상징으로 발전시켜 광범위한 지역에서 학자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대통령 압둘 카람(Abdul Kalam)도 뉴델리에서 생방송으로 전해진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모델"이라며, "마음의 화합이라는 과제는 이제 고대 나란다대학의 탄생지인 비하르에서부터 동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이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비하르 주 기획청의 부책임자인 싱(N.K Singh)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고대의 나란다대학 인근에 이미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는 이곳에 대학을 건립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 이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대학 건립과 운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란다대학 복원 사업이 '인도의 불교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도 극빈 지역에 속하는 비하르 주 정부의 경기부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제적' 목표와 싱가포르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최근 인도와 우호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 측에서도 '나란다를 통한 인도 문화의 중국 전파'를 강조하며 "과거 인도에서 받기만 했던 중국이 이제는 갚아야 할 때"라고까지 하며 정치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나란다대학 복원 계획의 뒤에 감추어진 '세속화 우려'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이 사업이 '반가운 불사(佛事)'임에 틀림없다.

이 불사가 단순하게 건물만 건축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옛 나란다대학의 명성을 되찾아 '불교학을 중심으로 제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학문 중심'으로 우뚝 일어서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무슬림의 3분의 1, 기독교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나란다 지역 불교도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이 지역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몇 개 안되는 종립대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나란다대학 복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 불교계 지도자들도 사심을 버리고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뿐이다.

이병두(자유기고가)

'연기경' 범어원전 추정 유물 바미얀 석불 파편서 발견

불상 내부 안치했던 태내경 가능성 높아

2001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 파편에서 중국 현장 법사가 한역한 경전의 범어 원본 일부가 발견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유네스코 협력기관과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의 독일 조사단이 아프가니스탄 중부에 파괴된 바미얀 동 · 서대불 가운데, 동대불의 잔해에서 5~6세기 경의 문자로 쓰인 불경의 원전 일부를 발견했다"며 "이 경전은 7세기경 바미얀을 방문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 법사가 한역해 한국에도 전해졌던 '연기경(緣起經)'의 범어(梵語) 원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일본 불교대의 마쓰다 가즈노부(松田和信)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발견된 이 경문은 대불 건립 당시 불상 내부에 안치됐던 '태내경(胎內經)'일 가능성이 커, 수수께끼에 휩싸였던 바미얀 대불의 건립 경위 등을 해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이어 "이 경전은 인도 북부로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에서 6~7세기 경에 사용된 '키르깃 바미얀 제1형 문자'로 기록됐다"며 마쓰다 교수의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2001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의 모습. 중국 현장 법사가 한역한 '연기경'의 원전으로 추정되는 경전이 이 석불의 파편에서 발견됐다.

<연기경(緣起經)>은 만물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파한 대표적인 경전. 이번에 발견된 경전은 자작나무 껍데기에 쓰인 것으로, 부처님 사리와 함께 천으로 싸인 상태로 발견됐다. 김철우 기자

인도 불교유물 밀수 · 도난 골머리

비하르주 지난해 3600점 해외유출

인도 비하르 주 당국이 불교유물 밀수와 도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P 통신은 최근 "작년 한 해 동안 3,600개 이상의 불교유물이 인도 비하르 주에서 해외로 유출됐다"며 "비하르 경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5명의 특수대를 구성하여 밀수소탕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국 등 불교국가에서 불교유물의 수요가 많은데다가, 비하르 주의 치안상황이 열악해 밀수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18구의 청동불상이 파트나 박물관에서 도난당했고, 20년간 수백 개의 청동불상과 필사본 수천부가 도난당하는 등 이 지역 불교유물 도난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심지어 최근에는 1600년 된 청동불상이 우타르 프라데쉬 주에서 발견됐고, 국제밀수조직이 체포되기도 했다.

마하보디 사원의 주지 보디팔라 스님은 "인도는 날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美 왓선빌리 사원 설립 100주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불교공동체 왓선빌리(Watsonville) 사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수 백명이 모인 가운데11월 15일 기념식을 봉행했다고 불교뉴스 포털 '부디스트 채널'이 최근 보도했다.

왓선빌리 사원은 지난 19세기말 파자로(Pajaro) 계곡에 도착한 일본 이주민들이 설립한 사찰로, 일본 문화의 전승을 위해 승가와 신도단 중심으로 운영 · 유지돼왔다.

신도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본에서 복원해 금으로 제작된 대형 불단을 들여오는 등 행사준비를 해왔다. 김철우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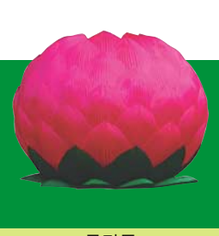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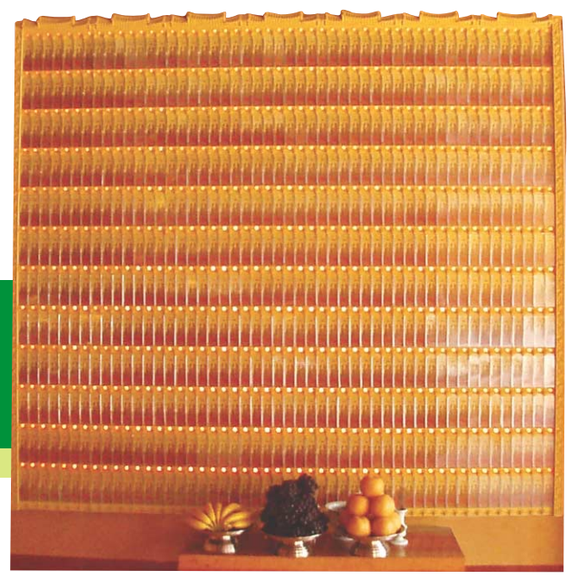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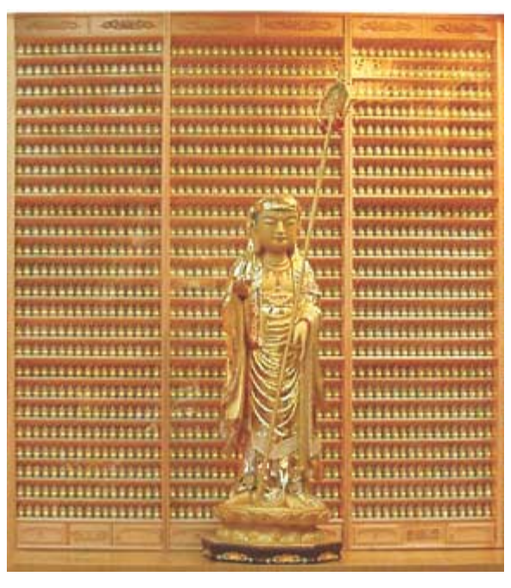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605 호

3대째 수(手) 목탁 만드는 공문수씨

향기 도반의

"3년간 썩는 고통이 맑은 소리 내는 힘이죠"



"좀 더 늦게 오셨으면 목탁일 손 놨을지도 몰라유."

충남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에 자리 잡은 백제불교목공예원을 찾은 것은 지난 11월 16일. 마침 쌍달리 마을 김장날이라 동네엔 인적도 뜸하고, 물어물어 도착한 허름한 비닐하우스에서 3대(代)째 '수(手) 목탁'을 만들고 있다는 공문수(46)씨를 만났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라 첫째 아들을 수험장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라 했다.

공씨는 "이렇게 허름한 곳까지 찾아줘서 고맙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건네면서도 대뜸 '목탁일'에 대한 '준 사형선고'를 내렸다. 스님이셨던 할아버지(故 공덕준)와 부친(故 공점철)의 뒤를 이어 30여 년간 손으로 직접 깎는 목탁을 만들고 있다는 그의 이력을 다시 살피게 만드는 말이었다.

"생각해 보세유. 실한 살구나무 한 그루 구하려면 봄 한 철 돌아다녀야지, 나무 베어 오면 30시간 정도 삶아야지, 그 놈을 3년 정도는 말려야 목탁을 만들 수 있는디 목탁 하나 깎는 데만도 꼬박 4~5일 정도는 걸려유. 그러니 그 비싼 목탁을 누가 사겄습니까."

그의 설명을 들으니 하루 100개는 거뜬히 쏟아져 나온다는 '기계 목탁(기계로 깎아서 만드는 목탁)'과는 가격으로나 공급량으로나 경쟁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손으로 깎은 목탁이 훨씬 소리나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요즘 기계 목탁도 꽤 쓸만해유. 제가 들어봐도 소리가 썩 나쁘질 않아요. 게다가 목탁은 소모품 아니어유. 몇 달 쓰다보면 흠집도 나고 소리도 변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유. 그러니 어찌 전통 지키겠다고 비싼 목탁만 사서 쓰겠어요. 저도 주머니 넉넉지 않은 스님들이 제 목탁 찾으시면 그냥 기계 목탁 사서 쓰시라고 해유. 그래도 어째요. 마음이 짠허니께 그냥 보시하는 수밖에."

'각(覺)'자가 새겨진 공씨의 목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역사'가 담긴 것이다. 일제강점기 고문으로 다리 불구가 된 할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목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모양이 좋고 소리가 청아해 찾는 사람이 늘자 공씨의 아버지도 자연스레 그 일을 이었다. 3남 3녀 중 가장 손재주가 좋아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왔던 공씨도 '목탁일'을 자신의 천직이라 여겼다.



공문수씨가 1998년에 준비해 둔 목탁 재료들. 이 목탁이 완성될 때까지 공씨가 수목탁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 20년 만들고 나니 자신이 생기데요. 목탁 주문도 한 달에 4~5개는 들어왔으니 같이 일하는 사람도 네 명이나 두고 전국 30여 곳 불교용품점에 납품했지유. 근데 IMF 사태가 나고 나니 주문이 뚝 끊어졌어유. 자식 같은 목탁을 내주고도 돈을 못 받았으니 어찌 일을 계속하겠어유."

최근 공씨는 생업을 위해 조각탁자나 사찰 편액을 만들고 동네 '나무일(나무를 베어 주거나 과수원 수종갱신을 돕는 일 등)'을 돕고 있다. 목탁은 '30년 익힌 솜씨 없어질까 아쉬워' 한 달에 두어 개 정도만 꾸준히 만든다. 스스로 '아직 장인정신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공씨지만 목탁 제작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원하는 목탁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나무 한 그루를 다 쓰기도 해유.(보통 나무 1그루로 목탁 15개 정도가 만들어진다) 이제는 목탁으로 음계도 만들 수 있지유. 좋은 재료로 정성스레 만드니 2~3년은 거뜬히 쓸 수 있응께 값은 톡톡히 하는 거 아니것어유."

이처럼 애정을 가진 '목탁일'을 생업으로 삼을 수 없게 된 것은 단지 판로가 막막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목탁 만드는 기술만이라도 전수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저도 그동안 애 많이 썼지유. 공주시청이고 충남도청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목공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예학교' 하나 세워보려고 했지유. 근데 뭐 제가 자격증이 있나요, 번듯한 학벌이 있나요. 그저 동네 어르신들 술 한 잔 사드리면서 배운 짚신이며 지게며 물레방아 만드는 기술밖에 없응께 안됐던가봐유. 그래도 열심히 목탁 만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제 노력이 부족하나 보네유."

자신의 생계도 간신히 이어가다 보니 후학을 키울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일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나무 베는 일이 워낙 위험하고 하루 종일 나무가루를 마셔야 하다 보니 한 달을 견디지 못했다.

"나무가 잘 못 쓰러져 굵은 가지에 부딪쳐 뼈가 부서지는 일이 다반사에유. 제 몸에도 상처가 30군데는 넘을 거에유. 남들이 '미련스럽다'고 손가락질해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돈은 못 벌망정 자기 기술은 전수할 수 있는 곳이나 있었으면 싶네유."

'목탁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도 수없이 했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 목탁을 치다보면 번잡스럽던 마음이 어느덧 가라앉는다고 한다. '내가 안하면 그저 잊히고 말 테니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스스로를 타이른다.

언젠가 자신 집 한 켠에 공예학교를 지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씨. 3~4년은 거센 비바람 맞으며 '썩어야' 목탁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되듯, 그 역시 시련의 시기를 꿋꿋이 견디고 있는 한 그루 살구나무인 듯 보였다.

공주/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7> 낙엽은 뿌리로 돌아가고

단풍철도 지났다.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와버렸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날 만큼 여름은 길고 가을은 짧았다. 그 와중에서도 붉은 잎은 바삐 온산을 물들인 후 이제 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고 했든가? 하지만 어김없이 이듬 해 봄에는 다시 새잎이 돋는다. 그 잎이 그 잎은 아니겠지만 범부들은 그 잎이 그 잎이라 여기면서 영원함을 꿈꾼다.

부처님께서는 100년을 사바세계에 머물 인연이었다. 그런데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이유는 당신이 누려야 할 20년 복을 후학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 복으로 제자들은 수행하고 불사하면서 2600여년을 살아왔으니 그야말로 무량한 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어록에서는 '세존이십년유음(世尊二十年遺蔭)' 즉 세존께서 남겨놓은 이십년 그늘이라 했다. 선사들은 이를 '큰나무 그늘이 강동 삼백리를 덮는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했다. 받아야 할 업과 누려야 할 복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낭야광조(瑯琊廣照)선사 문하의 귀종가선(歸宗可宣)과 해인초신(海印超信)의 행적은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가선선사가 살고 있던 남강 땅의 태수는 스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그러다가 마침내 개인적 허물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책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절친하게 지냈던 곽상정거사에게 서신 겸 유서를 남기고 입적해 버렸다.

"나에게는 다하지 못한 세상인연이 6년 더 남았는데, 오늘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어 그대의 집안에 의탁하여 다시 태어나고자 하니 잘 보살펴주기 바라오."

그날밤 곽거사 부인의 꿈속에 가선선사가 어렴풋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손으로 저어하며 소리쳤다.

"여긴 스님께서는 오실 곳이 아닙니다."

거사는 잠꼬대를 하는 아내를 깨워 그 연유를 물으니 꿈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불을 켜고서 아내에게 가선선사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이후 태기가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선노(宣老)라고 지었다. 겨우 첫돌이 지났는데 옛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세 살이 되던 해, 백운수단(白雲守端)선사가 가선의 환생을 확인하고는 공부경지도 같이 따라오는지 궁금하여 그걸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때 마침 문밖에 수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백운이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선노는 수레 미는 시늉을 했다. 다시 물었다. "수레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평지에 한 줄의 도장이 패이지." 그렇게 선문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6살이 되자마자 아무 병 없이 죽어버렸다. 그가 유서에서 말한 다하지 못한 인연 6년을 이렇게 채웠던 것이다.

해인초신 스님은 80여세를 살았다. 방어사(防禦使) 주공(朱公)집에서 공양청을 자주 받았다. 어느 날 주공이 물었다. "다음 생에는 저희 집안에 태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미소로 승낙한 후 절에 돌아가더니 열반했다. 이내 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원조종본(圓照宗本)선사가 듣고서 찾아갔다. 태어난지 한 달 된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선사를 보고서 방긋방긋 웃었다. 하지만 종본은 인정사정 없었다. "해인아! 너는 틀렸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종본선사는 해인스님이 살만큼 살았는지라 더 살아야 할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끄달려 다시 태어난 것을 꾸짖은 것이다. 그러나 가선 스님은 남아있는 인연 6년 때문에 다시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갔다. 업(業)과 인(因)의 법칙에서 누군들 한 치라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가끔 그 원칙을 어기고 따로 튀어나온 놈이 있을 경우 가차없이 할을 내질렀던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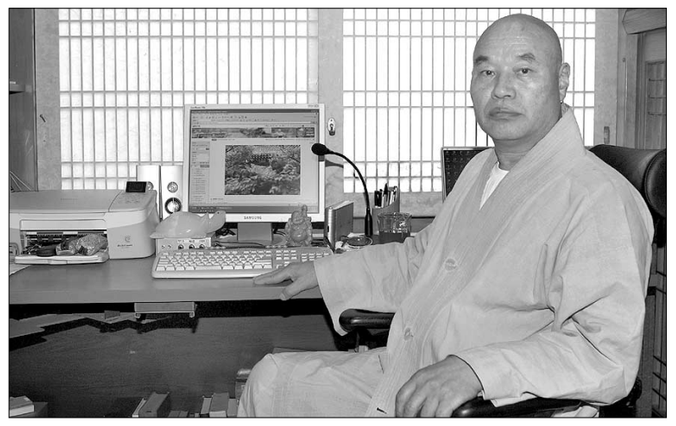
가선 선사 "세상인연 다 못했다" 서신 남기고
태수 핍박 못이겨 입적…곽씨네 아이로 환생

메뉴 120여개 … 인터넷 경전의 바다

무비 스님의 인터넷 카페 '염화실'

경전을 공부하고 싶은데 불교대학이나 절에 갈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막연히 경전만 들여다보고 있자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은 욕심은 버리기 어렵고….

경전공부를 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그것도 손쉽게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에 개설돼 있는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이 그곳이다. 前 조계종 교육원장무비 스님이 개설한 염화실은 현재 6000명이 넘는 회원이 공부하고 있는 '경전 도량'이다.



인터넷 '염화실'을 통해 각종 경전을 강의하는 무비 스님. 스님은 "법공양이 최상의 공양"이라며 염화실에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 염화실 불자들

공무원인 우해 거사(56 · 서울)는 일찍 출근해 염화실에서 간략하게 경전을 공부한 뒤 업무를 시작한다. 점심을 서둘러 먹고 남은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업무가 끝난 뒤에는 다시 염화실에 들어가 그날 저녁에 공부할 내용을 프린트해서 집으로 가져간다.

사업을 하는 현산 거사(50 · 부산)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염화실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경전을 본다.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염화실에서 여러 경전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본다. 바빠서 무비 스님의 인터넷 강의 시간에 맞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염화실에 올라온 강의 재방송은 빠짐없이 본다.

묘운행 보살(48 · 부산)은 무비 스님의 인터넷 강의를 듣다보면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강의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감하고 반성하면서 얻어지는 후련함에 강의를 빠뜨릴 수가 없다.

건설업체 대표인 묘진 거사(55 · 수원)는 염화실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일지경'이라는 잡지 발간을 위해 사무실 한구석에 아예 편집실을 차렸다. 불교에 입문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전공부를 하면서 전법을 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됐다.

부산의 초 · 중 · 고 불자교사모임인 '청림회' 총무를 맡고 있는 보현심 보살(55 · 부산)은 염화실에 올려져 있는 경전강의 내용을 틈틈이 공부하면서 염화실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현심 보살은 "이해하기 쉽고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 강의 최고 인기

염화실은 경전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페에는 모두 120여개의 메뉴가 구성돼 있을 만큼 많은 경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고 있다. 염화실에 들어가면 항상 20~30명의 회원들이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열의가 높다.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유마경> <육조단경> 등 각종 경전에 대한 무비 스님의 강의는 물론 범어사 강사인 용학 스님의 <대승기신론> 등 여러 스님들의 경전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일타 스님의 <발심장>, 고우 스님의 <선요>, 통광 스님의 <선교결>,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 등 내로라하는 스님들의 강의도 올라와 있고, <임제록> <신심명> <증도가> 등도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염화실 방송국 코너에서 <금강경> <대승찬> <법화경> 등 그동안 무비 스님이 했던 인터넷 강의 내용이 법문 · 녹취 · 자료 형태로 올라와 있다. 도반들의 광장 코너에는 염불과 독경 등 기초교리 외에 한문과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는 메뉴와 회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다.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무비 스님의 인터넷 강의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40여 분 동안 진행된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니터상에 대화창이 뜨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무비 스님이 강의를 하면서 답을 한다.

> 초보~포교사까지 수준별 강의 마련
> 시 · 공간 제약없어 직장인들에게 유용
> 6000여 회원 묻고 답하며 '구법삼매'

무비 스님은 "염화실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 말씀을 공부하는 정법구현의 장으로, 법공양이 최상의 공양이라는 생각에서 염화실을 개설하게 됐다"며 "이번 동안거 결제에 맞춰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강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런 점이 좋다

염화실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우선 직장인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짬을 내서 공부하기에는 인터넷 도량만한 곳이 없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염화실의 장점이다. 하나의 경전이라도 초보불자, 포교사, 대학교수 등 수준에 따라 강의했던 자료가 있어 원하는 내용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를 시간에 맞춰 듣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날 재방송 내용이 카페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용이하다.

자신이 원하는 경전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염화실만의 특징이다. 워낙 많은 경전내용이 올라와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다. 또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게시판이나 도반들의 광장 등에 올려놓으면 무비 스님과 카페 회원 스님들은 물론이고 같이 공부하는 회원들도 움을 받을 수 있어 초심자가 공부하기에 적당하다. 특히, 글자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법문이 곁들여진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자들이 쉽게 공부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강의 논조의 일관성은 불자들에게 정법을 일깨우는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경>의 경우 무비 스님이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최근 인터넷 강의를 한 것 등 시대별로 몇 가지 강의가 있는데, 어떤 강의든 정법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보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보살행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비 스님의 경전 연구모임인 문수회 총무를 맡고 있는 장인옥 보살(61)은 "강의 내용을 오디오 테이프와 책으로 만들어 전국에 법공양하면서 호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최고의 선물
총 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털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바 감 재 경화마루,장판 등등
NF보드보강 3~5mm(특별시공)
발열필름 0.25mm
2차단열 5~8mm아티본
1차단열 아이스윔패크 10mm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비 (1일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108,000 / 152,000 / 198,000 / 262,000 / 387,000 / 445,000
심야전기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등 유 구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지도교사들이 말하는 어린이 법회의 '오늘과 내일'

교사 전문성·사찰의 투자가 성공요건

'어린이포교'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불교계에 가득하다. 그러나 포교의 최일선에 선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은 아직도 열악한 대우와 낮은 보수를 받으며 '자원봉사' 수준으로 법회를 지도하고 있다. 한 달 내내 법회를 지도해도 10만원 남짓의 보수를 받을 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은 법회지도를 생업으로 삼을 수 없다. 대신 주중에 직장을 다닌다. 어린이법회를 위해 주말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중에도 직장 일을 끝마치고도 시간을 쪼개 어린이법회 운영 노하우를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스스로 어린이법회를 더 잘 이끌기 위해 자신을 탁마하는 것이다.

11월 22일 저녁 9시,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의 '불교어린이지도사 과정' 교육이 한창인 서울 조계사교육관 강의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했다. 수강생 중 8명이 현재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교사들이다. 이들이 어린이법회의 현실과 미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계획하는 실질적인 현장 전문가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론을 배울 기회가 적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운영하는 '불교어린이지도자과정'에 등록한 수강생 중에는 어린이법회를 이끄는 지도교사도 적지 않다.

전통놀이·교리 등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눈높이 법회' 돼야
아이들이 법당에서 떠들어도 따뜻하게 대하는 열린마음 필수

#어린이법회를 지도하게 된 인연과 경력

박정미=부산 여여정사에서 2년여 간 어린이법회를 진행했다. 부산은 어린이법회 연합조직 활동이 활발해서 법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돼있다. 이후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면서 조계사 법회 지도교사로 자원했다. 맡은 지 6개월 정도 됐다.

김지선=대학교 여름방학 때 사찰 여름불교학교 간사로 참가했다가 함께 참가한 불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사찰 청년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청년회에 어린이법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접수되면서 지도교사로 자원했다. 지도교사가 된지는 3개월째다.

최용훈=어릴 때부터 어린이법회에 참석했다가, 이후 청소년법회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 보조간사로 투입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법회 보조간사 활동을 거쳐 현재는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간을 쪼개 공부하는 이유

전소영=오늘날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한나절동안 아이를 맡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불교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과거와는 달리 부모의 이혼이나 학우들 사이의 따돌림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를 가르치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대한불교교사대학에 수강신청을 했다.

최용훈=오래도록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를 다녔지만 막상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기초교리가 너무도 부족했다. 아이들을 지도할 교리적 바탕이 필요했다.

최지영=준비 없이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투입됐는데, 법회를 거듭할수록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또 캠프파이어 같은 다양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실무적 기술도 배우고 싶었다.

이시영=요새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노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전통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불교놀이를 익히고 새로운 놀이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다.

#어린이법회가 새로워지려면?

김지선=법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교사대학 커리큘럼도, 옥천암 주지스님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많이 배워오라'고 격려하며 학비를 전액 지원한 덕택에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성은지=요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에 쫓겨 놀 시간이 없다. 우리 사찰에는, 7살인데 학원을 10군데나 다니는 아이도 있을 정도다. 이런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오고 싶은 사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놀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아이들이 사찰에서 떠들고 장난쳐도 눈감아 줄 수 있는 협조와 '열린 마음'이 필수적이다.

#사찰에 바라는 점

최용훈=사찰에서조차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잡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짐 나르기와 사소한 자원봉사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대소사에 동원되다보면 정작 법회에 집중할 수 없다.

홍수연=지도교사가 예산안과 기획안을 짜서 올리면 매번 주지스님, 지도법사스님, 종무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며 충돌이 일어난다. 스님과 종무원들은 예산을 어떻게든 적게 잡고 싶어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사찰에서도 공부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교사가 세운 애초의 뜻이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면 허탈하다.

박정미=사찰에는 사중행사가 무척 많다. 그런데 사중행사가 어린이법회 프로그램과 겹칠 경우, 예정돼있던 어린이법회 일정부터 먼저 취소되곤 한다. 사찰의 배려가 아쉽다.

성은지=다른 무엇보다도, 어린이법회 지도교사가 '어린이법회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방담참가 지도교사

최지영(광명 금강정사 지도교사), 박정미(서울 조계사 지도교사), 성은지(서울 법화정사 지도교사), 김지선(서울 옥천암 지도교사), 최용훈(서울 영화사 지도교사), 전소영·이시영·홍수연(서울 봉은사 지도교사)

탐방

명지대 불교학생회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30여 기독 동아리 틈 활발한 활동… 소모임 운영·회지도 발간

"명지대는 기독교 학교라서 공식적인 기독교 동아리만 30개예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더니 목사 교수님들이 나와서 기독교 동아리만 소개하더군요."

명지대 불교학생회는 1983년 창립한 이후 기독교 학교인 명지대 안의 단 하나뿐인 불교학생회로 꿋꿋이 23년을 포교해왔다.

처음에는 서럽기도 했지만 "나도 사실은 불자"라며 하나 둘 찾아오는 불자들을 만날 때의 뿌듯함은 무엇에도 견주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유난히 단결이 잘된다. 졸업해서도 해마다 창립제에 참석하고 아이 손을 잡고 행사에 올만큼 동문들의 '명불회' 사랑도 지극하다.

현재 100여명에 이르는 동문회원들은 행사 때마다 꼬박꼬박 돈을 모아 후원금을 보내온다.

긴 역사, 오랜 시간 형성된 단결력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도 명불회의 자랑거리다. 1월 신입회장단 L·T로 시작해 5월 대동제, 6월 동문 체육대회, 9월 모꼬지 등에 이르기까지 달마다 행사를 열어 친목을 다지고, 불교학생회로는 드물게 내부 소모임도 운영한다.

현재 일본어공부 소모임과 기타연주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기에 두 번씩 회지도 발간한다.

이렇게 타 불교학생회가 부러워할 만큼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처음 명불회를 설립할 때 학교 측의 반대가 심해 채플실을 찾아가 목탁을 두드리며 발원기도를 했던 일화는 이제 전설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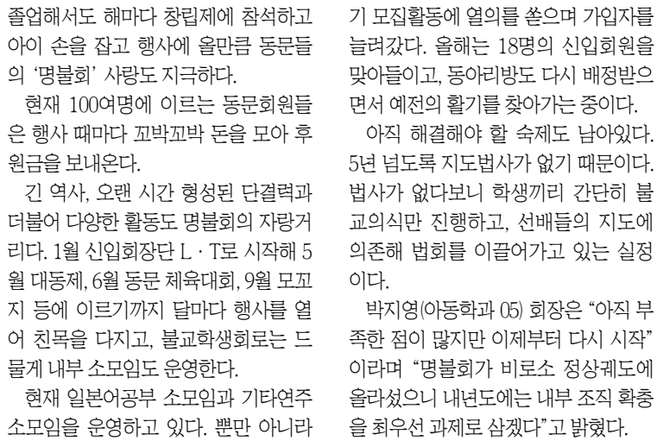
그러나 2004년 한때 법회 참석자 수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회원 수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총학생회가 동아리방을 회수해가, 1년여 간 동아리방도 없이 셋방살이를 하면서 명불회는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후 동문과 재학생 할 것 없이 새내기 모집활동에 열의를 쏟으며 가입자를 늘려갔다. 올해는 18명의 신입회원을 맞아들이고, 동아리방도 다시 배정받으면서 예전의 활기를 찾아가는 중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5년 넘도록 지도법사가 없기 때문이다. 법사가 없다보니 학생끼리 간단히 불교의식만 진행하고, 선배들의 지도에 의존해 법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영(아동학과 05) 회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명불회가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라섰으니 내년도에는 내부 조직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23년 역사의 명지대 불교학생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법회를 연다.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 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1일 1끼 40g 1포×60포 60,000원
★청국장 분말(우리콩) 1Kg 20,000원
★청국장 환(우리콩) 1Kg 25,000원
▣ 치료식
▣ 건강식
▣ 발아생식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실습위주!!!
사암침술 강좌
▶ 과 정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과 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 강 * 서울 : 2006. 12. 4 (월·화·반) * 부산 : 2006. 12. 10 (매주 일요일)
책임지도!!! 저자직강!!!
맥진 전문가 과정
① 경락진단법
② 황제내경 맥진법 * 음양 맥진법 * 3부 맥진법 * 복진과 배진법 * 암진단 방법
③ 장부허실증 판단 ④ 맥 조절법
명리 전문가 과정
매화 역수 전문가 과정
자연의학센타 051)862-7579, 011-865-5093
부산진구 양정2동 지하철1호선 양정역 8번 출구 인제B/D 501호
사암침술학회 02)747-9136, 011-307-2975
서울특별시 종로3가 국민은행 4층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 교육장소 :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 2006년 12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 김재일 법사
6. 교 재 :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 입 학 금 : 90,000원(3개월)
8. 지원자격 :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8> 참아내는 마음이 없다면

앞장에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허물이며 가장 나쁜 일이므로 온갖 장애가 생긴다고 하였다. 올바른 법을 듣지 못함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장애, 삿된 소견을 좋아하여 험하고 나쁜 길로 떨어지는 장애, 몸에 병이 많이 생겨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 지혜가 모자라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와 같은 것들을 성낸 과보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성내는 마음을 돌이켜 '참아내는 마음'이 필요하다. <선가귀감> 48장에서는 '참아내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若無忍行 萬行不成

만약 참아내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뛰어가다 멈추기를 세 번,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칼을 거두어 자세히 일의 앞뒤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세간에서도 "참을 '인(忍)'을 세 번 생각하면 죽을 일도 모면한다"고 한다.

또 "백 번 참고 사는 집에 큰 평화와 행복이 깃든다[百忍堂中 有泰和]"라는 말도 있다. 중국 당나라때 장공예(張公藝)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자손들이 한 집에 수백 명 살고 있으면서도 온 집안은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였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아홉 대물림을 하였다. 그 모습에 감동 받아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장씨에게 물었다. 장씨는 말없이 참을 '인(忍)' 글자를 백 번 써 보였다고 한다. 이 '참아내는 마음'이야말로 아홉 대에 걸쳐 모든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이었다.

원문의 인행(忍行)은 인욕(忍辱)의 행(行)으로서 어떤 곤란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고 참는 마음이다. 보통 인욕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복인(伏忍)'은 어떤 곤란이나 역경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이 남아 있지만 안으로 숨기고 바깥으로 그 마음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다. 둘째 '신인(信忍)'은 '인욕'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셋째 '순인(順忍)'은 깨달음의 길을 따라 가며 모든 역경을 참아내고 생멸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넷째 '무생인(無生忍)'은 모든 망념이 사라져 모든 법이 다 생겨날 것이 없음을 앎으로써 '인욕'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적멸인(寂滅忍)'은 모든 망념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 텅 빈 충만 그 자체로서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이니 '인욕'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으로서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行門雖無量 慈忍爲根源 忍心如幻夢 辱境若龜毛.

수행 방법 셀 수 없이 많이 있어도 / 자비인욕 그 마음이 뿌리가 되니

참는 마음 꼭두각시 꿈을 꾸는 일 / 욕을 보는 이 현실은 거북이의 털.

자비 · 인욕은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
'나'라는 실체 없어 경계 사라지고 역경 없어

'자비(慈悲)'에서 자(慈)는 온 중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여 모든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고, 비(悲)는 중생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타깝게 여겨 그 근원을 뿌리 뽑아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보통 자비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생을 인연하여 베푸는 '중생연자비(衆生緣慈悲)'이니, 모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참는 마음이다. 보통 인욕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복인(伏忍)'은 어떤 곤란이나 역경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이 남아 있지만 안으로 숨기고 바깥으로 그 마음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다. 둘째 '신인(信忍)'은 '인욕'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셋째 '순인(順忍)'은 깨달음의 길을 따라 가며 모든 역경을 참아내고 생멸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넷째 '무생인(無生忍)'은 모든 망념이 사라져 모든 법이 다 생겨날 것이 없음을 앎으로써 '인욕'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적멸인(寂滅忍)'은 모든 망념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 텅 빈 충만 그 자체로서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이니 '인욕'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으로서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行門雖無量 慈忍爲根源 忍心如幻夢 辱境若龜毛.

수행 방법 셀 수 없이 많이 있어도 / 자비인욕 그 마음이 뿌리가 되니

참는 마음 꼭두각시 꿈을 꾸는 일 / 욕을 보는 이 현실은 거북이의 털.

'자비(慈悲)'에서 자(慈)는 온 중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여 모든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고, 비(悲)는 중생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타깝게 여겨 그 근원을 뿌리 뽑아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보통 자비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생을 인연하여 베푸는 '중생연자비(衆生緣慈悲)'이니, 모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베푸는 자비로서 범부들이 일으키는 자비이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번뇌가 아직 숨어 있는 수행 초기단계의 자비이다. 둘째 법의 이치를 인연하여 베푸는 '법연자비(法緣慈悲)'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공(空)임을 깨달아 무아(無我)의 이치로써 베푸는 수행 중간단계의 자비이다. 셋째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베푸는 '무연자비(無緣慈悲)'이니, 온갖 차별을 멀리 떠남으로써 분별이 없는 마음에서 베풀어지는 절대평등 부처님의 자비이다. 이 자비는 범부나 성문연각 보살이 일으킬 수 없는 자비이므로 대자대비(大慈大悲)라고도 한다.

인욕은 어떤 곤란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고 참아내는 마음이다. 마음을 닦아 '깨달음'에 들어가고자 수행하는 방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도 자비와 인욕이 그 근본이 되어야 올바른 수행이 된다.

부처님의 자비와 인욕은 주객(主客)이 사라져 텅 빈 충만 그 자체로서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마음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主)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지 않으므로 '나'라는 주체로써 '참아내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경계'가 사라지므로 객(客)인 어떤 경계로서 곤란이나 역경이 있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참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꼭두각시가 꿈을 꾸는 것과 같고, 어떤 곤란이나 역경으로서 고통을 겪는 이 현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북이의 털과 같다. 언제나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주객이 사라진 이 자리는 옳을 것도 없고 그를 것도 없으며, 낮은 곳도 없고 높은 곳도 없다.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써 오가는 인연에 집착 없이 세상을 통찰해 부처님 삶으로써 어떤 곤란이나 역경에도 영향 받지 않는 것이 '적멸인(寂滅忍)'으로서 올바른 '인욕'이다. 이런 지혜가 생긴다면 욕심내고 성낼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욕심이 없고 성내는 마음이 없이 모든 경계에서 인연 따라 중생을 자식처럼 아껴주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무연자비다. 중국의 부대사(傅大士)는 게송으로 말한다.

忍心如幻夢 辱境若龜毛 常能作此觀 逢難轉堅牢 無非亦無是 無下亦無高 欲滅貪瞋賊 須行智慧刀

참는 마음 꼭두각시 꿈을 꾸는 일 / 욕을 보는 이 현실은 거북이의 털 / 언제나 이런 경계 볼 수 있다면 /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다.

그른 것도 옳은 것도 없는 것이고 / 낮은 곳도 높은 곳도 없는 것이니

욕심내고 성난 마음 없애려 하면 / 모름지기 바른 지혜 닦아야 하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탁발(托鉢)

불교의 나라, 태국. 최근 남부지역 스님들이 무슬림 분리독립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때문에 탁발을 잠정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남방불교권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스님들이 줄을 지어 탁발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잖습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탁발은 발우, 그러니까 스님들이 '밥그릇'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는 의식입니다. '걸식(乞食)' '두타행(頭陀行)'이라고도 합니다. 두타행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수행으로, 청빈한 생활과 무소유의 생활을 뜻합니다. 걸식을 통해 자신의 아만심을 없애버림과 동시에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기 위해 탁발을 하는 겁니다.

탁발은 초기 인도불교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스님들은 하루 한 끼 오전에만 공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찰에서 직접 밥을 지어 공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체로 마을로 가서 밥을 얻어 가지고 와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오전에만 탁발을 했을까요? 인도는 오후가 되면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덥습니다. 폭염이 내리쬡니다. 그래서 오전으로 탁발을 한정한 겁니다. 물론 수행은 오후 시간대에 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불교권 스님들이 발우를 옆구리에 끼고 하루 한 끼 오전에 걸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불교가 중국, 한국 등지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풍토와 습관에 따라 탁발의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고요한 마음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2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9강 먼지이면서 먼지가 아닌

불꺼진 화로, 먼지덮인 사당

혜능의 해석이 '실천적' 혹은 체험적 지평을 철저히 고수한다고 한 바 있다. 지금 13장의 "먼지는 먼지가 아니다. 그래서 먼지라고 한다."를 두고 한 혜능의 해석은 이렇다. "이 말은 념념이 반야바라밀을 올바로 수행함으로써 뿌옇게 어지럽던 상념과 천방지축하는 의지의 파편들이 차분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즉, '그래서 더 이상 먼지는 없다!'는 뜻이다."

먼지는 먼지가 아니다

말은 즉 그러하나, 실지(實地) 여기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다. 밖을 향해 허덕대기를 멈추어야 하고, 밖으로부터 받는 자극에 초연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평판이 곧 자원인 사회에서 자극에 초연하기는 정말 어렵다.

여기 외람되지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 욕망도 먼지도 제거하려고 들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지눌 스님도 <수심결>에서 "풀을 돌로 누르듯이 망념을 제거하려들지 말라. 그만큼 위험한 시도가 다시 없다"고 경계하셨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내 생각에 세 가지 길이 있다. 1) 욕망이나 먼지나 앞뒤 차단하고, 그 관성을 성찰하는 혜능식 '좌선'을 통해 먼지는 가라앉는다. 지관타좌(只管打坐), "다만 앉으라." 2) 두 번째 길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경쟁적이지 않은 길을…. 사람을 피곤하지 않게, 세속적 가치와는 다른 이를테면 예술적 가치나, 보람을 주는 일을 찾아 거기 매진하는 것…. 남들이 하찮게 여겨도 좋다.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삶을 몰두할 때, '그 자체로' 즐겁고 보람있을 때, 거기가 곧 열반이고, 자유다. 이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시나 헌신,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도 들어있다. 3) 세 번째가 종교적 전향이다.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주는 행복은 세속의 물질이 한시적이고 타자적인데 비해, 그리고 그 '물질'들이 쉬 효용이 떨어지거나 자기파괴적이기 쉬운데 비해-쇼핑 중독같은 것, 마약이나 과도한 성(性)적 방종, 권력에 대한 맹목적 집착같은 것이 그렇다-이 영혼의 기쁨은 내면의 안정에서 외면과 타자로 펼쳐가는 잔잔한 명상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전체에 휴식을 제공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 힘이 동심원으로 물결치고, 교제하면 어느덧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 힘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고, 한꺼번에 세상 전체를 물들이고 바꾸어놓는다.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믿지 않는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가령 정현종의 시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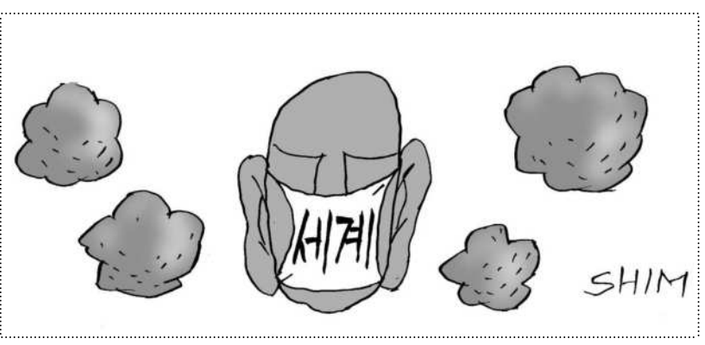
이 셋을 동시에 추구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 틀림없다. 문제는 다시 훈련이다.

그래서 먼지라 한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하는 삶이 될 것인가. 상념도 없고, 의지도 없이…. 그렇지 않다. 조주는 최고의 경지로 "불꺼진 화로, 먼지덮인 사당"을 읊는 제자의 자부에 혀를 끌끌 찼다. "쯧,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는 스승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배반했다"라고 했다. 파자소암(婆子燒庵)의 충격적 화두를 기억할 것이다. 어느 노파가 딸과 함께 수도승 하나를 키웠다. 10년을 밥을 해 먹이고 봉양했는데, 그 릇이 얼마나 커졌나 싶어 딸을 방으로 들이밀었다. 방을 나선 딸에게 물었다. "너를 안을 때 느낌이 어떻다고 하더냐." "마른 고목을 껴안고 있는 것같다 합디다." 노파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내, 이런 땡중을 위해 10년을 내다바치고 허비하다니…." 질탕한 상상력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답도 삼간다. 화두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불교가 선이, 노리는 목표가 인간의 자연스런 정감이나, 정상적 감각활동, 의식적 판단을 통한 행동을 무조건 제거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매우 위험한 함정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 하나이다. "여인을 끌어안아서도 안되고, 밀쳐서도 안되는" 이 딜레마가 선이, 그리고 당신이 실천적으로 풀어내야할 화두이다.

각설, 그러므로 "먼지는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 먼지가 해방으로, 그리하여 보탬으로 활동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불교가 설정한 이념, 즉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그때 먼지는 '내게' 자기의식적 에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아(無我), 의도와 콤플렉스가 배제된 형태의 정결한 의욕이 활약하는 곳, 여기가 바로 "그래서 먼지라고 한다"는 자리이다.

먼지가 아닌 것과 먼지가 있는 곳의 두 단계 스텝을-실지로는 한 스텝인데- 눈여겨 보아주시기 바란다. 혜능의 해설을 다시 인용한다.



(혜능 13-3)

"如來說, 衆生性中妄念, 如三千大千世界中所有微塵, 一切衆生被妄念微塵, 起滅不停, 遮蔽佛性, 不得解脫. 若能念念眞正修般若波羅蜜, 無著無相行, 了妄念塵勞卽淸淨法性. 妄念旣無卽非微塵, 是名微塵. 了眞卽妄, 了妄卽眞. 眞妄俱泯, 無別有法. 故云, 是名微塵. 性中無塵勞卽是 佛世界. 心中有塵勞卽是衆生世界. 了諸妄念空寂, 故云非世界. 證得如來法身, 普現塵刹, 應用無方, 是名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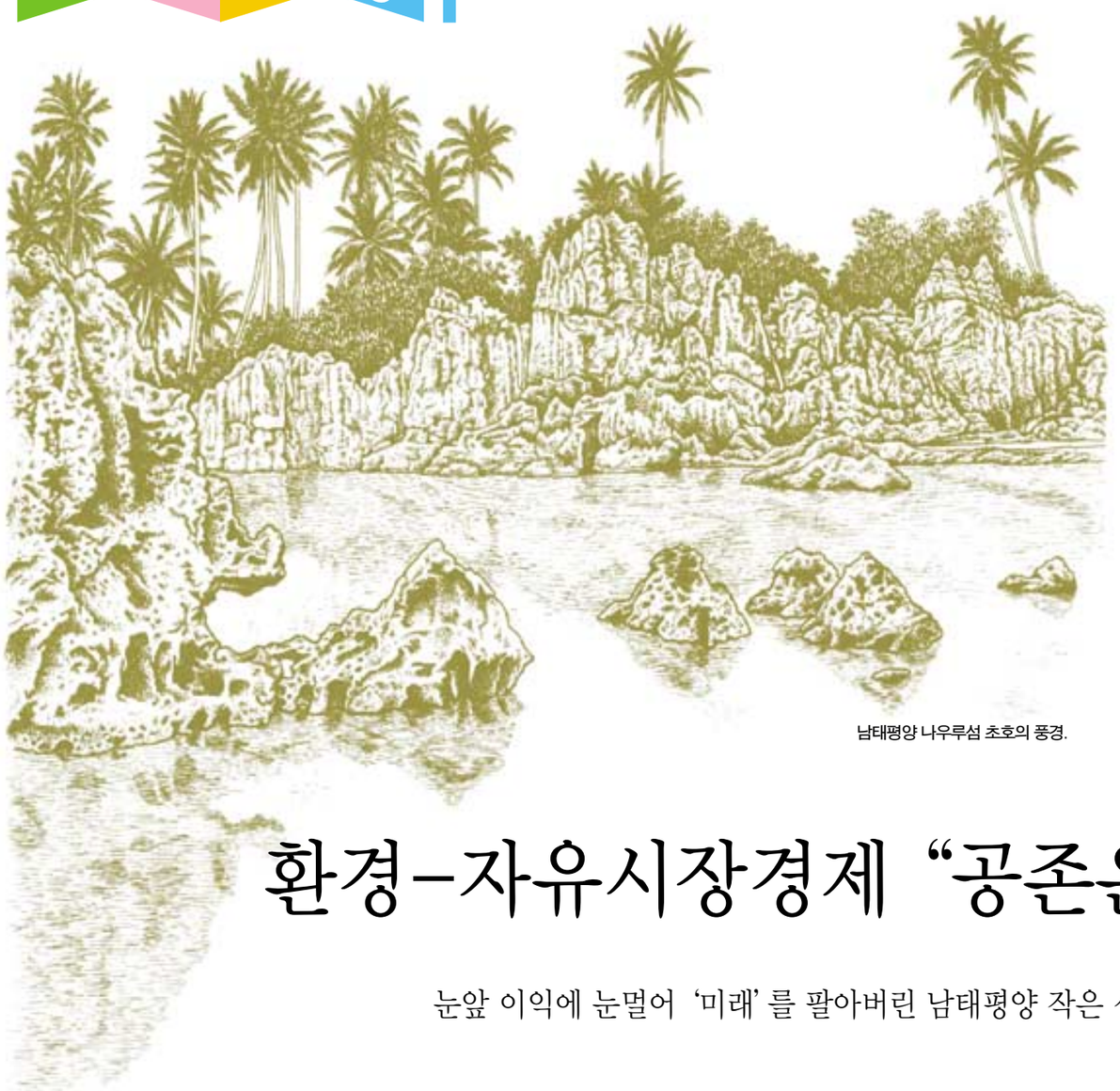
"여래가 말씀하시길, 중생들의 몸(性) 안에 있는 망념들은 삼천대천세계 안에 들어찬 먼지들같다고 했다. 중생들은 예외없이 망념의 먼지들을 덮어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스러지며 불성을 가로막고 해탈을 방해한다. 만일 념념이 반야바라밀을 올바로 수행하고, 무착(無著) 무상(無相)의 행(行)을 닦아 나갈 수 있다면 먼지처럼 뿌옇던 망념들이 어느덧 청정한 법성망념이 공적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한다'고 했다. 여래법신을 증득하여 널리 수많은 세계에 자유롭게 나투길래, '이를 세계라고 한다'고 했다."

먼지로 만든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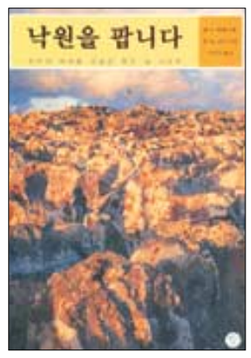
여기 '세계'는 먼지들의 집적물, 혹은 결과물이다. 내 의식의 수많은 뿌연 먼지들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이다. 이것은 자기의식의 상관물이기에 객관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선 삼계유식(三界唯識)이라 외친 것도 바로 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보통사람은 잘 자각하지 못하는 사태의 체험적 확신이었다. 고로, 먼지가 없으면 세계는 자신의 모래성, 신기루를 허문다. <금강경> 맨 마지막에 적은 "꿈같고, 그림자같고, 물거품같고, 이슬같고, 번쩍이는 순간같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 바로 이 소식을 재삼 확인해 주고 있다. <화엄경>도 따라 말한다. "마음이 생기면 종종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는 곳에, 종종의 법이 사라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으로 하여 출몰하는 법의 총체적 상(相)인 세계가 사라진다.

여기 유의할 것이 있다. 상(相)이 사라진다는 것은 심리적 구성물의 해체일 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과 공기, 햇빛과 바람, 그리고 나와 더불어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공동체까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實際)한다. 그 속에서 내 먼지와 내 세계로 하여 족쇄되었던 것들이 우르르 감옥문을 열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혜능은 <금강경>이 지금 말하는 "그래서 세계라 한다"는 뜻의 깊디깊은 의미라고 전해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남태평양 나우루섬 초호의 풍경.



낙원을 팝니다 (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
존 M. 고디, 칼 N. 맥대니얼
이섬민 역 | 여름언덕|9800원

환경-자유시장경제 "공존은 없다"

눈앞 이익에 눈멀어 '미래'를 팔아버린 남태평양 작은 섬 나우루

먼 옛날 인류가 자급자족하던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만으로도 살아 갈수 있었다.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고 생물들도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 발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류가 자원을 개발하면서, 생태계는 파괴되어 지구의 숲은 3분의 1만 남았다. 사람들이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유해가스와 오염물질을 방출해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최근 지구가 6억년 중 여섯 번째 대멸종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증거는 널려 있다. 다만 인간의 수명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대멸종이 닥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닥치느냐는 것이다.

<낙원을 팝니다(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에서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작은 섬 나우루와 지구의 문제점들을 빗대어 말하며, 지구의 생성과 파멸, 인류의 개발로 지구가 처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한다.

나우루 섬의 이야기는 힘, 개발, 탐욕,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팔아버린 가슴 아픈 이야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다.

나우루 사람들은 서구인들에게서 글로벌 시장 경제게임을 배우고 자신들도 뛰어들었다.

나우루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지구 전역에 흩어진 여타 수많은 사례들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파괴시킨 환경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자연과학의 관점에 비추어 이러한 궤적들을 연장할 때 예고되는 것은 파멸이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환경파괴 사례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계관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문명을 뼛속까지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듯 하다. 우리 스스로 나우루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2000년 이상 나우루인들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 생태적 안정을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나 1900년 농업에 필수적인 인광석이 발견되면서 나우루는 세계 시장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나우루를 점령한 강대국들은 인광석을 채굴하며 섬을 황폐화했고 그곳의 사람과 환경을 영원히 바꿔버렸다.

1968년 나우루인들은 독립을 얻자마자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섬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아 있는 40년 매장량의 인광석을 채굴하며 섬을 파괴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 댓가로 섬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다.

과거 서로 수확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의 수확물을 일정 부분 주고 서로 그 수확을 축하하며 몇날 며칠을 축제로 즐거워하던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총이 반입되면서 일시적 분노로 추장을 죽이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 밀려들어온 기독교는 나우루의 옷차림과 전통관습을 일일이 간섭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약속된 40년이 지났다. 섬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버렸다. 나우루의 풍요를 보장하던 인광석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인광석을 팔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입하던 나우루는 이제 주변의 원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나우루라는 평화로운 섬이 인광석으로 인해 세계 시장이라는 지독히 이기적인 환경에 휩쓸려가면서 스스로의 장점과 특색이 파괴되고 짓밟히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저자는 말한다. "나우루의 문제는 바로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같다"고.

나우루는 환경과 맞서면서 번영하는 자유 시장 경제의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이나 환경 보존은 현재의 경제 원칙과 공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저자인 칼 N. 맥대니얼과 존 M. 고디는 미국 뉴욕 북부 렌셀리어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의 생물학과 교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 강추

病 받아들이기까지 7년이 걸렸다던 그녀는 …



모든 여자의 이름은 최영숙 지음, 창비

오늘, 또 하나의 죽음과 나는 만난다. 아직은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것이 많은 43살에 한명의 딸과 죽음을 예감하는 서글픈 시를 남기고 떠난 그녀의 이름은 '최영숙'이었다.

병이 자신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는 자그마치 7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고. 7년은 한 맺힌 여인이 되어 백련사 우물가에 대고 '아, 소리 내어' 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세상 모든 엄마는 극복의 대상이지'라며 자신을 지배한 병마가 제발 딸만은 지배하지 않길 기도하는 모습이라니…, 마지막 시 '소 잡는 날'에서는, 누군가의 '배부른 평화', '기름진 미소'를 위한 하나의 희생에서는 병을 넘어선, 능동적인 자기 파괴의 기운까지 느껴진다. 그녀의 죽음이 살아있는 이들에겐 하나의 축제가 되길, 병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일기를 태우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초월해 이제는 죽음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려는 담담함 같이 여겨졌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누구나 죽는다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그녀는 '거리에 알몸으로 선 내게 돌을 던져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테니 말이다. (quartz2, 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산 자와 죽은 동물의 영혼 달래는 수렵 신화



○…샤머니즘은 인류라는 종의 자각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에 태어난 인간의 정신적 노력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조상에게 있어 죽음은 최초의 스승이자 고통이었으며 그들이 알고 있던 생명이 다하는 끝자락인 동시에 불가사의함이 시작되는 경계였다.

종교란 신비로움으로 융성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수렵으로부터였다. 그들이 가장 숭배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동물들을 살기 위해 죽여야만 하는 사실을 인간의 입장에서 합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수렵의 신화는 사냥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고, 산 자와 죽은 동물의 영혼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원시의 사냥꾼들을 몸져눕게 했던 중병은 평상 생활의 불길한 와해로서 광기와 절망을 불러오는 죽음의 조짐이었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이탈에 익숙해지는 것과 병과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 최초의 지적, 정신적 작업이었다.

-<시간 밖의 문명> 본문 178쪽에서, 웨이드 데이비스 지음, 무우수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지도자 어디 없소?



○…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일찍이 "가장 강한 종족은 오로지 변화에 제일 민감하게 적응할 줄 아는 종족이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변화에 대처할 줄 모르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퇴출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미래의 지도자는 도덕성 청렴성 개혁성과 함께 얼마만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지니고 있는가가 더욱 큰 평가기준이 되리라는 점이다.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사람이 아니고선 이 시대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시대를 앞서가되,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은 중도적 인물 △진보적이되, 균형감각을 지닌 양식 있는 인물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인물 △국민복지-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소신으로 어려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인물이야말로 지도자가 지녀야 될 필수적인 조건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엽기공화국 자화상>본문 19쪽에서, 윤재걸 지음, 한국정치인물연구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창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효 또는 144효)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이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자미두수 CD

삭망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자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윤,
2006년 3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자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부처님, 어떻게 해야 큰 부자가 됩니까?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못 끊고 운동을 게을리 하고, 제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내가 산책을 나가면 만나는 중풍환자가 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연습을 한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꾸준히 노력한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인사를 하니 그는 "이만한 것도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건강한 삶의 한 모습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돈만 많은 부자보다 더 값진 부를 누릴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법 中에서>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이 말하는

부처님 법대로 실천해 잘사는 법 99가지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법구경> 안락품에서 이렇게 일러준다.

'병 없이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신뢰가 두터운 것이 가장 좋은 벗이요, 열반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현재 불교방송 'BBS 초대석'을 진행하고 있는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사진)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살기를 발원하며 우리들 삶의 문제를 99가지로 정리했다.

<잘사는 법 99>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여 해답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아함경>과<법구경>등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골라 '일깨움'을 준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현대인들의 고민은 다양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망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저자는 26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에서 살 빼는 법, 재산관리법, 돈 벌고 쓰는 법, 사랑하는 법,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등의 해답을 찾아냈다. 그리고나서 부모처럼 스승처럼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답을 들려준다.

또 주제마다 저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문제와 고민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즉 독자들에게 그 상황을 물음으로써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묻지 않고, 주로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 또는 일화를 통해서 물음을 풀어간다. 마지막으로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읽어볼 만하다.

최정희 前 국장은 "지금의 시대와 부처님 당시 시대 상황이 다르고, 고민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 부처님 말씀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확실한 해답을 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잘사는 법 99
최정희 지음
우리출판사 | 8000원

"운주사는 장보고 추모 유적지"

천년의 비밀 운주사 최홍 지음 | 바보새 | 1만2000원



우리나라 최고의 불가사의로 꼽혀 온 전남 화순 운주사.

운주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천불천탑의 성지'가 아니고, 우리의 걸출한 해상왕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유적지라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서 운주사가 불가사의로 남았던 것은 장보고가 역사에서 대역죄인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내막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까지 제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책의 구성은 총 5부로 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 최고, 최대의 불가사의 운주사' '장길산과 녹두장군에 등장한 운주사' '운주사 해석에 소홀했던 문인들'을 수록해 운주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본다.

2부 해독을 위한 제 1단계, 기존의 견해들에 대한 검토 편에는 '운주사 유적 조성에 대한 설들' '운주사 유적 조성에 대한 설화들' '설화들의 전반적인 의미' 등이 실려있다.

3부 해독을 위한 제 2단계, 운주사 유적들에 대한 해석 편에는 '와상(사진)은 장보고 부부?' '장보고의 추모유적이 고려 시대에 조성된 사유' 등을 설명한다.

4부 해독을 위한 제3단계, 방증 자료들에 대한 해석 편에는 '산동반도 적산원의 추석 명절' '백제탑과 신라탑의 공존'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

마지막 장으로 '장보고의 부(富)와 유적 조성 비용' '도선과 장보고' '운주사 유적은 도선국사가 설계' '해상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장보고' '장보고의 실책, 과연 실책이었는가' '청해진에 별도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장보고' 등의 내용이 흥미롭다.



저자인 최홍씨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북대 법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문인협회와 소설가협회 회원으로 다수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베팅 999>를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화투'는 스님이 만든 놀이였다?



천태종 대전 삼문사 주지이며 금강대 총무처장인 경천 스님(사진)이 산문집 <바랑속에 풍경소리> <묵향>을 펴냈다.

스님이 펴낸 2권의 산문집에는 수행의 일상사에서 부터 삶에 대한 통찰등 무거운 주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글쓰기도 시의 형식을 빌어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에세이처럼 경쾌함을 안겨준다. 다루는 내용은 몸담고 있는 도량인 광수사와 구인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명산과 암자, 멀리는 백두산 천지등을 오가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거룩한 진리 화토'에서 스님은 16세기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일본에 들어온 카루타가 변형된 것으로 알려진 화투는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랑속에 풍경소리 | 묵향
경천 스님 지음 | 중문출판사 | 각권 1만원

스님은 '화투'가 아니라 '화토'가 맞다며 삼국시대 화엄경전을 중심으로 세상 진리를 통달한 스님들이 만들어 행한 놀이를 화엄법회라 했다고 주장.

스님은 선인들이나 큰스님들은 선문답을 주고 받으며 세상진리를 12달에 12연기법의 내용을 화폭으로 48장 미타인행 48원(아미타부처님이 보살인행때에 닦은 48가지)에 담아 놓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원우 기자

역대 고승들의 법문 엮어

한국 큰스님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
윤홍식 지음 | 봉황동래 | 1만5000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우리 인생은 '나'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펼쳐졌으며, 모든 것은 '나'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나'를 모르고서는 '남'도 이해할 수 없고, 삶의 터전인 이 현상계도 이해하지 못하며, 영원히 현상계와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말 그대로 바로 '나'이니, '나'라는 존재 안에서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할 장소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밖에선 '나'를 찾을 수 없다. 오직 '나'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서 찾아라. 이것이 바로 모든 번뇌를 끊고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불교의 핵심이자, 이 책에서 초지일관 밝히는 내용이다.

한국의 역대 고승들의 법문을 통해 불교의 가장 핵심인 '참나(佛性)를 깨닫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한국의 풍토와 한국인의 정서에 더 맞는 새로운 '불교유신론'을 천명한다.

저자인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씨는 철학자이자 명상가이며 문명탐구가이다.

위빠사나로 팔정도 실천하기



부처의 길 팔정도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 오원탁 역
아름드리미디어
1만5000원

부처님이 갔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재가자도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빠사나 명상'과 '팔정도(八正道)'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대중적이고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스리랑카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이 펴낸 <부처의 길, 팔정도>는 팔정도를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은 위빠사나 명상 즉 알아차림을 이용하여, 팔정도의 여덟 단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쓴 점이 돋보인다.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 실천 수행해야 하는 여덟 가지 단계들을 제시했다. 이것이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특히 괴로움의 원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정신적 장애들을 극복하는 법 등 일상생활의 지혜들을 설명한다. 또 고통을 끝내는 법,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인 욕심과 화를 다루며, 바른 생계를 구하고, 부모와 자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애를 계발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바이로차나1	공파 스님, 1만원, 맑은소리맑은나라
· 관세음보살의 기도	정찬주, 9800원, 솔과학
·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	이태원, 2만5000원, 운주사
· 라마크리슈나	로맨 롤랑, 1만원, 정신세계사
· 새벽향기	이정우, 9500원, 씨앗을뿌리는사람들

도서주문 (02)2004-8219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 지안(志安)스님의"

신간

금강경이야기 머무름 없이 살라

"지안 스님의 끊임없는
간경과 정진이 함께 녹아있어
큰 감동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금강경 이야기,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구도심으로
지금 만나보십시오."

《지안스님》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
조계종 고시위원 및 교육원 역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30여년간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현재는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으로 승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반야경전교실, 반야불교학당을 개설
재가 불자들에게도 교학을 펴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은이/지안(志安)스님
정가/12,000원
판형/신국판 양장본 • 235쪽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 2198-5151 051) 244-1251

看話正路
간화정로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간화선이 우수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에 알리는데 지침서가 부족 했다면 간화정로는 해외에 선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설정스님(덕숭 총림 수좌)

월암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간화정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이 스님, 재가, 해외불자들에게 선 수행에 지침서가 되어 눈 밝은 납자가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영진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

간화선이 수승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롯이 수행을 일관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불교 학자들은 실참이 부족하여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정확한 간화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행과 학술적 근거를 겸한 간화정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간화선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글 월암 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혜안북스 (051) 244-1251 (02) 2198-5151

문학의 한장면 붓으로 畵하다



김덕용 作 '休-명상'. 고은 시인의 시 '휴식'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말 달렸던 세월 갔다고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 달릴 세월이 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쉬어라
그대 곁에 철쭉꽃도 피어나리라
한숨은 슬픔이 아니다
한숨 내쉬며 쉴 때
때마침 하늘 속 솔개도 둑 멈춰 쉬고 있다

진짜배기 휴식일진대 그것은 정신의 절정일 것

-고은 詩 '휴식'

'그림, 문학을 그리다' 展
내년 1월 30일까지 문화일보 갤러리

고은 김지하 박완서 등 우리시대 대표문인 42인 작품에
김덕용 · 류준화 · 박항률 등 화가 33인 다채롭게 붓질

펜으로 써내려간 문학의 한 장면이 붓칠을 더해 그림으로 변신했다. 검푸른 먹선이 구불구불 그려낸 바다와 꽃산, 그 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김용택 시인의 '내소사 가는 길'은 김범석 화백의 수묵화로 다시 한 번 진면모를 드러낸다. 고은 시인의 시 '휴식'은 서정적인 작가 김덕용의 '休-명상'으로 독자들과 소통한다.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작품 '내일의 노래'는 강승희, 김덕용, 한생곤 화백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어 비교해보는 재미도 으뜸이다. 김지하 시인의 '화개'도 강승희 김을 노영신씨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윤기 작가의 '두물머리'는 민정기 강승희씨가, 박완서 작가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정종미 노영신씨가 각각 시각화했다.

화가의 시선에 따라 하나의 문학이 전혀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면서 하얀 종위 위 검은 글자로 구성된 문학은 올컬러의 시각적 상상력을 관객들에게 부추긴다.

종이나라가 펴낸 <그림, 문학을 그리다>는 문학과 그림의 만남을 추진했다. 책을 펴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시도 병행한다. 11월 23일 첫 번째 서울 문화일보 갤러리(02-3701-5755)에서 오픈한 '가지 않은 길_그림, '문학'을 그리다'전은 11월 25일~2007년 1월 30일, 2월 1~25일 북촌미술관(02-741-2296), 12월 1~25일 평택 남부문예회관(031-659-4931) 등에서 동반 전시에 들어간다.

고은 김용택 김지하 문태준 신경림 황동규 황지우 등 21명의 시인, 공지영 박완서 서정인 이외수 최인석 황석영 등 21명의 소설가가 빚어낸 문학작품은 강미선 김덕용 류준화 박항률 등 33명 화가의 화필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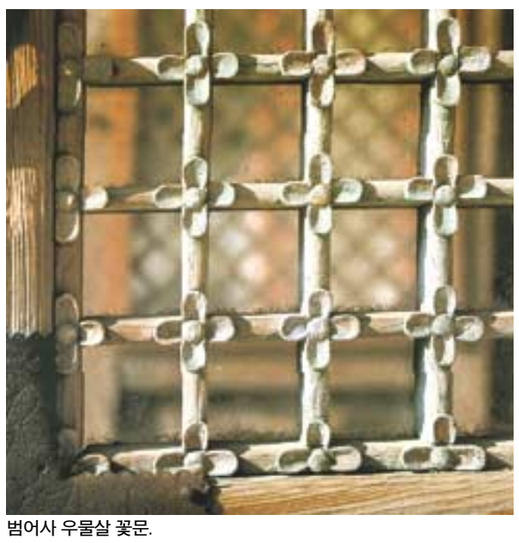
대산 미당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엄선한 한국현대문학 작품 중 시 21편 소설 34편 등 총 55편의 문학작품이 다양한 장르의 그림 99점으로 다시 태어났다.

화가들은 수상작 가운데 평소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선정해 1인당 3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우리 시대 33인 화가와 42인 문인이 조화로운 선율로 빚어낸 붓과 글의 만남이다.

한낱 기호에 불과한 문자를 '의미있는 글'로 만들어 메마른 대지에 애절한 감성을 던져넣은 42명의 문학가와 글이 묘사하는 세계를 다양한 상상력으로 캔버스에 그려낸 화가들.

책에 빠져 느꼈던 상상 속 이미지가 33인의 화가가 만들어낸 조화 속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구경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범어사 우물살 꽃문.





▲▼관조 스님이 사진으로 보여준 세상은 생 · 로 · 병 · 사를 떠나 자연 그 자체가 부처요, 깨달음이었다.

찰나의 깨달음 사진으로 남기고…

禪사진 선구자 관조 스님 입적



"좋은 사진 한 장이 깨달음의 순간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말해왔던 사진수행자 관조 스님.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빌어 세상 만물을 바라봤던 관조 스님(범어사 · 사진)이 11월 20일 오전 10시 35분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영결식은 11월 22일 범어사에서 산중장으로 엄수됐다.

누차 시신 기증 의사를 밝혔던 관조 스님의 뜻에 따라 영면에 든 스님의 법구는 동대 일산병원에 기증됐다. 스님이 만물의 불성을 담았던 양쪽 각막은 적출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법구는 의학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943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관조 스님은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지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부터 사진 수행을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사찰과 자연을 사진에 담아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포교의 한 방편으로 실천했다. 한국 사찰 주변의 자연풍광을 소재로 특유의 선적(禪的)인 사진을 발표해 한국사진계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스님은 사진 작업을 시작한 이래 <승가1>(1980), <승가2>(1981), <열반>(1984), <자연>(1985), <蘚 이끼와 바위>(1987), <수미단>(1992), <대웅전>(1995), <꽃문>(1996), <생, 멸, 그리고 윤회>(1997), <한줄기 빛>(1998), <사찰 꽃살문>(2003), <님의 풍경>(2004), <사천왕>(2005) 등의 작품집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선보여왔다.

<아시안게임 경축사진전>(1986), <올림픽 문화행사 일환 한국일보 초청전시>(1988)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1982), 토론토(1991), 시카고(1994) 등 해외 전시, 서울 동산방 화랑(2002), 국립청주박물관(2002)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도 열었다. 부산미전 금상(1978), 동아미전 미술상(1979), 현대사진 문화상(1988)을 수상하는 등 관조 스님의 선(禪) 사진은 일대를 풍미했다.

사진으로 세상과 만나왔던 관조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은 불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제 스님의 혜안은 만날 수 없지만 스님이 바라봤던 세상 속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장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스님은 지난 4월 사진갤러리 와에서 전시회를 열며 조만간 사진활동을 접겠다고 말해왔다.

그 전시회에서 스님은 '내 한마디 하고자 하니/ 생각을 끊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잊어라/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았으니/ 봄이 오니 풀이 절로 푸르구나'라고 게송을 남겼다. 그렇게 관조 스님은 다시 봄이 오기도 전에 푸르름만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다.

강지연 기자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해 생산한 재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물재현 선사님 역저 / 지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동서출판 밀 양
••• 유식은 그 자체로 과학이자 禪이다.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 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禪思想 釋明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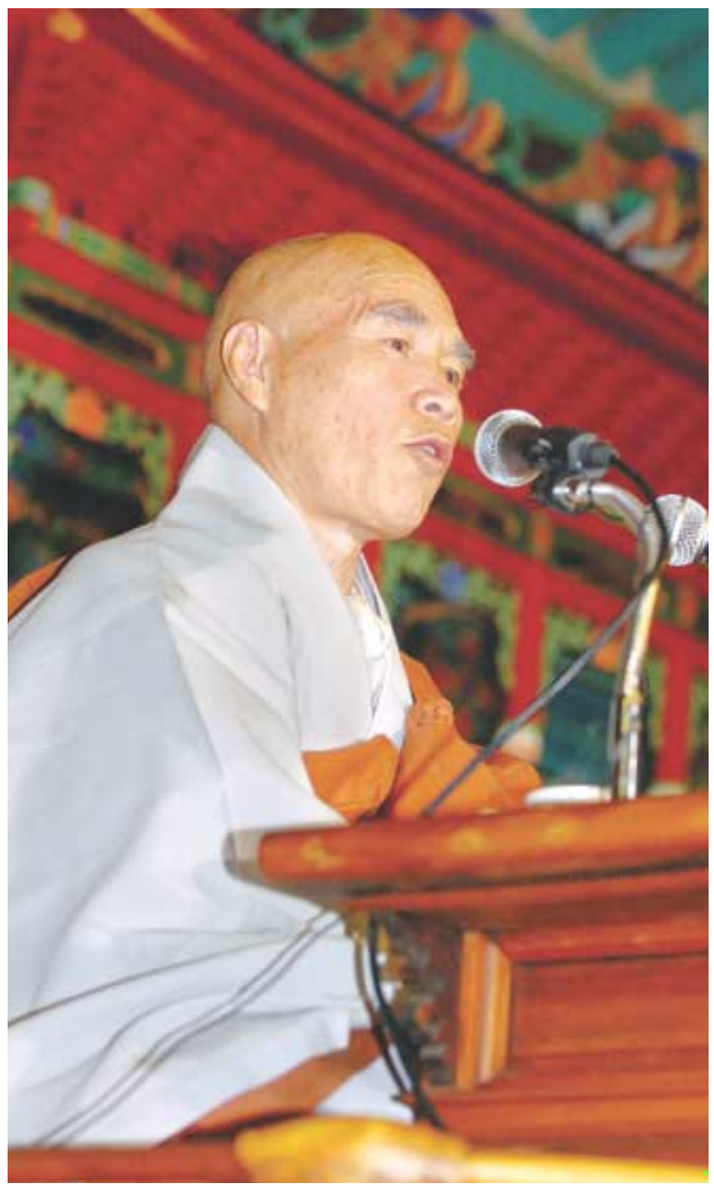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 · 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2병 = 1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아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9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 원각경(11월 18일)

환(幻)을 여의면 곧 깨침이라


통광 스님은 경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며 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흔히 우리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서로 딱 부합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곳 교종 본찰인 봉선사야말로 진정으로 '명실상부'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봉선사에서 주석하시다가 입적하신 초대 역경원장 운허 큰스님과 2대 원장인 조실 월운 큰스님의 크나큰 원력에 의하여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이 다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35~6년 전에 봉은사에서 운허 노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오니 그 당시 들은 얘기가 생각납니다.

운허 스님은 평생에 100일기도를 세 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종전(終戰)을 염원하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회향날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불탄 봉선사 복원을 염원하며 했다고 합니다. 역시 회향날 설판자(시주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바로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 역경 원력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있는 팔만대장경은 토점도 없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 하며 역경 원력을 내신 겁니다.

그 큰일을 하려면 한 개인 시주로는 어렵겠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원을 세우고 100일기도를 하셨답니다. 회향식날 석남사에 주석하던 인홍 스님이 찾아왔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인홍 스님이 청와대로 이후락 비서실장을 만나 석남사 중창불사 지원 요청하러 간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운허 노스님이 대장경 역경 지원 요청도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인홍 스님이 청와대에 갔는데 석남사 얘기는 않고 팔만대장경 역경 지원 얘기만 했답니다. 그러자 이후락 비서실장이 "스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석남사 불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하니 인홍 스님이 말하길 "운허 노스님 역경 원력을 듣고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원력을 세웠구나 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면 역경 신청이 흐려질까봐 역경 지원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뒤에 정부지원으로 팔만대장경 역경 지원은 물론 석남사 중창도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월운 큰 스님이 생존해 계실 때 꼭 이루어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력을 가지고 계신분이 추진 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에 근거하지 않은 수행을 하면 '외도' 경전은 '법신사리'

이 법회의 주제가 '경전 수행을 통한 가르침' 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한 주제 같지만, 저는 경전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종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합니다. 선종에서 근본으로 내세우는 것이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즉 부처님이 선을 전한 것을 삼처전심이라 말합니다. 그 삼처전심의 근거 문헌은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이라고 합니다. 불립문자를 말하지만 그 근거 또한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경에 근거하지 않는 수행을 하면 외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법신사리'라고 합니다.

옛날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 아난존자의 탑에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때 모시던 신하가 말하기를 '다른 훌륭한 존자님들도 많은데, 유독 아난존자 탑에만 예배를 하십니까' 하니, '다른 존자들은 자기만의 수행과 깨달음에 머물렀지만 아난존자는 경전을 결집 유포해 오늘날까지 전한 은공이 있어 예배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각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법장의 교판에 의하면 원각경은 돈교에 속하는 선경으로서, <유마경> <능가경>과 함께 선가에서 중시하는 경전입니다. <원각경>의 구체적인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대(大)는 체성(體性), 방(方)은 덕상(德相), 광(廣)은 업용(業用)을 뜻합니다. '원각(圓覺)' 은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를 갖춘 원만한 각성으로서,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과 같은 뜻입니다. '수다라(修多羅)' 는 범어인데, 한역하면 계경(契經)이니, 진리와 근기에 계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요의(了義)는 대승의 진리를 남김없이 다 말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이란 수다라와 같은 의미인데, 앞의 수다라는 모든 경전을 지칭하는 것이고, 뒤의 경은 본 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모든 경전 중에서 이 경이 요의경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다라요의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각경>은 북인도 계빈국 사문 불타다라 삼장이 범본을 가지고 와서 번역한 것입니다. <원각경> 연구의 대가였던 규봉 종밀(780~841)의 약소(略疏)에는 북도 장해사의 <도전법사소>를 인용하여 '카시미르 삼장법사 불타다라가 장수 2년(693) 용집계사에 범본을 가지고 동도에 이르러 백마사에서 번역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각경>은 무명본공(無明本空, 무명은 본래 공하다) 원각본구(圓覺本具, 원각은 본래 갖추어져 있다)라는 대승교의를 어느 경보다 철저히 천명한 것으로써 대승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원각경의 대의는 단무명(斷無明, 무명을 끊고) 현불성(顯佛性, 불성을 나타낸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무명은 본래 공한 것 허깨비를 허깨빈줄 알면 곧 깨달음 얻어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습니다.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이 죽는 고통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는 바로 무명을 끊고 불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원각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무명을 어떻게 끊고 불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는 것을 원각경의 각 장을 짚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각경>에 보면 다른 경과 달리 장소 개념이 없고, 삼매 중에서 정토를 나타내열 두 보살이 부처님께 묻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수보살이 질문하는데 그것이 문수장(文殊章)입니다. 이장은 부처님의 인지법행(因地法行)에 관해 질문을 하니, 답하시기를 "무상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라고 한다.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및 다라니를 유출하여 보살에게 가르쳐 주나니, 일체 여래가 본기인지(本起因地,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모두 청정각상(淸淨覺相, 청정하고 깨어 있는 것)을 원만히 비추어 봄에 의하여 무명(無明)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불과(佛果)를 수증(修證)함은 처음 발심한 마음을 여의지 않습니다. 처음 발심한 마음이 참답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발심한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은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추어 보아 불성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것은 <원각경>에서의 원각은 근본 본성으로 볼 수 있고 또 본원자리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래 청정한 근원자리를 원만히 비추어 볼 때 무명이 본래 공한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는데 무엇이 있어 그렇게 듣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나라 시대 배휴(791-870)가 쓴 <원각경 서문(血氣序)>에서 '가죽 밑에 피와 기(氣)가 있는 무리들은 반드시 앎(知)이 있다. 무릇 앎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성(體性)이 똑 같으니, 그 자리는 이른바 참되고 맑고 밝고 묘하고 텅비고 사무치고 신령스럽고 통하여 우뚝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의 본원이기 때문에 심지(心地)라 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보리라 하고, 서로 사무치고 원융하게 포섭하기 때문에 법계라 하고, 고요하고 영원하고 즐겁기 때문에 열반이라 하고, 혼탁하지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청정이라 한다. 허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라 하고, 허물을 여의고 그릇됨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성이라 하고, 선을 보호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총지라고 하고, 숨기고 덮고 함용하고 포섭하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또 현비(玄閟)를 초월했기 때문에 밀엄국이라 하고, 온갖 덕을 통합하여 크게 갖추었으며, 온갖 어둠을 사루어 없애고 홀로 비추기 때문에 원각이라고 한다. 그 실제는 모두 일심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법계' '불성' 등과 이름은 다르나 모두 같다는 말입니다. 교가(敎家)에서 가장 높은 법문으로 치는 <화엄경>의 대지는 '만법을 통합하여 한 마음을 밝힌다' 는 것입니다. 이것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이[illegible]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8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 원각경(11월 18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을 보면 여러 가지 말한 것 같아도 일심을 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에 등지면 범부가 되고, 수순하면 성인이 되고, 미혹하면 생사가 시작되고, 깨치면 윤회를 종식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중생의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정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깨치고 보면 중생이 본래 성불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원각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무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예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동쪽을 서쪽으로, 남쪽을 북쪽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이 사대를 잘못 알아 자기의 몸이라 하고 육진을 반연하는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병이 났을 때 허공에 꽃이 보이고 달을 볼 때 달이 둘로 보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청정한 원각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무명이 생겼느냐라는 것인데, <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진여법이 하나인줄을 여실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것을 불각이라 하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불각 무명으로 인해 삼세상(三細相)과 육추상(六序相)이 벌어져서 중생이 생사 윤회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불각(不覺)으로 인해 무명이 생긴 것이다. 무명은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보현장은 '환(幻, 허깨비)을 여의면 깨달음'임을 보여주는 문답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는 없지 않다가 깬 뒤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뭇 허공 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에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들은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망하게도 생멸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공에 꽃이 없고 달이 둘이 아니듯 무명은 본래 없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을 여의어야 합니다. 허깨비를 허깨비인 줄 알면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법회에 참가한 불자가 통광 스님의 강설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

<선문염송>에 '<원각경>에 말하기를 일체중생의 갖가지 환화(허깨비)가 모두 여래의 원각묘심(圓覺妙心)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회당심이 이 말을 거론하여 말하기를 '삼세(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환이요, 일대 대장경도 환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도 환이요, 천하 노화상과 온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모두 다 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묘심이냐'라고 했습니다. '원래 경문이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원각묘심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묘심은 무엇이냐, 묘심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각경의 사구게가 지환즉이(知幻卽離, 환인 줄 알면 곧 여읨이라) 부작방편(不作方便, 방편을 짓지 않고) 이환즉각(離幻卽覺, 환을 여의면 곧 깨침이라) 역무점차(亦無漸次, 또한 점차가 없느니라)입니다. 즉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구(한참동안 말없이 그대로 있음)를 합니다. 한참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원앙새 수놓은 것은 그대에게 보게 할 수 있지만, 그 수를 놓은 금으로 된 바늘은 그대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각묘심은 말해줄 수도 전해 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각은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투자청 스님이 갖가지 환화가 원각묘심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산승의 주장자는 저 원각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로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산승의 손에 있게 되었겠는가. 모든 선덕들이여 만일 나온 곳을 안다면 부처와 조사들이 그대들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하겠지만, 만일 알지 못한다면 산승이 그대들에게 주석을 달아 설파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 주장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원각묘심이니 주장자니 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철저히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투자청 스님의 뜻으로 볼 것 같으면 원각묘심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그런 도리를 보인 것입니다. 참으로 깨치려면 원각이라는 말에도 속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안장은 관행(觀行)에 대한 문답입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의 구절로 요약하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오온이 공한 줄로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과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본래 공한 줄로 비추어 볼 때, 오온이 본래 공한 그 자리가 법신덕이고, 오온이 본래 공한 줄 비추어 보는 것은 반야덕이고, 일체 고통과 액난에서 건너가는 것은 해탈덕입니다. 일심삼덕 삼덕일심 그 자리가 원각자리입니다. 원각 자리에서 비추어 보면 무명이 본래 공합니다.

이 자리가 불세계이고 이 불세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원각경을 통해 맑고 깨끗하고 항상 깨어있는 불성을 원만히 비추어 보아 영원히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시기바랍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질의

무명은 중생의 망견(妄見)에서 생기는 것

[질문1] 일상생활에서 본래 부처이고 청정한데 왜 그런 자리에 무명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원각과 무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광 스님] 원각은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무명이 생겼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해인사 장경각에 딱 두 구절의 주련이 있는데,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각도량이 어느 곳이냐. 지금 현재의 나고 죽음, 우리들의 일상생활 이 자체가 바로 원각'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스님들의 어록을 인용하자면 장수 자선 스님이 낭야 혜각 선사에게 묻기를 '청정본연(淸淨本然)한데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가 벌어졌습니까'라고 물으니, 이에 대해 낭야 혜각 선사는 '청정 본연한데 어찌 홀연히 산하대지가 벌어졌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이 것은 '산하대지가 생긴 것이 없고 청정본연 그대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으며,



수경 스님(삼선승가대 학감)

만일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여래께서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망견(妄見)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탈 때 배가 빨리 달리면 옆의 언덕이 달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리저리 헤아리는 것은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질문2] 원각경중 특히 영가 현도시 보안보살장을 많이 독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광 스님] 영가현도 하는데 보안장을 왜 그리 많이 외우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보안장 말고도 금강경을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금강경이 상을 깨뜨리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경이냐 아니면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경이냐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을 깨면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지혜가 드러나면 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비광명이 비치는 곳에 극락세계가 나타나고 지혜의 눈으로 비춰볼 때 지옥이 그만 공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안장은 처음 사마타인 지관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대육신과 육진의 그림자를 반연하는 마음이 본래 공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온갖 것이 청정해집니다.

보통 영가들의 경우 죽어도 죽은 줄을 모릅니다. 영가들에게 몸과 마음이 본래 공한 원각묘심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안장은 내용도 좋지만 문장도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영가들도 좋아하겠지요

기도는 불보살 원력과 본래 원각으로 성취

[질문1] 운허 스님께서 세 번 기도하여 다 성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인지 원각경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광 스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두 가지로써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보살의 원력에 의하여 성취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게 본래 갖추어 있는 원각에 의지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원각은 본래 청정하고, 생멸하지 않고, 원각은 일체가 본래 구족하고, 본래 부동하고, 능히 일체 만법을 내는 것이므로, 어떠한 원을 세우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원력에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원력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은 불보살이 인행시에 일체 중생의 모든 소원



석길암(동국대 강사)

을 다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2] 저같은 말세중생이 공을 깨달아 가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통광 스님] 원각은 본래 청정하고 무명은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의 행을 실천만 하면 됩니다.

<대승장엄경론>에 보면 제일 처음에 성문지(聲聞知)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처님 교법을 듣고 불성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량지(思量知)입니다. 그것을 들었으면 깊이 깊이 부처님 교법을 생각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관지(止觀知)입니다.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 실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구경도(究竟道)는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을 깨달아 가는 방법만 알 뿐만 아니라 공한 이치를 깨달아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 들어선다

봉은사, 22일 전통불교 다선제(茶禪祭) 열고 건립 발원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이자 외국인들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서울 삼성역 인근에 불교 다례와 참선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이 들어선다. 봉은사(주지 명진)는 11월 22일 법왕루에서 ‘대한민국 전통불교 다선제(茶禪祭)’를 개최하고, 봉은사 내에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 건립을 발원했다. 체험관 건립과 함께 사찰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례법을 정립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봉은사 개산 1212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한민국 전통불교 다선제’ 개막식에서 주지 명진 스님은 교무국장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앞으로 봉은사 내에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을 건립하고, 외국인들이 참선과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선 체험관 건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례행사와 차문화 대회 등을 개최해 불교 다례법을 정립하고, 이를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봉은사와 인근 코엑스 등은 하루 평균 2~3만여 명의 외국인이 머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다. 다선 체험관 건립은 바로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문화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봉은사라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말이면 30~40여만 명을 웃도는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는데, ‘차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이들의 발길을 봉은사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교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 봉은사가 ‘전통불교 다선 체험관’ 건립의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11월 22일 열린 전통불교 다선제에서 지장 스님(초의차명상원장)의 선차(禪茶) 시연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외국인 위한 참선 · 다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밝혀

여연 스님 “불교 다례법 정립 · 국제화 시급” 강조

한편 봉은사는 다선 체험관 건립에 앞서 불교 다례법을 복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사찰마다 제각기 봉행되고 있는 육법공양(六法供養), 헌다례(獻茶禮) 등의 불교 다례법의 통일안을 마련함으로써 불교 다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봉은사 남태규 기획팀장은 “봉은사에는 지난 한해 3800여 명이, 올해는 5000여 명의 외국인이 찾아와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는데 프로그램 중 가장 호응이 높았던 것이 바로 다도체험”이라며 “통일된 다례법이 마련된다면 외국인들에게 불교 다례를 더욱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의차문화원이사장 여연 스님(일지암 암주)도 이날 ‘전통불교와 우리 차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다례법 정립과 세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국내 차계에는 각 차회나 사찰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다례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통일된 불교 다례법을 마련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문헌고증이나 사료검증 없이 ‘만들기만 하면 다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각종 행다례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행다례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불교 차문화 세계화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선다(禪茶)’ 난립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 속에서 지혜로 획득되는 것임에도, 마치 차를 마시는 행위에 ‘선’이라는 말을 붙여 ‘차를 마시면 무조건 깨달음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봉은사 다선 체험관도 차를 단지 기호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교 차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앞으로 전통불교 다례학술세미나와 불교다례시연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봉은사를 명실상부한 불교 차문화의 중심지로 가꿔나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맛 좋게 하는 다기’ 나온다

자성 재료인 페라이트 성분 유약에 혼합 제작

찻잔의 물을 자화수로 만들어 차맛을 좋게 하는 기능성 다기가 곧 선보인다. 경북 문경 황담요 김억주(47 · 상주대 신소재공학과 겸임교수) 대표는 자성 재료인 페라이트를 유약에 혼합, 소성시킨 자성다기 개발에 성공해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개발한 자성 다기는 온도가 섭씨 800~1000도에 이르면 사라지는 자성을 1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소성하는 장작가마등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자성 유지를 위해 자석의 S극과 N극을 혼합시키는 다극착자와 N극을 안쪽으로, S극을 바깥쪽으로 배치하는 라디알착자 등의 방법을 사용해 자성 소멸을 막았다.

다기 표면에 페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찻잔의 물이 자장 속을 수직으로 통과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이온활성화 되어 인체에 유익한 육각형 구조수로 자화 처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김 대표와 상주대가 분석한 결과 자성 다기에 우려낸 차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녹차 속의 카테킨(타닌) 함유성분이 일반 다기에서 우려낸 차보다 20배나 많이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도자기를 만들면서 전통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자기에서 우려내는 차맛과 농도를 가지고도 더 좋은 맛을 낼 수 없을까 생각하다 육각수에 착안, 자성 다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2년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전에 ‘계영배’를 출품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7. 정신의 음료

⑤ 송대 궁중의 차 문화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907~960)는 당이 멸망하고 북방의 유목민들이 흥기하여 남북이 융합되고, 북방 사회가 중원(황하강 중류)과 맞서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때였다.

오대십국은 직접적으로 당의 풍속을 계승했기에, 비록 당이 멸망했지만 많은 문화활동은 이어져갔다. 차 문화도 이와 같이 민족교류와 사상이 충돌하는 이 시기에 발전해 당대를 잇고 송대의 차 문화를 열어주었다. 더욱 남방의 오(吳), 촉(蜀), 강서성, 절강성에는 자원이 풍부해 싸우는 일이 북방에 비하여 적었다. 그 일반 백성들은 볼 수도 없었다. 용단차는 황제 · 친왕 · 공주에게만 공급되고, 봉 단차는 학사 · 장군에게, 유(乳, 차품의 한 종류)는 가까운 신하와 사대부들에게 하사하고, 백유(白乳)는 관청의 손님들에게 공급되었다. 이처럼 용봉단차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차였다.

공차제도는 일반 백성에게는 부담을 주었지만 좋은 차를 공납하는 관리에게는 높은 직책을 주기도 했다. 그 한 예로 선화 2년 정가간이라는 관리는 그의 조카를 시켜 명차를 구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주차(朱茶)를 구해오자 그는 아들에게 차를 주어 황제에게 바치게 했다. 이것으로 아들이 벼슬을 얻어 고향에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주차를 발견한 조카가 멀리서 울분을 터트리자 사람들은 이 차를 ‘천리까지 원한이 가득하다’고하여 ‘천리매원(千里埋怨)’이라고 했다.

‘湯社’는 현대 차 전문가들의 품평에 영향 줘

공차제도로 궁중 음다 풍속 새로운 시대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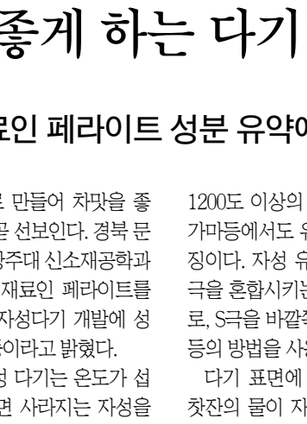
소룡 단차도(小龍團茶圖)

이러한 공차제도는 많은 폐단을 가져왔지만 궁중의 음다 풍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송 태조부터 모든 황제들이 차를 좋아하여 황제와 관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정의 모든 의식에 차를 이용하였고, 종묘(宗廟)에 차를 올려 국가 규범으로 삼아 궁중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조정에서 큰 연회가 있을 때 황제 앞에는 항상 차상(茶床)을 차렸고 조의(朝儀) 중에는 다례를 했다.

사신을 접대할 때나 고별할 때는 연회에서 차와 술을 하사하는 것을 예의로 하였다. 왕들은 왕비를 맞이할 때 예물로 양 · 술 · 비단 외에 ‘차백근’을 주었다. 후에 민간에서도 정혼할 때 다례를 하는 풍속이 생겼다.

황제가 순례를 할 때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 비단옷과 차를 하사하고, 절을 지날 때도 승려와 도인들에게 비단과 차를, 국자감을 시찰할 때도 학생들에게 차를 하사했다. 황제의 음다는 자연히 지존의 지위를 상징한 만큼 사치로 흐르는 폐단도 많았지만 궁중의 차의(茶儀) 차연(茶宴)의 거행으로 인해 민간의 음다 풍속에 영향을 미쳤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11월호에서는 연속기획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의 마지막 주제인 ‘사(死)’를 돌고적 시각에서 조명해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한 생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생을 시작하는 죽음…… 생(生)과 사(死)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물작가 떠난 스페인 문화기행’, ‘입중 스님의 어린이 명상법’을 비롯하여 느리게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등 경쟁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에 위안을 주고 휴식 같은 읽을거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설가 김동리이 추억하는 내 가족 속의 불밥
현상 속으로 | ‘2006 합천 달마대탕경 축제’
입중 스님의 특별기고 ||2| 어린이 명상,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 사(死)
삶과 죽음의 격넘
지유로서의 죽음, 입대로서의 죽음
디에트 마르도의 가르침 – 『디에트 자자의 서』에 나타난 사후세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편안한 죽음으로 보나
죽음, 이렇게 준비하자
독자들 세상 | 참신합니다 · 독자기자가 된장한 돌담해 난 문미 마음대은 첫점 ‘문행지’
종범 스님의 불교란 무엇인가 ❽ | 사찰에 깃든 의미
응용불교 |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와 마음챙김
열린불교 열린경영 ❻ | 서울 구룡사 리모트
참중인트뷰 |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종체계를 추구하는 현대무용수 장연수
옥의 티 | 불교문화재 살경 바로잡기 – 석굴암 ‘전실과 주실’을 ‘예실과 법당’으로
작업실풍경 | 한국화가 우경 이성란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자산군 백화산 분지골 노루무 이야기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여성생활사박물관
불자가 떠난 스페인 문화기행 (하) | 피카소와 헤밍웨이의 바르셀로나 분수소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 스티븐 할펜 ‘Crystal Bowl Healing’
지리산 대한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 겨울을 대비한 환절기 사찰 별식 3선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❸ – 서울의 궁궐
11 2006
www.buddhistculture.co.kr 광고 및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애드 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으면 좋다?

날씨가 추워지고 몸이 허해진다 싶을 때면 생각나는 보약 한 첩. 그러나 최근에는 보약 대신 건강기능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글루코사민, 스피루리나, 스쿠알렌, 감마리놀렌산 등 이름도 생소한 제품들이 화려한 광고문구로 치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손짓을 한다. 하지만 '어디에 좋다'는 광고만 믿고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가족의 건강을 '건강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KFDA 건강기능식품정보사이트(www.hfoodi.net)'의 도움말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녹차추출물 과량 섭취시 초조감 · 불면 유발

대두단백, 알레르기 있는지 먼저 살펴야

식물스테롤제품 밥과 같이 먹어야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이트서 효능 확인을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서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 캡슐 · 분말 · 과립 · 액상 ·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식사나 기호식품과는 달리 섭취목적, 섭취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해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 37가지를 지정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건강기능식품에는 크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 제조 · 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현재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로열젤리제품 등 37가지 품목이 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영업자가 제조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제품을 말한다.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범람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각 제품의 효능과 특성을 꼼꼼히 파악해 본 뒤 섭취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어떻게 선택할까?

식품의약청안정청이 지정 ·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37종이다.(표 참조) 이 중 특별한 주의를 갖고 섭취해야 하는 제품은 녹차추출물과 대두단백,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이 있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식품 자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과량 섭취 시 초조감 · 불면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대두단백의 경우 대두단백에 반응하는 알레르기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식물스테롤함유제품은 식사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전질환인 시토스케롤혈증, 뇌건성황백종증을 가진 사람 또는 임산부 ·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섭취 시 일일섭취량 300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은 과량 섭취 시 복부팽만감을 느끼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쌀을 홍국균으로 발효시킨 붉은 누룩인 홍국(紅麴)은 임산부와 수유부, 간질환 환자, 어린이, 청소년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섭취 시 복통 · 속쓰림 · 어지럼증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롤 조절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건강기능식품 종류 · 효능

기능식품명	효과
1. 영양보충용제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식이섬유 보충
2. 인삼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
3. 홍삼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
4. 뱀장어류	건강증진, 영양보급
5. EPA/DHA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원활/두뇌 • 망막 구성성분, 두뇌영양공급
6. 로열젤리	영양공급, 건강증진, 고단백
7. 효모	영양 불균형 개선, 신진대사
8. 화분	영양공급, 피부건강
9. 스쿠알렌	산소공급 원활, 피부건강
10. 효소	신진대사, 연동작용 및 배변에 도움
11. 유산균	유익한 유산균 증식, 정장작용
12. 클로렐라	단백질 공급, 체질개선
13. 스피룰리나	필수아미노산공급, 생리활성성분 함유
14. 감마리놀렌산	필수지방산 공급, 콜레스테롤 개선
15. 배아유	영양보급
16. 배아	항산화 작용, 영양보급
17. 레시틴	콜레스테롤 개선, 두뇌영양공급, 항산화작용
18. 옥타코사놀	건강증진, 지구력 증진
19. 알록시글리세롤	유아성장에 도움, 생리활성 성분
20. 포도씨유	항산화작용, 필수지방산 공급
21. 식품추출물발효	건강증진, 체질개선, 영양공급
22. 뮤코다당 • 단백	연골 구성성분, 건강증진
23. 엽록소	유해산소 예방, 피부건
24. 버섯	혈행 원활, 생리활성물질 함유
25. 알로에	장운동, 면역력증강, 피부건강
26. 매실추출물	유해균 번식억제, 피로해소
27. 자라	단백질 공급원, 체력증진
28. 베타카로틴	항산화, 유해산소 예방, 피부건강
29. 키토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항균작용
30. 키토올리고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항균작용
31. 글루코사민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
32. 프로폴리스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33. 녹차추출물	항산화작용
34. 대두단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
35. 식물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
36. 프락토올리고당	장내 비피더스균 증식, 유해균 성장억제, 칼슘흡수와 배변에 도움
37.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40〉

우엉단호박 샐러드와 단호박 두부죽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자 보살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법이 무엇인지를 자주 물어보십니다. 저는 사찰음식을 배우기 시작하고부터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도 자주 있고, 가끔씩 삼겹살 몇 점에 소주 한 두 잔 정도는 먹게 되지요. 그 외에는 제 식생활은 90%가 채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먹지요.



육류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음식으로 식탁을 꾸미는지가 중요합니다. 고기로 채워야 하는 단백질은 콩으로 대치하고,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 탄수화물은 현미 등의 잡곡과 다양한 콩을 이용해 밥을 지음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를 사용해야 하는 음식에는 우리밀, 그것도 통밀가루를 이용해 영양소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지방 섭취 역시 참깨나 들깨, 흑임자 등을 이용하면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성 지방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바로 우엉과 단호박 요리입니다.

우엉은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단호박은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재료에 콩단백질인 된장으로 소스를 만들어 근사한 요리로 완성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단호박에 두부를 넣어 호박죽을 만든다면 쌀가루가 들어간 죽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궁합도 잘 맞으니 더욱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음식들은 '전통 사찰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양간에 늘 있는 두부나 된장, 호박을 이용해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새로운 사찰음식을 개발하는 과정이 아니겠는지요.

■만드는 법



〈우엉단호박 샐러드〉 재료: 우엉 30cm, 단호박 1/8통, 드레싱(맛된장 2큰술, 시럽 1큰술, 사찰마요네즈 4큰술)

① 우엉는 3~4cm길이로 채 썬 뒤 찬물에 담가 놓는다. ② 단호박은 채 썬다. ③ 뜨거운 물에 우엉과 단호박을 데쳐낸 후 식혀준다. ④ 분량의 재료로 드레싱을 만든 후 버무려준다.



〈단호박 두부죽〉 재료: 단호박 1/2쪽, 두부 1/2모, 밤 5개, 두유 1/2컵, 우유 1/2컵, 소금, 흰 후추 약간, 고명(두부 1/5쪽, 식용유 약간, 호박씨 약간)

① 두부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② 단호박은 껍질을 벗긴 후 채수를 넣고 삶아준다. ③ 밤을 삶아서 속을 파낸다. ④ 믹서에 단호박, 두부, 밤, 두유를 넣고 곱게 간다. ⑤ 고명으로 올릴 두부를 지져내어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준다. ⑥ 냄비에 ④를 넣은 후 우유를 부어가며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며 끓여준다. ⑦ 고명을 올려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더덕김치와 더덕잡채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새짝불자 창작 "등(燈)" 제작 체험교실

귀의삼보 하옵고,
비바람이 거세어 걸어놓은 모든 등이 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작은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가난한 부인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 강한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시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든 등의 공덕을 칭찬 해 주실 만큼 제작 등의 공덕은 큽니다. 창작 등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등이 아니라 창작자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드는 아름다운 등입니다. 미래는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방학동안 어린이불자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설정하고 설계하고 스스로 제작하여 불심을 담아 불을 밝히는 창작 등 제작체험교실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생기발랄한 어린불자들의 무한한 불심과 창의력이 넘치는 창작체험 마당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들의 동참은 창작 도우미로서 동참은 환영합니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대 상 : 초등학생 반. 중학생 반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본 강좌일시 : ◎1차 : 2006년 12. 25 (월) - 12. 29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2차 : 2007년 1. 1 (월) - 1. 5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3차 : 2007년 1. 8 (월) - 1. 13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4차 : 2007년 1. 15 (월) - 1. 19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5차 : 2007년 1. 22 (월) - 1. 26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1주일 전 과정 : 5만원(제작교재비포함)
※ 본 강좌에서 제작한 창작 등은 전시회에서 수상작을 정해 수상합니다.
■문 의 전 화 : 02)735-3034, 핸드폰 011-9765-6999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도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주관 : (사)신교연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귀의삼보하옵고,
배달편자요법은 불자인 문광 이홍재박사가 발명한 획기적인 새로운 의술로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아무런 통증도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나며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산사에서는 도시의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전문인에게 치료받기도 쉽지 않아 아파도 참거나 방치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 보살님들은 늘 몸 여기 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스님이나 법사님 보살님 들이 편자요법을 배우신다면 통증이 전혀 없이 동료 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신도들부터 아기들 까지 모든 환자의 고통을 보살펴 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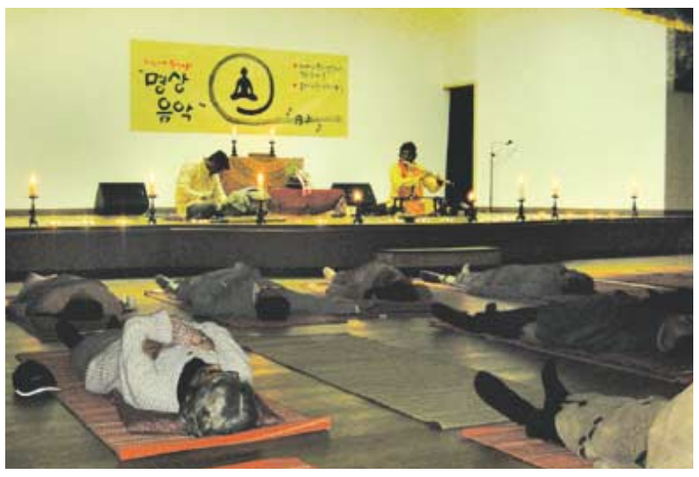
편자요법을 발명한 문광 이홍재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강좌와 본 강좌를 마련하오니 환자시술과 의술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전 10 - 12시, 오후 1시 - 3시(2차례)
■본 강좌일시 :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
◎오전반 :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오후반 : 매일 오전 1시부터 3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1개월 전 과정 : 30만원(교재 10만원상당제공) ※ 본 강좌 수료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 의 전 화 : 02)735-3034, 핸드폰 011-9765-6999
■편자요법으로 치료 잘되는 증상 :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감기기침, 콧물, 코피, 경항통, 어깨결림, 담결림, 등줄기결림, 견통(오십견), 팔뚝아픔, 손목아픔, 손가락관절통, 요통, 환도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발목염좌, 눈 피로, 갑상선염, 심통, 협심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숙취, 간장질환, 생리통, 생리불순, 멀미,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도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

인도 음악·무술·춤을 만나자

12월 3일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서 공연



11월 19일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크리슈나홀에서 밀린드 다테의 '반수리' 연주로 '사운드 마사지'를 경험하는 자리가 열렸다.

무용수의 화려한 손짓 속에 연꽃이 피어난다. 사랑과 슬픔 분노와 고요는 하얗게 분장한 얼굴 위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에 알맞은 발동작까지 곁들여지면 춤은 음과 양의 조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도의 음악, 무술, 춤이 한국과 조우한다.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12월 3일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크리슈나홀에서는 인도 무용 '카타칼리' '모히니아탐'과 무술 '칼라리파야투'를 만날 수 있다.

손짓 언어 무드라를 통해 사랑 연꽃 등을 표현하고 온 몸으로 울리는 명상언어를 통해 무언의 의사소통을 경험한다.

남인도 께랄라 지역의 전통춤인 '카타칼리'와 '모히니아탐'은 거칠고 격정적인 남성성과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성을 대변하는 춤이다. 음과 양의 조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의미심장한 가치를 함축하는 춤이기도 하다.

참가자들 직접 경험
사운드 마사지 호응

현란한 색채의 분장과 육중한 의상, 눈동자를 움직이며 표현해내는 감정 등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워크숍에서 제공한다. '디따따따' 등 기본 발동작 두 가지와 사랑 비웃음 슬픔 등 9가지 감정 표현, 사랑 연꽃 하늘 등 손짓 동작을 변영미 강사의 지도로 배울 수 있다.

요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인도 전통무술 '칼라리파야투'에 집중해 보자. 남인도 지역에 전해지는 전통무술이자 무술의 어머니라 칭해지는 '칼라리파야투'. 몸에 대한 준비작업인 연속 동작 훈련,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막대 훈련, 창이나 방패,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무기 훈련, 최종적으로 맨몸으로 적수를 상대하는 맨손 훈련 등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칼라리파야투' 계승자 자야프라사드는 이번 워크숍에서 몸의 유연성과 근력, 속도 등 몸에 흐르는 내부 에너지를 조절하는 연속 동작 훈련을 수련시킨다.

이에 앞서 11월 19일에는 인도의 대나무 플루트 '반수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명상을 하고 소리의 마사지를 받는 사운드 마사지 워크숍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 사운드 마사지는 소리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한다.

인디아TV의 다큐멘터리 '달라이 라마'의 음악을 맡았던 반수리 연주자 밀린드 다테가 내한해 사운드 마사지의 정수를 선보였다. 연주자들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악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명상을 유도하고 수행자들도 함께 명상에 든다. 소리가 지닌 파장을 몸과 마음 전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체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온 몸 흔들기를 통해 쿤달리니(육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적 진화의 체계)를 깨우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다. 그 후 누워서 온 몸을 최대한 이완한채 연주자가 들려주는 음악으로 사운드 마사지를 받는다. 마무리는 명상이다. 사운드 마사지를 받는 날은 채식과 함께 사우나를 권장한다. 땀을 배출한 뒤 맑은 물을 섭취하면서 온 몸을 정화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다.(062) 224-0045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명창' 이 동화를 노래하니 새롭네

안숙선, 판소리 '기억속의 동화' 음반 '눈길'



"기억 속에 어떤 동화가 남아 있습니까?"

안숙선 명창이 '눈사람' '금강산 타령' '옹헤야' 등 민요와 '춘향가의 이별대목' 등 판소리를 담은 '기억속의 동화' 음반을 펴냈다.

이번 음반은 '미음(美音)' '찬가' 'West End' '가야금 병창' '라이브 콘서트' 이후 5년 만에 제작됐다.

어릴 적 기억에 남아 있는 동화를 감상하듯 감미로운 '기억속의 동화'에서 안숙선 명창은 서민적인 정취와 세련미로 서양의 재즈, 브루스처럼 자유자재로 고음과 저음을 주고받는 독특한 보이스 칼러를 드러낸다.

이와 함께 가야금 연주자 안옥선씨가 가야금 산조와 살풀이를 연주한 첫 음반 '바람의 길'도 동시 출반됐다.

살풀이는 안숙선 명창의 구음과 안옥선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이태백의 아쟁, 원장현의 대금 반주가 잘 어우러져 환상적인 음을 들려준다. 강지연 기자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공연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 / 12월 8~10일

신나게 질러 봅시다~



투어콘서트 수익금 일부 백신연구소에 전달 계획

무대를 메운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조용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명이 밝아지는 순간 때로는 뮤지컬처럼, 때로는 오페라처럼 관객을 리드했던 그의 공연이 시작된다.

12월 8~10일 저녁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이 뜨겁게 달궈진다. 국민가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서울 공연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 공연은 다른 지역 공연과 달리 무조건 달리는 내용"이라고 밝혔던 조용필의 말처럼 1970~90년대 히트곡들만 가득 채워 팬들에게 전달하는 선물셋트다. 무대 위의 조용필은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친구여'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등 히트곡들로 무대 아래 팬들과 하나가 된다. 관객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객석을 가로지르는 T자형 특설 무대도 설치한다.

조용필은 올해 투어콘서트의 수익금 일부를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백신연구소는 한국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로 각종 전염병 등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 빈민과 아동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는 단체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인연이 깊은 불자 조용필은 2003년 부인 안진현씨와 사별한 후 서울 내원사에서 49재를 지내는 등 조용한 신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용필은 1969년 그룹 '애트킨즈'를 결성해 가요계에 뛰어든 이후 38년째 현역 가수로 활동 중이다. 한국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서훈받기도 했다.

서울 공연에 이어 23~25일 부산KBS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공연도 계획돼 있다. 내년에는 소규모 투어와 함께 새 음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조용필이 이끄는 열정의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며 온 몸을 가득 채우는 젊음의 흥분을 담은 심장소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02)564-1307

강지연 기자

불교방송 '문세윤의 뮤직펀치'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 짱'

불교방송의 낮시간을 웃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문세윤의 뮤직펀치'(매일 낮 12:00)가 부담없는 진행자의 넉살과 숨은 노래실력 등으로 청취자들의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개그를 통해 다져진 재치있는 입담, 힘있는 문세윤의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편하고 재미있다는 평가를 얻으며 고정팬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그맨 장재영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화요일 하 하 하', 데이지 손명은과 문세윤이 환상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목요일 '뮤직드라마' 코너는 인터넷 다시듣기까지 챙기는 마니아층이 두툼해지고 있다.

SBS 웃찾사에서 뱃살로 피아노를 치는 '바디밴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세윤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로 제5회 대한민국영화대상 신인남우상에 오르며 연기력도 인정받는 등 최근 주목받는 개그맨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개그 연기 노래의 팔방미인 문세윤의 화려한 입담으로 점심 시간 후 나른함을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강지연 기자

불자 가수 장윤정 디너콘서트



트로트 천사 장윤정이 12월 22~23일 디너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는 디너콘서트 '트로트 천사 장윤정-Lovely 윤정'에서 장윤정은 '어머나' '짠짜라' '이따 이따요' 등 3장의 음반 속 히트작들을 열창한다.

지난해 디너콘서트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장윤정이기에 이번 디너콘서트는 노래와 더불어 색다른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

상큼 발랄 트로트 천사 장윤정의 매력속으로 빠져 보자. 1544-2498

강지연 기자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대행스님

마음을 고정되게 착을 두지 말고 살아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토론하는 중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일요일날은 우리가 거기부터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는 나중에 되돌아올 때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거기에서 잠시 잠깐 끊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지(地)수(水)화(化)풍(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수화풍의 성질과 자기 무전자의 그 독특한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만 살아있다 뿐이지 모든 게 지수화풍이 움죽거리지 않고 침체돼 있는 상태에선 아마 암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수화풍이 제각기 살아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서로 공존해서 우리 어떠한 걸 세우자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렇게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지수화풍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공기'로서의 능력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공기'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천체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 같으면 그냥 능력이라고 해뒀으면 좋겠는데 왜 '공기'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모든 뭇 생명들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공기'라고 했던 거죠. 그 후에 이름을 지어서 붙였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름도 없이 그것으로써 무전자의 집합체를 이루었던 거죠. 무전자라 하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공기'로서 전체 아니 닿는 데 없이 닿게 되는 향기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유전자가 발생된 겁니다.

유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될 때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유체로서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의 발생이 온 우주에 확산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로부터 어떠한 것이 형성되었느냐. 유전자로부터 형성된 것이 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성이 다르고 우리 몸뚱이가 다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별성이요, 그 또한 별성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반짝거리면서 움죽거리는 것을 우리는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됐다고 말할 수 있죠.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전자의 생명에 의해서 그 체가 발생이 됐다면 수많은 별성들의 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무슨 청와대가 있으면 국방부도 있고 그렇듯이, 그렇게 별성들이 발생되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유전자의 묘법으로써 가지각색의 물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묘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없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의 선의 혼백이든지 악의 혼백이든지, 혼백을 만약에 유전자라고 한다면 차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차원이 낮으면 낮은 유전자가 될 것이고 질이 높으면 높은 대로 유전자의 차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화(化)하면서 그 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체 각급의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발생되는 그 유체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별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별은 반드시 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개의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치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 생명의, 즉 물질로서의 물체들을 생산해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려 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면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한 거면 저렇게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묘하다는 거고 그것이 광대무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거기에서 또 갈라진 것은 물의 생명도, 흙의 생명도 독특하게 자기의 근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바람도 그런가 하면 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지수풍이 한데 합쳐져서 비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일어난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질척질척한 거와 같이 갖다 넣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거기에서 아늑함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생명과 더불어 물질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로부터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물에서 사는 것은 물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흙에서 사는 것은 흙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또 화해서 사는 생명은 화생으로서의 독특한 가짐 가짐을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중의 생명들, 그 유전자가 암흑 속의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면서 집단을 이룬 것도 역시 바람의 성질을 아주 독특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마는,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는 이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로부터 됐다는 사람, 곰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공룡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에 한군데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그 유전자의 진화력에 의해서 자꾸 구르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화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마는 독특한 물의 생명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 흙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화함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비유해서 우리가 김가면 '김가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가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면서, 물에서 진화돼서 나온 것도 인간으로 됐고 흙에서도 인간이 됐고, 화해서 난 것이 전부 억겁을 거쳐오면서 진화해서 동물로 인간으로, 즉 말하자면 고등 동물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많은 진화의 모습을 각각 가졌으니 마음도 각각이요, 몸도, 모습도 각각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습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연쇄적으로 진화해서 올라오는 그 자체를 현재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뱀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도 인간대로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해서 진화하는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만이 자기 물질을, 자기 형상을 그대로 자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각자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물질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써 이 모든 일체 만법의 만물만생이 전부 진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모습을 바꿔감으로 해서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확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머리로써 돌아가는 이 오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다섯 가지, 이게 지금 세상에 컴퓨터나 모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자기의 무전자의 컴퓨터가 그렇게 무전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자기한테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바로 그 다섯 가지 요소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가지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에 똑똑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우리 인간이 말리고 있고 자유자재 못합니다. 우리가 꼭 심부름을 해야만이 컴퓨터가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사기나 천체 망원경이나 또는 무전기나 탐지기나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이 무전자의 유전자로, 무전자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 유전자 바로 거기에 공(空)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거기에 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연구해낸 겁니다. 연구해냈어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건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하나를, 물질적으로 내놓지 않아도 천차만별로 바꾸어가면서 우리는 무전통신을 할 수 있고, 컴퓨터로 책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유전자의 모든 유체들의 마음들을 책정해서 알 수 있고, 거쳐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가에서 말하면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속을 아는 건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이통(天耳通)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듣는 도리를 말하니 무전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무전기와 더불어 다섯 가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가 나의 부하라면, 다섯 부하라면 바로 내가 주인으로서 그 다섯 부하를 동시에 부리지마는 여러분은 그 다섯 부하들에게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느냐 부리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유린을 당하느냐 내가 부리고 있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세균이라는, 공중 세균, 흙의 세균, 물의 세균, 참 모든 이 세균들이 독특한 자기 근본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얼른 표현하자면 그러한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에서는 물대로 응용할 수 있고, 들에서는 들대로 응용할 수 있고, 흙에서는 흙대로 응용할 수 있고, 공중에선 공중대로 응용할 수가 있고 바람이나 모든 걸 응용할 수가 있으니 하물며 우리가 나 하나 끌고다니기야 식은 죽 먹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서도, 비유하건대 물에서 사는 생명들도 바로 그 유전자로 인해서 수만 개가 퍼지는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쏘가리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을 빨리 편리하게 바꿔야 할 텐데도 쏘가리라는 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쏘가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쏘가리의 마음에 달려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그 의식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변화를 시키질 못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고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완전히 계발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 쏘가리의 모습을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진화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끄달리면서 의식적으로 자꾸자꾸 쌓아온 그 생각들이 의식화돼 있다면 그 차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백 년이 가든 천 년이 가든 그건 그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깡통 간 데 깡통이 모이고, 금 간 데 금이 모이고, 넝마 간 데 넝마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참 광대무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선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하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을 하자면 왜 은하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동맥 정맥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듯이 은하계도 인간의 몸체와 같이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그 물이 삼각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삼각형의 받침대는 바로 애들이 이렇게 똥그랗게 원을 그리려면 콤파스로 이렇게 대고 그리게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받침대가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는가 하면 그 은하계에도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전자의 한자리에 삼각원형을 이룬 받침대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시쳇말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허허, 믿든 안 믿든 그건 알아서들 할 거고요.

그래서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뒷받침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 지점에다 딱 찍어놓고서 무전자의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보이는 데의 받침대가 아닙니다. 무전자의 받침대, 즉 말하자면 백지가 있어야 글씨를 쓰듯이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전자의 받침대가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비로소 유전자의 그 유체가 바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똑바로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심이 없다면 똑바로 돌지를 못하고 미치광이 모양으로 돌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거와 같이 그 은하계의 무리들도 그렇게 무전자로, 무전자의 받침대로 위에서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 그 모습들을 소생케 해가지고, 유체를 형성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다르고 이 세계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멀리 은하계는 아주 특별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것이 먼저 낳든 나중에 낳든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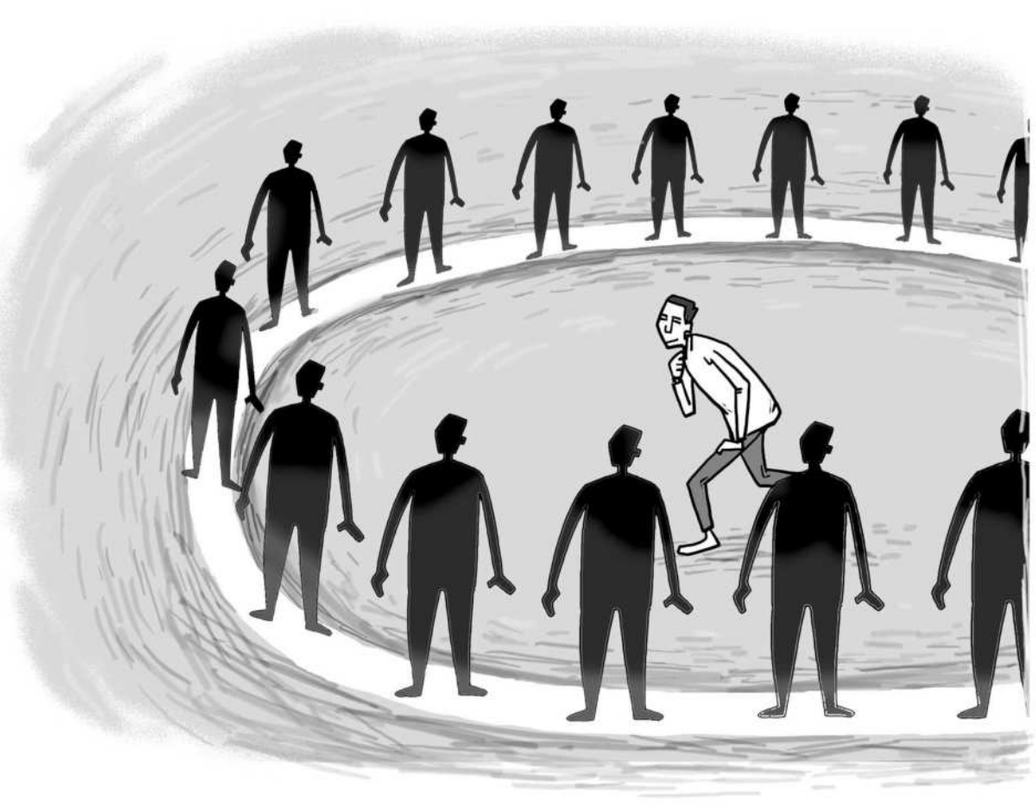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어!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내가 지금 현재에 태어나서 내가 그걸 안다면 바로 지금이 태초며 지금이 시작인 겁니다. 지금 모두가 생한 거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생한 걸 지금 알았으니까, 안 것이 뭐냐 하면 억겁 전년서부터 내가 진화돼서 나왔다 할지라도 억겁 전년이일 초도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억년이라는 말,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그 문제가, 무전자의 그 삼각원형을 이룬 자체가 바로 그 후에 참, 마음들의 그 빛을 내게 되었죠. 마음들의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는 지금 전기가 발전이 될 수도 없고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삼각원형에 의해서 은하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 삼각원형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태양도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태양은 언제, 북두칠성이 생기기 전에 생겼느냐. 아닙니다. 별성이, 그렇게 많은 별성이 생기고 참, 질서를 유지하고 다 그런 뒤에야 태양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달듯이 말입니다. 촛불을 켜다가 전기 달듯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발전은 누가 했느냐. 그 유전자가 광대무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악한 것은 악한 데 쓰이는 칼이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유전자의 그 진화력을 아주 못되게 쓰는 악령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부풀려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좋게 발전이 돼서, 유전자로 인해서 유체를 승화시키는 데는 무엇이든 아랑곳없이 무전자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그 궤도를 올바르게 돌면서 생명체든지 생명체가 아니든지 남을 이익하게, 즉 말하자면 유체든지 무체든지 다 이익하게 이끌어가지고 가면서 집단을 이뤄갔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또 집단체를 이끌어가지고 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수많은 그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에 미신이 생긴 거지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비유해서 보겠어요. 왜 세균이 나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인체 안에서도, 내 몸 안에서도 생명체들이, 지금 세균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름을 세균이라 하지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분신인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타의에서 유전자가 들어왔다면 세균입니다. 자의에 있는 생명은 세균이 아닙니다. 나를 나쁘게,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세균이지 인체를 이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 돌아가면, 이 혹성의 사장이, 여러분이 다 혹성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이 인체의 유전자, 즉 말하자면 인체에 있는 생명들의 유전자들이 다 겉으로 노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못 생각하는 대로 파워를 일으키고 분단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타의에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들어올 때 막아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뚱이는 여기저기 병이 들고, 파워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망가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 우주에 관한 문제들이 다 그러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소는 무엇을 뜻하느냐. 어떠한 딴 혹성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왜 목성이라고 하고 토성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대로 이름을 붙여도 그렇게 묘하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흙에서 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토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는 목성이라고 그렇게 붙였고. 아주 하나하나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혜성은 혜성대로 어쩌면 그렇게, 수성은 수성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화성은 화성대로 이름을 똑똑히 그렇게 잘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행성들의 이름이 그게 그대로 겉벌로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그걸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성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김씨 문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씨이듯이.

그런데 또 화성 같은 데는 만물상은 만물상인데 무체 만물상! 허허허허. 지구에 물질이 다 있듯이 유전자가 살 수 있는 그 화성이라는 만물상!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연결해서 서로서로 보급이 되고, 서로서로 교류가 되고, 우리가 질적으로 낮은 거 높은 거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만물상이라고 볼까요? 너무나 또렷또렷하게요, 이 세상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같이 이렇게만 사느냐? 여기만 생명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요것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비참하고 그러니까 산골에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서 참, 자기의 그 애절하고 괴롭고 그런 것을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서 그 돌에다 했습니다. 항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아쉬움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호소하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가만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들이, 자꾸 거기다가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거기 집중이 돼가지곤 그냥 거기 전체가 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혼백이 말입니다, 하나냐 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게 마음을 두고 호소를 하고 마음을 거기다 두었다면 내 혼이 거기도 있고…, 내가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집착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그냥, 그저 그 혼은 열 개도 됐다 백 개도 됐다 만 개도 됐다가 천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하면서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운 사람들은 알아서 고정되게 두지를 않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정되게 거기다가 아예 착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지도 끼우지도 못하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업보라고 하고 그런 윤회의 걸림에 걸려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돌아가죠. 생활에서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단을 이룬 그것을 누가 모아놨겠습니까? 그 한동네에서 모아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은 유전자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차원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다가 뭐를 안 갖다 놓으면 동네가 모두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떡하죠?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갖다 놔서 해결이 됐다면, 나중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큰 걸 갖다 놓다가 안됐으면 그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이 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생긴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래, 나중에는 그 동네에 가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하기 때문에 그 미신이 있는 거지,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팽개쳐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못살게 만들어놓느라고 그런다."고 그럽디다. 그래도 떡도 해놓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걸 아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가 잘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편안케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모든 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한 주인공에 있는 거지 어디 딴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두고요, 요다음에 그 유전자가 수없이 확산돼가지고 그렇게 수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런 문제를 또 토론을 하십시다.

※위 법문은 1985년 11월 1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부처님을 알고 나서

최정숙 (인천 부평구 부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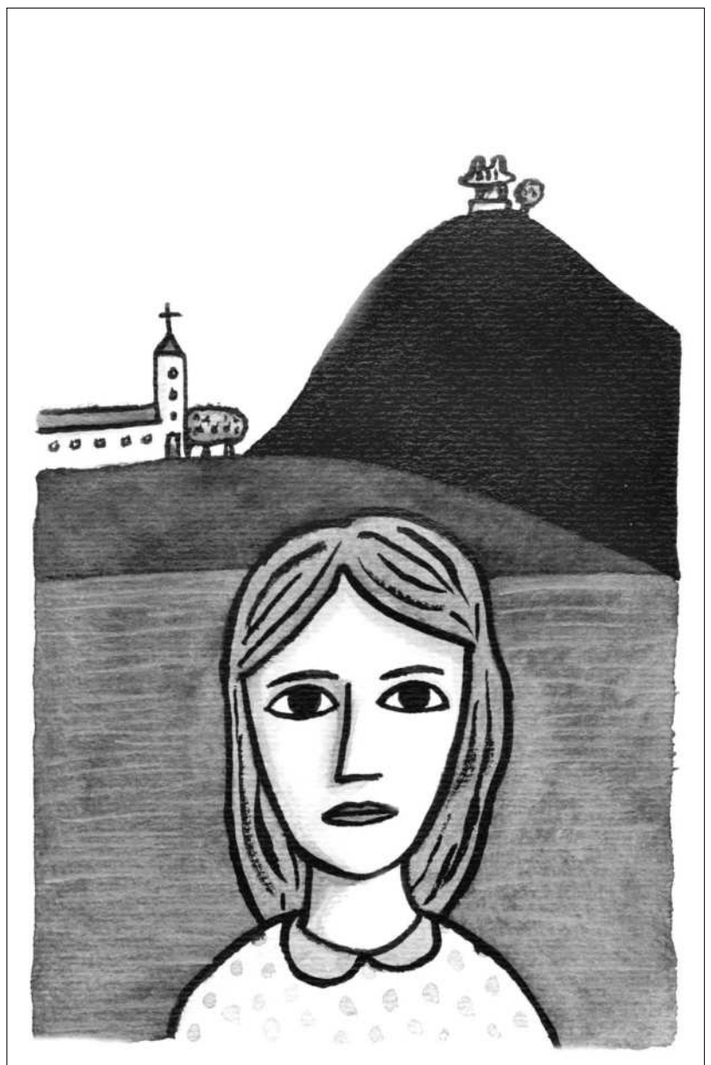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언제부터인지 부처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온다. 만약 지금 부처님이 살아 계시다면 천리길이라도 한달음에 달려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을 모두 다 여쭙고 해답을 구할 수만 있다면….

확연히 깨쳐서 지혜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다. 어떻게 해야 깨칠 수 있는지, 아니 아직도 나와 남을 분별하고 있는 미혹한 중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다.

26살에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시댁에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셨고, 5형제 자식 중 한 사람이라도 천주교 성직자가 되길 바라셨다. 하지만 어느 자식도 그 뜻에 따르지 않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천주교식의 결혼식인 혼배성사를 받도록 했다. 시아버지께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동안 여러 번 성당엘 가셨고, 나 역시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성당엘 갔다. 하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성당 안에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성당 근처 뚝방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오후 4시쯤, 시어머니는 저녁을 빨리 먹고 성당에 가자고 재촉을 하셨다. 하지만 성당에 가고 싶지 않았던 나는 늑장을 부리며 밥상을 차리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화가 난 시어머니는 밥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감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성당에 가면 분위기는 장엄하지만 신부님의 말씀에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강요받으면 오히려 반발감만 생겨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뜻과는 달리 성당에 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니 시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었던지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그때 성당에 가자"고 하시면서 뜻을 굽히셨다.

그 뒤 남편이 강릉으로 발령이 나면서 강릉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천주교인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시어머니께서 내 교적(성당 신도 명부)을 강릉의 한 성당에 보내서 오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성당에 나가게 하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으신 것이다.

시어머니의 종교 강요에 반발감만 생겨
우연히 법회 참석 후 '아! 이거구나' 귀 번쩍
새벽예불 경전공부 열심 삼천배 정진도

나는 그 신도들에게 내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드리지 못해 죄스럽기는 했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갑자기 절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 절을 찾았다. 과연 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마침 내가 절에 간 날은 법회가 있는 날이었다. 아무도 반기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가 번쩍 뜨였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마저 들 정도로 스님 법문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돌아볼 것도 없었다. 주저 없이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때부터 부처님 생애와 사상, 교리 등 닥치는 대로 배웠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재미도 들어 정말 신나게 공부했다.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가 있고 과학적인 것이 불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불교의 우주관이나 생사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연기법은 너무도 훌륭한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불교계 언론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도 바로 이때였고, 새벽예불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경전공부를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어떤 때에는 잠이 부족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경전 공부를 하려고 밤새 라디오 불교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염불을 하면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만한 행동으로 남을 무시했던 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무지와 집착의 업으로 보낸 많은 날들을 참회하면서 비우면서 내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심이 섰을 때는 참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아이들도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큰 아이를 해인사 수련회에 보냈더니, 나중에는 동생들까지 모두 데리고 갈 정도가 됐다. 사실 아이들에게 절에 갈 것을 은근히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반성을 한 적이 많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불교를 더 싫어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더욱 조심스러웠다. 이런 엄마의 생각을 눈치 챘는지, 아이들은 오히려 내게 고마워했다.

이런 것이 공부고, 이런 것이 연기법이라고 생각하니 부처님 법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신행생활이 이어졌지만 초보불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해 보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그러던 차에 한 도반으로부터 삼천배 철야정진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한 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다리가 너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서 말로만 듣던 삼천배 철야정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은 내 몸이 아니었지만 정신은 더욱더 또렷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 2천배 동안 절을 할 때마다 되새겼던 서원은 2천배를 넘어서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있음이 느껴졌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환희심이 일어났다.

지금도 첫 삼천배 철야정진은 잊혀지지 않는다. 평생을 살면서 그 때처럼 기쁘고 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부처님 법 안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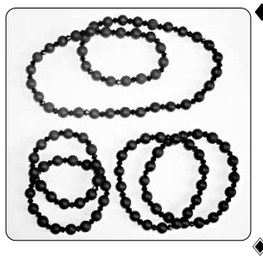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해동 06-32호

공 고

송원사 / 정인식(혜공) / 경남 김해시

상기인은 본 종단 종헌종법 제3장 8조 3항, 9항에 의거 체탈도첩 되었음을 공고함

(2006년 10월 16일)

2006년 11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제 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 · 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 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중급반 :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 **055)745-8419**

사단법인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합장
강 사 원 명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현공풍수 양택사(陽宅師)과정 모집

"뜻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모집인원 :** 50명
◆**강의일정 : 12주 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개 강 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강의내용**
※ 현공풍수의 이론에 입각한 양택
(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관공서 등)의 부지선정, 건물의 배치, 좌향, 통로, 방문, 가구 및 집기 등의 배치방법, 현장실습5회 이상 실시
◆**수 강 료 :** 30만원
◆**문 의 처 :** 담당교수
곽민석 011-758-7630
박상건 011-246-1079
◆**특 전**
-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평생회원
- 풍수 양택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신지식 보수교육
-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양택사와 교류

중앙대학교 위탁교육기관 코드 바

중앙 HRD 교육원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달마목걸이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달마의 氣

과로로 지친 직장인과 수험생은 일과 공부로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로 나쁜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 달마목걸이
  大 150,000원
  中 120,000원
  小 80,000원
- 달마핸드폰줄
  80,000원
- 달마귀고리
  160,000원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행운 충전



보이차

해발 3,000M이상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호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종류 : 담녹색, 황토색



불교 다이어리북 (2007년)

매일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가는 날이 표시 되어있어 편리한 2007년 불교 다이어리 북



가격 : **7,500원**

・사이즈 : 표지 14.5×19.5cm, 속지 13×19cm
・사찰 및 단체명 (레이저 음각)
인쇄 : 100권 이상 무료,
100권 미만시 6만원 추가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산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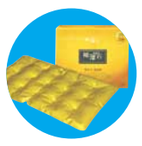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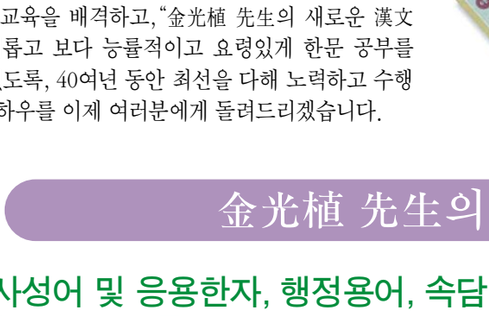
희담석 방석

~~198,000~~ → 158,400원 (20%할인)

・규격 : 425mm × 400mm
・무게 : 950g ~ 1000g
・색상 : 살구색, 쥐색
・재질 : 겉커버 - 고급 샤넬천,
속커버 -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총길이 : 120.5cm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사은품 : 희담석 눈찜질팩



희담석 보료 (싱글)

~~4,000,000~~ → 3,200,000원 (20%할인)

・희담석 사이즈 (700mm×1800mm×30mm) ・보료 사이즈 (1000mm×2200mm×100mm)



▣ **제품설명** :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수면시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제작한 명품입니다. 대부분 돌침대 원석의 두께가 1cm ~ 2cm 정도임에 비해, 희담석 돌침대는 영구 사용을 위하여 3cm 두께의 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징은 에너지 방사능력으로,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 사용하셔도 에너지 투과력이 높아 수면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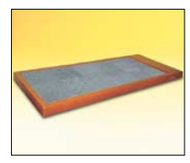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보료 (보급형)

~~2,800,000~~ → 2,240,000원 (20%할인)

・희담석 사이즈 (600mm×1500mm×30mm) ・보료 사이즈 (900mm×1900mm ×100mm)



▣ **제품설명** :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보급형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 ~ 60℃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보료 : 천연고급가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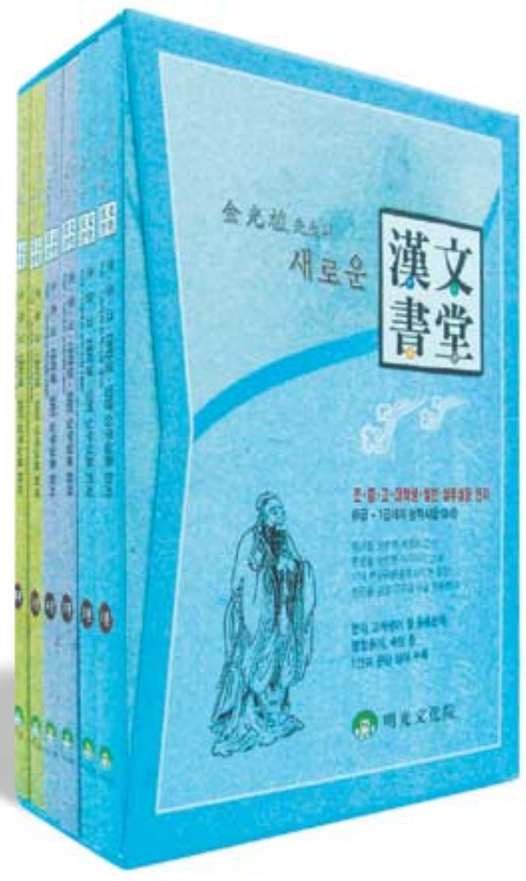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 희담석 허리팩

※ 수도권 배송비 무료, 지방 배송비 별도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 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2004-8215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